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8 호 4월30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근로자

제8호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1949년4월30일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의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방문

사업경과보고

내각수상 김 일 성

(만장총기립 우렁찬 박수속에 등단)

친애하는 대의원여러분!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조 쏘량국간에 협정들이 체결된 의의와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를 최고인민회의에서 간단히 보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조 쏘량국간의 관계는 이전 짜리로씨야와 조선간의 낡은 기초에서 설정된 것이아니라 시초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새관계에서 설정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쏘련의정책은 민족자결을 준수하는 정책이며 타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동등권을 존중하는 정책이며 다른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않는 정책입니다。

쏘련의 이러한 정책은 우리조선에 대하여 시종일관하게 진행되었으며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쏘련은 우리조국을 일제통치로부터 해방시킨후 우리조선인민에게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항상 진정한 원조를 주었습니다。

우리공화국 북반부지역에 주둔하였던 영웅적 쏘련군대는 우리 조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각방면에서 우리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자기조국의 주인으로 되게할 온갖 가능성과 조건들을 지어주였으며 일제가 소

유하였던 공장 기업소 광산 철도 운수 은행 및 기타 전체자원들을 조선인민의 소유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쏘련정부는 작일의 식민지민족이던 우리조선인민이 급속한 기간내에 장구한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들을 청산하고 파괴된 민족경제와 유린당한 민족문화를 부흥발전시킴에 온갖 기술적 원조와 기계 시설품 자재상 원조와 문화적 원조를 아끼지않고 주었습니다。

이러한 원조의 결과로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해방후 불과 三년동안에 일제가 파괴한 생산기업소들과 철도운수들을 복구발전시킴에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었으며 일제시대에 한개소도 없던 十一개의 대학들을 창설하고 수만여명의 민족간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조선인민에게 대한 쏘련정부의 이러한 원조정책은 해방후 첫날부터 조선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종일관한 쏘련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명백히 표현되었습니다。

우리조선인민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가능성을 보장할 모쓰크바三국외상회의에서 쏘련대표단의 정당한 주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쏘미공동위원회에서 쏘련대표단은 조선에관한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을 정확히 실천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조선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측대표단의 반대에 의하여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실천이 불가능하게 됨에 이르러 쏘련대표단은 쏘미공동위원회에서와 유·엔총회에서 쏘미량국군대를 조선으로부터 一九四八년초에 동시에 철거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전체조선인민은 조선문제해결의 가장 정당한 방법인 쏘련정부의 이 제의를 열광적으로 지지찬동하였습니다。 량군동시철거에 대한 쏘련정부의 정당한 제의는 미국정부에 의하여 거부되었습니다。 타민족의 자주권과 동등권을 존중하는 위대한 쏘련은 우리조국에 공화국이 선포되고 공화국정부가 수립된후 조선최고인민회의 제一차회의의 요청에 의하여 자기군대를 우리강토로부터 철거하였습니다。 쏘련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선하여 승인하고 우리공화국과 외교 및 경제적 관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쏘련정부의 쏘딸린적 대외정책은 위대한 쏘련이 진정으로 우리조선이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로 되는것을 원하며 조선인민에게 아무러한 야심도없는 진정한 원조를 주고 있다는것을 전체 조선인

민들은 실지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쏘련과의 일층 긴밀한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맺으며 확고부동한 친선정책을 강화발전시키는것 만이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조선인민의 승리를 보장하리라는것을 잘알고있습니다。(박수)

현시기는 민주와 반동, 평화와 전쟁이 투쟁하는 시기입니다。 세계는 침략정책을 실시하며 새 전쟁을 방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선두로하는 제국주의반동진영과 평화와 민주를 옹호하는 쏘련을 선두로한 반제국주의 민주진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영웅적 쏘련군대에 의하여 四十년간의 일제통치로부터 해방된 우리조선인민은 국제민주진영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이것은 조쏘량국간의 영원불멸의 친선의 기초중의 하나입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 공화국정부 정강에 명백히 지적된 바와같이『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우리민족이 전세계 자유애호인민들의 대렬에서 동등한 한 성원으로 되며 또한 우리민족의 평등적 지위와 자유를 존중하는 여러 자유애호국가와 민족들과의 견실한 친선을 맺도록 도모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상에 지적한 모든 조건들과 조쏘량국간의 여러가지 실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공화국내각은 자기대표단을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에 파견할것을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쏘련정부의 승낙을 요청하였습니다。

쏘련정부는 우리정부 요청에 응낙하는 답전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쏘련정부로부터 답전을 받고 一九四九년二월十九일에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쏘련정부와 토의할 문제들과 쏘련에 파견할 정부대표단 성원들을 결정하였습니다。

내각결정에 의하여 공화국정부가 쏘련정부와 토의할 문제들은 조쏘량국간의 경제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 근거하여 쏘련정부로부터 경제적 원조와 각종 기술적 원조와 문화적 원조를 받는 문제이었으며 쏘련과의 무역관계를 확장하고 쏘련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기계 기계부속품과 물자들을 수입하는 문제이었으며 수출보다 수입이 초과되는관계로 초과수입품 댓가를 결제하기 위한 차관 설정 문제들이었습니다。

내각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七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쏘련에 파견하였습니다。

나를 위수한 정부대표단은 외교 및 조약체결상 필요로 박헌영부수상겸 외상, 경제 통상 무역 및 기술원조상 문제의 필요로 정준택국가계획위원장, 장시우 상업상, 교육문화상 문제의 필요로 홍명희부수상 및 백남운 교육상, 통신련락문제의 필요로 김정주체신상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一九四九년二월二十二일에 각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과 각계 각층 인사들의 환송리에 공로로 평양을 떠났습니다.

三월三일에 정부대표단은 모쓰크바에 도착하였고 四일에는 쏘련정부 부수상겸 외상 몰로또브씨와 회견하고 쓰딸린대원수와 면담할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였습니다.

三월五일 대표단전원은 쓰딸린대원수를 회견하고 우리대표단이 맡아가지고간 모든 문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쓰딸린대원수는 우리정부대표단이 제출한 모든 문제들을 쾌히 승낙하시고 쏘련정부측으로부터 몰로또브부수상을 수석으로하는 위원단을 구성하여 우리대표단과 함께 우리가 제출한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결정할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박수)

량국대표단은 친선한 분위기속에서 상호원조와 상호리해의 정신으로 평등적 립장에서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회담은 이미 우리대표단이 쓰딸린대원수와의 회견시에 그가 승낙한 원칙을 기본으로하고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즉 량국간에 경제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할 문제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공화국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급속히 촉진시킬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 우리대표단은 동등한 립장에서 량국의 통상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인민경제발전의 수요에 적응하도록 상품교류를 확보하며 문화 과학 예술분야에 있어서 량국간에 맺어진 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산업 및 농업생산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파견으로써 기술적 원조들을 받을 모든 문제들을 포함한 경제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쏘련정부는 이러한 협정들을 체결할것을 동의하고 우리정부가 제출한 조쏘량국간 경제 문화협조에관한 협정초안을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전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열렬한박수)

一九四九년三월十七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과의 간에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이 비로소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들은 우호적 평등적 원칙에서 체결되었습니다. 동협정 제一조에는 『량체약국은 협조 동등 및 호상리익의 기초위에서 량국간의 통상관계를 백방으로 강화발전시킬것이다. 량체약국정부는 一년간 또는 보다 장구한 동안에 호상제공하는 상품의 량과 종류를 규정하며 또한 량국의 인민경제발전의 수요에 있어서 량국간의 끊임없고 또 증가되는 상품교류를 보장하여주는 기타 제조건을 규정하는 협정을 때때로 체결할것』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정 제二조에는 『량국간의 통상 및 항행에 관한 제문제에 있어서 또한 량체약국중 어느한국가의 령토내에서 해당체약국의 자연인 및 법인들의 활동에 있어서 호상 최혜제도를 허여할것』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정 제三조에는 『량체약국은 문화 과학 및 예술분야에서 량국간에 설정된 관계를 백방으로 발전강화시킬것이다. 이에 적응하여 량체약국정부는 해당협정을 체결할 목적을 가진 협의를 시작할것인바 이에 있어서 량정부는 이 관계를 더한층 강화시키려는 지향에서 립각할것이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협정 제四조에는 『량체약국은 전문가의 파견 기술적원조 전람회조직 종자 및 식물표본의 교환 또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산업 및 농업생산분야에서 량국간의 경험교환을 촉진』할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十년을 기간으로하고 체결되었으며 이 기간이 끝난후 량국간의 요구에 의하여 연장할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과의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들에 근거하여 다음과같은 협정들이 체결되었습니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간에 一九四九년—一九五〇년간 상품류통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에 의하여 량국간의 통상관계는 일층 발전확대될것이며 우리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시설품 기계 기계부속품 원유 꼭쓰탄 기관차 전기기관차 면화등 중요물자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대신에 우리공화국은 주로 우리가 생산하는 금속제품 화학제품들을 쏘련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一九四六년 북조선인민위원회시대부터 쏘련과의 정상적 무역관계를 맺고 쏘련으로부터 우리의

민족경제발전에 막대한 원조를 받았습니다.

쏘련과의 무역관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확대발전되고 있습니다. 량국간의 무역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一九四六년에는 七천四백五만二천루불리
一九四七년에는 一억四천八백四十만루불리
一九四八년 二억六천四백九十만五천루불리
一九四九년 三억三천七백四만루불리
一九五〇년에는 六억八천四백二十一만루불리로 되게 될것입니다.

즉 량국간의 一九四六년도 무역총액을 一〇〇으로 기준한다면

一九四七년도에는 二〇四%
一九四八년도에는 三五七·七%
一九四九년도에는 四五六·五%
一九五〇년도에는 九三七·五%로 장성될것입니다.

이와같이 량국간의 무역관계는 친선적이며 평등적이며 호상 신의의 원칙에서 진행되며 발전되고 있습니다. (박수)

둘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정부간에 차관문제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인민경제를 부흥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공장들을 다 복구하며 이미 복구된 공장들을 자기의 성능을 다하여 조업하게하며 우리산업의 편파성을 퇴치하며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가장 긴요한 새공장들을 건설하며 새 생산부문들을 설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과업을 실행하기위하여서는 우리는 쏘련으로부터 많은 기계들과 기계부속품들과 원료들과 물자들을 수입하여야하며 운수사업을 발전되는 인민경제수요에 수응하게 하기위하여서는 자동차 기관차들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수출하는것만침 수입하는 물자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인민경제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대표단은 초과수입품 대금결제를 위한 차관을 설정하여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쓰딸린대원수와 쏘련정부는 차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우리의 요청에 만족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박수) 우리공화국은 이 협정에 의하여 쏘련정부로부터 一九四九년七월一일부터 一九五二년七월一일까지 년등분하여 二억一천二백만루불리의 차관을 받게되었으며 차관지불은 一九五二년七월一일부터 시작하여 년등분하여 三년간에 갚기로 하였습니다.

이 차관에대한 리자는 년 二%로 쏘련정부에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이 차관협정에 의하여 一九四九년七월一일부터 우리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각종 기계 시설품들과 원료 및 물자들을 수출액보다 더 많이 받게되어 인민경제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정부간에 우리가 받을 기술원조에대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바와같이 일본제국주의의 장구한 통치의 악독한 결과는 우리민족으로 하여금 기술적 민족간부를 전혀가지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가 파괴한 모든 공장들과 생산부문들을 복구하며 신설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기술자들의 힘만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특히 새공장건설에 대한 설계안을 작성하며 지하자원을 탐사하며 관개시설과 발전소의 복구등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쏘련기술자들의 원조를 받지않으면 광대한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실현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쏘련군대가 우리공화국 북반부지역에 주둔하고 있을때에 쏘련기술자들의 막대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쏘련군대가 북반부지역으로부터 철거한 조건하에서 우리공화국이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륭성되기 위하여서는 쏘련정부의 막대한 기술적 원조가 요구됩니다. 량국간에 체결된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우리공화국은 쏘련정부로부터 청진제철소 외륜압연공장 자동차조립공장 착암기생산공장 강관제조공장등 설계안작성등에 대한 기술적원조와 려청탄 류화철등 광물을 탐사하기위한 지질 기술자들과 중요공장 기업소에 도움을 줄 기술자들을 받게될것이며 우리의 기술자들을 쏘련생산기업소에 파견하여 선진적 생산기술을 습득케 될것입니다.

쏘련기술자들은 우리의 산업에서만 격접 기술적 방조를 줄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자들을 직접양성하며 그들을 선진기술을 습득시킴에 직접 원조를 주게될것입니다。 쏘련기술자들은 해방후 三년동안에 이 방면에서 막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적할것은 우리나라에 파견되는 쏘련기술자들에게 대한 매우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우리공화국으로 파견되는 전체쏘련기술자들은 우리공화국정부 관할하에서 사업하게되며 조선기술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월급을 원으로 받게되며 조선기술자들과 똑같은 초건으로 식료와 기타배급을 받게됩니다。

쏘련기술자들에게 대한 기타비용들은 쏘련정부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쏘련정부가 우리공화국을 얼마나 진정으로 원조하여 주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며 우리민족에 대한 쏘련의 정책이 얼마나 정당하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박수)

우리공화국이 쏘련기술자들을 초빙하여 대우하는 조건들과 다른나라에서 자본주의국가 기술자들을 대우하는 조건들을 대비하여 본다면 쏘련정부가 조선인민에게 주는 원조가 얼마나 진정하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공화국에 쏘련 과학일군들과 학자들을 파견하며 우리류학생들을 쏘련대학에 계속파견하며 량국간의 문화교류와 련락들을 강화함에 대한 협정들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바와같이 해방후 불과 三년동안에 공화국북반부지역에는 十一개의 대학이 창설되어 이 대학들에서 적지않은 쏘련학자들과 과학일군들이 장기적으로나 혹은 단기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학부의 교수들이 대단히 부족되며 대학시설들이 아직 불충분합니다。

량국간에 체결된 이 협정에 의하여 쏘련으로부터 과학일군들과 학자들이 우리공화국에 파견되어 우리대학들과 우리의 교수들에게 많은 과학적 문화적 원조를 주게될것이며 우리대학들은 쏘련으로부터 교과서 각종실물표본 실험기구 연구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들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우리공화국은 류학생들과 연구생들을 쏘련최고학부들에 정기적으로 파견하게될것이며 량국간에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게 될것이며 예술단체들을 호상교환하게 될것입니다。

대의원여러분!

금번 협정들을 체결함에 있어서 쓰딸린대원수는 조선인민과 우리공화국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주었습니다。 그의 특별한 배려하에서 조쏘량국간에 체결된 협정들은 우리공화국의 장래 발전에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이 협정들은 우리공화국의 인민경제발전 二개년계획의 초과완수를 위한 조건들을 지어줌으로써 우리공화국의 정치적 경제적기초를 일층 튼튼케 할것이며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생활을 일층 제고시킬 것입니다。

이 협정들은 동등적원칙에서 체결되었으며 위대한 쏘련이 조선인민에게 주는 진정한 우호적 정책과 원조적정책의 정신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체 조선인민들은 우리공화국의 국제적위신과 장래발전에 거대한 전망을 가져오는 이 협정체결을 열광적으로 지지찬동하며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에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二개년인민경제계획 초과완수를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고 있습니다。(박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四월九일에 내각회의를 개최하고 자기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와 및 체결된 협정들의 내용에 관한 보고를 듣고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미국이 남조선매국괴뢰『정부』와 체결한 소위『협정』들을 가지고 봅시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구 리승만괴뢰『정부』와 소위『한미군사협정』『한미재정급 재산이양에관한 협정』『한미경제원조협정』등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위 이『협정』들은 어느것을 물론하고 다 조선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시키는 노예적 협정들입니다。

리승만이 말한대로 『미군이 철퇴하기까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一九四八년八월二十四일 소위『한미군사협정』을 봅시다。

이『협정』내용은 발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매국적정체를 다 알수없으나 소위 괴뢰『정부』의 공보처의 보도에 의하더라도 이『협정』들을 체결한 자들의 음흉한 기도를 가히 알수있습니다。

소위 이『협정』에 의하여 해안경비대 륙군의 통활권은 미군이 가지게되었으며 미군이 요구하는 공화국 남반부의 지역과 기구들은 미군에게 제공하기로 되었습니다。

다른방면으로 一九四八년九월十一일에 체결된 소위 『재정 급 재산이양에 관한 한미협정』에 의하여 소위 한국정부는 어떤 재산을 막론하고 미국이 관심만 가지는것이면 그것을 미국에 내주기로 되었습니다。

이에대하여 이 매국협정은 제九조 (다) 항에 『동산 우는 부동산 유체 우는 무체임을 막론하고 미국정부가 관심을 가진 한국재산 급 그 첨부물을 취득함』이라 하였으며 동안 (라) 항에는 『대한민국정부는 본조 조건하에 미국정부가 상호협정으로써 취득할수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미국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이양함』이라 하였습니다。이리하여 매국노들은 이 매국협정에 충실하기 위하여 제一착으로 조선최대의 건축물의 하나인 반도호텔과 기타 중요한 지대들을 그 소유권까지 껴서 미국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一九四八년十二월十일에 체결된 소위 『한미경제원조협정』에 의하여 남조선전체경제를 미국사람들의 수중에 넘겨주었으며 미국장사군들과 자본가들과 무역상들은 조선에 입국하여 마음대로 아무 영업에나 종사하게 되었으며 마음대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협정』 제二조 (바) 항에 명기되어있는바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사적 투자 급 사적 각국무역상이 한국에 입국하여 영업에 종사함을 용이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위 『경제원조』라는 미명하에서 남조선에 『미국원조대표기관』을 설치하고 그에게 온갖 특전을 부여하여 이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조선의 경제를 마음대로 운영관리하며 그를 검열통제할수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소위 『협정』 제三조 (3) 항에 『……대한민국정부는 본협정규정실시에 종사하는 미합중국정부직원이 자유로 한국에 출입하여 한국내에서 려행함을 허가하며』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이 리승만 매국괴뢰 『정부』와 체결한 소위 『협정』 들은 불평등적 예속적 『협정』 들이며 미국의 조선내정간섭의 합법화를 목적한 『협정』이며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변화시키려는 협정들입니다。

미국의 조선에대한 략탈적정책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원조한다』고 떠드는 미국사람들의 『원조』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위하여서는 남조선의 경제상태를 간단히 분석할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의 『경제적원조』에 의하여 남조선의 경제는 파탄되었으며 거리에서는 수백만의 실업자가 방황하고 있으며 인민들은 파산과 질병과 기아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이 조선으로 가져오는 물자는 미국시장에서 구축된 설탕 썩은밀가루 안남미 화장품등입니다。 실례로 남조선출판물의 보도에 의하더라도 一九四七년八월부터 一九四八년九월까지 불과 一년동안에 부-

산항을 통하여 수입된 설탕값만하여도 四十여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설탕이나 밀가루나 화장품들을 가지고는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미국의 『경제적원조』를 받는 곡창인 남조선에서 외래미를 수입하고도 식량이 부족하여 빠요즘에는 소위 『중점배급』이라는 명칭하에서 배급대상을 七〇%이상이나 축소시켜 인민들을 기아에 빠지게하는 망국적 계획을 꾸미고있는 원인은 어데있으며 곡창도 아니고 미국의 『원조』도 받지않는 북조선에서 백미 소두 한말에 一백七、八十원을 하는 오늘에 곡창이고 외래미를 수입하고 미국의 『원조』를 받는다는 남조선에서 백미 소두한말에 九백五十원 치 천원까지 달하는 리유가 어데 있습니까? 조선인민은 미국사람들이 밤낮 떠드는 소위 『경제적원조』라는것이 공화국남반부의 경제와 인민들의 생활을 파탄시키는 리유가 『고양이 쥐생각하듯』 하는격의 미국식원조 때문이라는것을 잘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체 조선인민들은 조선에대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을 식민지적 략탈정책으로 규탄하고 미제국주의예속화정책을 반대하는 장엄한 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남조선리승만 괴뢰 『정부』를 타도분쇄하기위한 영웅적 인민항쟁을 치렬히 계속하고 있습니다。(박수)

이와반대로 전체조선인민들은 우리조국에대한 위대한 쏘련의 정책을 우리해방자이며 진정한 원조자의 정책을 지지찬양하며 전체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일층 굳게 결속하여 그의 정강실천에 총궐기하고 있습니다。

대의원여러분!

나는 나의 보고에서 쏘련방문에 대한 우리대표단일행의 인상과 참관에대하여 간단히 말하려고합니다。

우리대표단일행은 공화국의 장래발전을 위한 중대한 사명을 띠고 우리의 해방자이며 원조자이며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을 방문하게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였으며 특별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벌써 모쓰크바행 기차내에서 쏘련정부에 중경공업공장들과 문화 교육 예술부문과 도시시설들과 건설들을 참관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쏘련정부는 우리에게 모든 시설들을 참관할수있는 온갖 편의들을 친절하게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쏘련에 체류하는 동안에 쏘련정부와 지방행정기관들과 사회단체들의 친절한 알선으로 모쓰

크바 레닌그라드 산업지대와 부근농촌들에서 쏘련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장엄한 전후의 건설들을 목격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제국주의국가들에서 새 전쟁방화자들이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이때에 위대한 쏘련인민들은 자기의 장래와 옳은 사업에 대한 확고부동한 자신을 가지고 자기정부와 쓰딸린대원수 주위에 튼튼히 단결되어 전후 인민경제부흥과 평화적 건설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있는데 우리는 크게 감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후 불과四년동안에 위대한 쏘련인민들이 참혹한 전쟁의 상처를 급속히 회복하며 인민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결과 상점마다 상품들이 풍부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는데 대하여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쏘련의 장엄한 문화시설들과 방대한 공장시설들을 보았습니다. 최신기술로 시설된 공장들의 기계화 정밀한 로력조직 합리적 생산행정 로력에대한 로동자들의 자각적태도 용의주도한 안전시설등은 우리를 놀라게하였으며 감격케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곳마다 쏘련인민들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여 주었으며 자기들의 래일에 대한 튼튼한 신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수)

나는 우리대표단이 쏘련에 체류하는동안 쏘련정부가 우리에게 준 친절한 대우에 대하여 특히 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

특히 三월十七일 쓰딸린대원수께서 우리대표단을 위한 초대연회석상에서 진술하신 간단한 말씀은 우리대표단일동에게 특별한 감명과 감격을 주었습니다.

쓰딸린대원수는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귀족과 지주와 짜리가 지배하던 로씨야에는 조선과의 친선이 없었으며 일본과 로씨야간에 조선정복을 위한 전쟁이 진행되었으며 벌써 그때에 볼쉐위끼들은 타민족정복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레닌은 동방의 제민족들이 구라파의 제민족들과같이 자유를 가져야된다고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쓰딸린대원수는 말씀하시기를 쏘베트인민들은 타민족의 정복을 반대하여 제민족의 동등권을 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쓰딸린대원수의 이 간단한 축배연설은 약소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동등권을 존중하는 쓰딸린적 대외정

책을 천명한것이며 조선인민에게대한 위대한 쏘련의 진정한 우호적 원조정책을 천명한것입니다. (열렬한박수)

대의원여러분!

우리정부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로부터 맡은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결과 우리가 맡은 기본사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사이에 경제 및 문화협조에관한 협정들이 체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여러가지 협정들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들의 정치경제적 의의는 큽니다.

이 협정들은 우리공화국의 정치적 경제적토대를 일층 확고히 하는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있게 완수케 할것이며 또 그리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수준을 더욱 향상시킬것입니다.

이 협정들은 우리민족력사상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새페지를 차지하는것이며 우리공화국의 국제적 정치적지위를 향상시키며 공화국의 번영과 발전에 무한한 전망을 가져올것입니다. (박수)

이 협정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특히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위한 투쟁에 기여될것이며 해방과 원조에서 맺어진 조쏘량국인민의 영원불멸의 친선을 일층 강화할것입니다.

이 협정들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와 국토의 완정을위한 우리의 투쟁에 막대한 힘을 주게 될것이며 이 정당한 투쟁에서 우리의 승리를 일층 촉진시킬것입니다.

우리는 이 협정들에 의하여 위대한 쏘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진정한 원조를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 유효하게 리용하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과같이 쏘련정부와 특히 쓰딸린대원수가 우리조선인민의 요구에 대하여 깊은 리해를 표명하여준데 대하여 우리공화국과 三천만조선인민을 대표하여 쏘련정부와 쏘련인민과 그의 위대한 수령 쓰딸린대원수에게 전민족적 감사를 또한번 다시 드립니다.

(총기립 우렁찬박수 오래계속)

조쏘량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의 의의에 대하여

박 동 초

김일성수상을 수석으로한 우리 공화국 정부 대표단 일행은 위대한 련방인 쏘련을 방문하고 지난 四월七일에 평양에 귀환하였다。

우리 공화국 대표단이 三월三일부터 三월二十일까지 모쓰크바에 체재하는 동안 쓰딸린수상을 비롯한 쏘련정부 대표들과 화기에 넘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협의와 회합을 계속한 결과「쏘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一九四九년과 一九五〇년에 있어서 쏘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에 상품교류를 현저히 증가시킬것을 예견하는 량국간의 상품교류와 지불에 관한 협정」「조선에 제공되는 상품에 대한 지불을 위한 크레딧트를 조선에 허여할데 관한 협정」「조선에 기술적 원조를 줄데 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쏘련과 체결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은 대소민족의 독립과 자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와 자유를 옹호하는 기초 위에서 호상 완전한 평등적 원칙에 립각한 위대한 쓰딸린적 대외정책에 의하여 조쏘량국의 완전한 평등적 립장에서 「쏘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를 더한층 발전 강화시킬 것을 지향하면서 량국간의 이 련결의 강화발전은 량국 인민의 절실한 리익에 부합되며 또한 량국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조로 되리라는」확신과 목적을 가지고 체결된 것이다。

이번 량국간에 체결된 협정을 일관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쏘베트련맹의 대내정책과 분리할수없는 인민들간의 친선과 평화와 대소제국간의 동등권 및 자주권을 옹호하며 존중하는 쏘련의 대외정책의 제원칙이 반영된 것이며 확고불변의 조쏘 량국 인민간의 친선을 다시한번 전세계에 선시하였다。

이미 다아는바와 같이 쏘련의 대외정책은 제 인민 간의 친선과 세계의 평화를 유지 강화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리익과 그 영예와 위엄을 고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쏘련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전련맹공산당(볼쉐위끼)제十七차당대회에서 쓰딸린대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대외정책은 명료하다。이것은 모든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며 통상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인 것이다。쏘련은 어떠한 나라에 대하여서도 위협하거나 더우기 공격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가지고 있지않다。우리는 평화를 옹호하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평화를 애호하며 제 인민들 간의 친선을 튼튼케하는 쏘련의 대외정책은 약소 제국의 자주권을 존중시하며 동등권에 립각하여 그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다。

쓰딸린대원수는 대소 제국간의 평등과 협력에 대하여 一九四八년 四월 쏘분조약이 체결될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동등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것을 믿지않으려한다。그러나 쏘베트사람인 우리들은 이런 동등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한다고 인정한다。쏘베트사람들은 어느 민족들을 물론하고 다 한가지로 크나 적으나 할것 없이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본질적 특징 또는 자기의 고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이 특징들은 각 민족이 세계문화의 일반적 보고(寶庫)를 보충하며 또는 풍부히하는데 공헌하고 있다。이런 의미에 있어서 크나 적으나 할것 없이 각민족은 동일한 립장에 서고 있으며 또한 각 민족은 어떤 다른 민족간에 있어서도 동등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동등권의 원칙 위에서 조쏘 량국 간의 협정은 체결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협정 전문에는『량국간의 이 련결의 강화 발전은 량국 인민의 절실한 리익에 부합되며 또한 량국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조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하였으며 제一조 제一항에는『량 체약국은 협조 동등 및 호상 리익의 기초 위에서 량국간의 통상관계를 백방으로 발전 강화시킬 것이다』라고 지적되었으며 제二조에는『량 체약국은 량국 간의 통상 및 항행에 관한 제문제에 있어서 또한 량 체약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령토 내에서 해당 체약국의 자연인 및 법인들의 활동에 있어서 호상 최혜제도(最惠制度)를 허여할 것이다』라고 명기되었다。

이와 같이 조쏘량국의 완전한 동등권적 원칙 위에서 체결되었으며 조쏘 량국인민의 절실한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 이번 협정은 우리 민족 력

사상에 있어서 또 우리 공화국의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우선 이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은 작년 十월 쏘련 내각수상 쓰딸린대원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장군과의 사이에 교환된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서한의 구체화이며 발전인 것이다。

쏘련정부 수상 쓰딸린대원수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김일성수상은 당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던 것이다。

『외교관계 설정과 함께 우리 량국 인민의 공통한 행복을 위하여 량국 간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도 역시 설정할 것을 나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일성수상의 서한에 대한 회답에서 쓰딸린대원수는

『쏘베트정부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 외교관계를 설정하며 대사를 교환하고 이와 아울려 해당한 경제관계를 설정하겠다는 것을 표명합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협정은 조쏘 량국가의 공고한 친선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량국 인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당연히 체결될 협정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협정은 조쏘 량국 친선의 필연적 귀결이며 발전이다。 그것은 세계평화와 민주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승리에 대한 힘찬 고무이며 조국의 자유독립을 위한 『우리 력사상에 영광스러운 새페지를 차지하는것』(김일성수상)이며 조선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또한 국제적으로도 그 정치적 의의가 중대한 것이다。

첫째로、조쏘협정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불가능케하고 민족간의 불평등을 배제하는 쏘베트사회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회주의국가 쏘련의 평화적이며 대소 제 민족의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옹호 존중하는 위대한 대외정책을 다시 한번 실증하는 것이다。

레닌선생은 일찌기 『우리의 길은 옳다! 우리는 평화와 협조를 지지한다。 그러나 예속과 노예적 조약조건에는 반대이다』라고 교시하였으며 쓰딸린대원수는 쏘분조약체결에 제하여 『조약이란 것은 동권적인 것도 있고 부동권적인 것도 있다。 쏘분조약은 쌍방의 완전한 동권에 기초하여 체결되였기 때문에 동권적 조약이다』라고 말하였다。 조쏘협정은 바로 이러한 철두철미한 동등권적 원칙에 립각하여 체결되였으며 예속적 노예적 불평등적 조약을 절대 용납치않는 위대한 쏘련의 레닌—쓰딸

린적 대외정책의 위대성과 시종여일성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선시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전체 조선인민은 쏘련이야말로・자기들의 진정한 원조자이며 쏘련과의 영구불멸의 친선만이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보장하는 담보가 된다는 것을 더욱 뚜렷이 인식하게 된 것이다。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에 있어서 조선인민이 사회주의十월혁명에서 받은 정신적 격려는 말하지않더라도 조선인민을 일본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쏘련의 은공은 조선민족력사와 함께 길이 빛날 것이다。 민주독립국가 창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조선인민에게 준 쏘련의 원조는 실로 거대하였으며 제반 국제회의와 쏘미공동위원회에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한 쏘련의 성의 있는 노력은 참으로 큰것이었다。 쏘미량군동시철퇴에 의하여 조선문제 해결을 조선인민에게 맡기자는 제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촉진시키었으며 공화국북반부로부터의 쏘련군대의 철거는 미군철퇴를 실현시켜 조선의 국토완정과 통일독립을 완성시키려는 쏘련의 고귀한 성의였다。 조쏘량국간의 외교관계설정、대사교환에 뒤이어 이번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장하며 민주발전을 촉진시키는 불가결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조쏘협정은 우리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한 첫번 조약일뿐만 아니라 조선민족력사상에 있어서 실로 조선이 자주적 립장에서 완전한 동등권에 기초하여 체결한 첫번 조약인 것이다。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적 통치하에서 노예적 상태에 있을 때에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치도 못하였지만 一九一〇년에 자기의 주권을 강도 일제에게 완전히 강탈 당하게된 그 이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평등적 조약은 일찌기 우리 민족이 가져본 례가 없었던 것이다。 一八七六年에 일본과 체결한 『강화조약』 一八八二年에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비롯하여 一九〇五년 『을사보호조약』에 이르기까지의 제 조약은 리씨조선의 봉전전제통치집단이 조선의 정치적 주권과 경제적 권리를 외국 침략자들에게 팔아먹는 매국조약들이었으며 외국 침략자들이 조선을 강탈하는 략탈조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쏘련의 무력에 의하여 장구한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쏘련의 성의 있는 진정한 원조로써 조선인민의 수중에 정권이 장악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수립된 조건밑에서만 오로지 이러한 평등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된 것이다。

나아가 조쏘협정의 체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대외정책에 있어서 쟁취한 거대한 성과이다. 「공화국정부는 우리민족이 전세계 자유애호연민들의 대렬에서 동등한 성원으로 되며 또한 우리민족의 평등적 지위와 자유를 존중하는 여려 자유애호민주국가와 민족들과의 견실한 친선관계를 맺도록 도모할것」이라는 공화국 정부 정강 실천에 있어서 거대한 전진을 가져온 것이다.

우리공화국정부는 수립된지 얼마안되어 세계최대의 강국이며 국제민주진영의 선봉인 쏘련을 위시하여 제 민주주의국가들과 외교 및 경제관계를 맺고 국제민주진영의 동등권 있는 당당한 일원으로써 세계평화와 민주를 위한 투쟁의 일익을 담당하게되였으며 이번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조쏘협정 체결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 정부는 그 국제무대로의 진출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진을 하였으며 자주 평등외교의 훌륭한 결실을 전세계에 선시하게되였다.

셋째로, 침략적이며 전쟁방화적인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의 정체를 전세계에 폭로하였다. 오늘날 국제무대에는 물로또브씨가 지적한바와 같이 두 방향의 대립되는 정책이 있으니 그 하나는 대소제국가의 국제적 협조를 고수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세계제패를 위한 수개 강대국가들의 지향이다. 미국 독점 자본을 선두로한 제국주의진영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새전쟁을 방화하려고 노력한다.

약소국가들과 민족들의 독립과 자유를 유린하며 「마샬안」과 원자탄 협잡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노예화하려고 미제국주의자들은 발악하고 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정책의 침략성은 트루맨이 쏘련과의 평화조약체결을 거부한데서 또 안전보장리사회에서 五대강국무력제한, 원자무기 금지, 원자력 통제에 관한 쏘련의 제안을 부결한데서 그리고 유·엔원칙을 무시하고 서구동맹조약, 북대서양조약을 체결하고 또 지중해조약, 동남아세아조약, 태평양조약등등의 새군사조약준비등에서 구체적으로 로정된다. 이번의 조쏘협정은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전쟁방화기도에 타격을 주는 또한개의 강유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넷째로, 이번 조쏘협정은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남조선 리승만망국괴뢰「정부」의 매국정책을 조선인민과 전세계에 폭로하는 것이다.

미국은 리승만괴뢰「정부」와 작년十二월十일에 「한미경제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실지에 있어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벌써부터 남조선에서 강탈한 경제적 특권을 성문화시킨데 불과하다. 남조선

의 공장기업소의 三〇%이상이 벌써 미국독점자본가들의 수중에 있으며 채광 전기시설 「조선고무」 「부산고무」등등이 완전히 미국회사에 소속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라는 미명하에 조선인민에게 그리 요구도 되지않는 잉여물자를 실어오고 그대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원료품을 실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 「한미경제협정」에 의하여 원조를 주는 본색인 것이다.

이 「협정」에 의하면 미국독점자본가들은 자기마음대로 남조선의 리권을 골라 잡을 수도 있게 되었고 또 이 「협정」이 미국독점자본가들의 비위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미국대표의 일방적 의사로써 얼마든지 변경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았다.

다음 一九四八년八월二十四일에 체결된 「한미군사협정」을 본다면 「미군주둔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한국 전국방 군비의 통활권과 통수권」을 미군이 가질 것이며 남조선의 모든 지역과 기구는 미군이 요구하거만하면 언제든지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一九四八년 九월 十一일에 체결된 「재정급재산이양에 관한 협정」에는 「유체 무체를 막론하고 미국의 관심 있는 재산은 미국에 속함」이라고 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미군남조선주둔비용은 조선인민이 부담하여야 하며 미국군대는 방대한 토지와 건물들을 제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다.

이와 같은 협정을 반대하는 소리는 소위 「국회의원」중에서도 일어났는바 매국노 리승만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미국이 우리를 살려준 은인이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고 뻔뻔스럽게 말하였다.

리승만을 괴수로하는 매국노들의 집단인 남조선 괴뢰「정부」는 조선인민의 리익과는 아무러한 관계도 없으며 매국노들은 어떻게하면 미국상전들의 눈에 들어서 잔명을 좀더 연장하고 제배를 좀더 불려 볼까하는것 뿐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또 하나의 협정을 맺으려 하는 것이니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인 반동일본정부와의 「협정」을 맥아더 지령에 의하여 서둘고 있다. 이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조선농민들로 부터 강탈한 량곡과 소를 일본으로 수출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극동무기고를 복구시키는 사업을 도울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무역은 왜 조급히 서두느냐」는 기자단의 물음에 리승만은 「이것은 밀수를 방지함으로써 량국간에 리익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짖거리었다.

요컨대 미국과 리승만괴뢰「정부」간에 체결된 소위 「협정」들은 남조선의 모든 산업기관을 파괴함으로써 미국의 상품시장으로 만들며 모든 리

권을 마음대로 골라 잡고서 소요의 원료를 미국으로 실어가기 위함이다。그리고 또한 일본을 아세아침략의 미국무기고와 고용병 양성기지로 복구시키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소요되는 식량과 육류공급을 담당하도록 하며 이것을 반대하는 애국적 조선인민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군사권을 미제국주의자들이 장악하고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항만과 군사 요색지를 미군이 마음대로 사용하며 항공기지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이것을 리승만 괴뢰『정부』의 이름을 빌어『조선인민의 의사』인듯이 가장하는 미국독점자본가들의 계획 그대로가 소위 이『협정』들의 전체이다。

미국과 리승만 사이에 체결된『협정』들은 우리 조국과 인민들의 리익을 롱락하는 음모적 문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애국적인 전체 조선인민은 공화국 중앙정부 기치 밑에서 이 매국『협정』들을 절대로 인정치 않으며 단호 배격하는 것이며 조선식민지화기도를 반대하며 미군철퇴실현과 국토완정을 위하여 거족적 구국투쟁에 총궐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매국적『협정』들은 금번의 조쏘량국간의 완전한 동등권적 원칙위에서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결정적 타격을 받게되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원조』가 그 얼마나 흉악한 살인적 독약인가가 조선인민과 전세계에 명백히 폭로되었으며 또 앞으로 더욱 폭로될 것이며 분쇄될 것이다。

이 조쏘량국간의 협정은 우리공화국의 경제발전을 튼튼히 보장하여 주는 점에 있어서 거대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 협정의 경제적 의의를 밝히기 위하여 먼저 쏘련과의 사이에 이러한 협정들을 체결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달성된 성과들과 력사적 전변들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민민주주의 제국은 제二차대전중 독일팟쇼강점자들의 파괴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한 나라들이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짧은 기간내에 상처를 급속히 회복하고 인민경제를 급속히 부흥발전시키고 있다。

파란의 산업생산은 벌써 一九四八년 二·四분기에 一九三八년도 최고수준을 一배반이상 초과하였으며 작년十一월부터 배급제를 철폐하게 되었으며 방대한 六개년 인민경제계획실행의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산업생산이 一九四八년말에 전전수준을 一○%이상 초과하였으며 이미 五개년 인민경제계획 실행에 들어서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산업생산고가 一九四八년말에 전전수준보다 七五%나 초과되었으며 五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실시준비중에 있다。

항가리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전쟁전 수준을 二三%돌파하였고 구라파에서 가장 락후되었던 알바니아도 전전수준을 一○五·四%로 돌파하였다。

이 나라들에서의 인민들의 이러한 경제적성과들은 제반민주개혁의 실시、국내자원의 인민적 소유와 근로인민들의 로력적 분투와 특히 쏘련의 경제적 원조에 그 기초를 가진다。

一九四五년—一九四七년도에 동남구라파에 대흉작이 있었을때 쏘련은 적극적인 원조로써 그나라 인민들을 기아로부터 구원하였으며 원료、연료、반제품、기계 시설품들을 공급하며 기술적인 원조를 주며 또한 그나라들의 생산품 판로를 보장하여 인민경제의 부흥발전을 적극 촉진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쏘련의 원조가 없었다면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오늘과 같은 경제적발전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동、동남구라파의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은 자기들의 승리적 담보로되는 쏘련과의 호상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쏘련과 체결한 경제적 호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의 성과는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체약국의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실로 거대하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쏘련과 경제적 호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한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실례는 조쏘협정이 우리공화국의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거대한 역할을 놀리라는 것을 뚜렷하게 예견할 수 있게하는 것이다。

쏘련은 조선을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킨 이후 일제통치의 악결과로 말미암아 자립적 민족경제로써 발전할 수 없는 경제적 편파성을 가진 여지없이 락후된 그리고 패망일제가 발악적으로 파괴하고간 우리조국의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데 진정한 우의적 방조를 주었다。

이 결과 량차에 걸친 인민경제계획은 승리적으로 완수되었다。이러한 성과적 토대위에서 공화국정부는 수립되었으며 공화국의 경제적번영과 륭성을 예견하는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할수 있게 되었다。

금번 체결된 조쏘협정은 쏘련이 조선에 준 원조를 더욱 발전시켜 그것을 법문화한 것이다。

이리하여 이 협정은 조선인민이 방대한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자립경제를 건설함에 있어서 제반 수요와 애로를 해결하여 주는 것이다。

측『량국의 인민경제발전의 수요에 있어서 량국간의 끊임 없고 또 증가되는 상품교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一九四九년과 一九五○년에 있어서 쏘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에 상품교류를 철저히 증가시킬 것을 예견하는 량국간의 삼품교류와 지불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또『조선에 제공되는 상품에 대한 지불을 위한 크레딧트를 조선에 허여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으로써 조선 민족경제의 부흥발전에 필요한 생산시설 자재등의 곤난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또 동협정 제四조에는『량 체약국은 전문가의 파견、기술적 원조、전람회의 조직、종자 및 식물 표본의 교환、또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산업과 농업생산분야에서 량국간의 경험교환을 촉진시킬 것이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또 쏘련이『조선에 기술적원조를 줄데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조선의 자립경제건설에 있어서 가장 곤난한 애로의 하나인 기술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조건을 갖춘 금번 조쏘협정은 조국의 인민경제를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리승만 망국괴뢰『정부』의 매국책동을 타도분쇄하고 국토완정을 촉진시키는 추진력이 될것이며 국토완정후 파괴된 남반부의 경제를 급속히 부흥시키고 조선인민이 지향하는 웅대한 경제건설을 성취하며 공화국의 무한한 륭성을 가져올수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이다。

이 조쏘협정의 정치적 경제적 의의는 이상과같이 실로 거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의의는 여기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장기간에 걸친 일제통치에서 이루어진 악독한 결과를 청산하면서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적방향으로 급속히 장성되어 나가고 있는 우리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되는 점에 있어서도 또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동협정 제三조에는『량 체약국은 문화 과학 및 예술분야에서 량국간에 설정된 관계를 백방으로 발전 강화시킬 것이다。 이에 적응하여 량 체약국정부는 해당협정을 체결할 목적을 가진 협의를 시작할 것인바 이에 있어서 량정부는 이 관계를 더한층 강화시키려는 지향에 립각할것이다』라고 규정되었다。

자기의 무력으로 조선을 해방시킨 쏘련은 정치경제부문에서만 조선인민을 원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문화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하여서도 끊임없는 원조를 주었다。

쏘련의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 및 학자들은 수백 수천의 우리 민족문화일꾼들에게 형제적 원조를 주었고 쏘련의 우수한 문학예술작품과 영화 연극들은 우리 민족문화발전의 자양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장구한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적 통치로 말미암아 유린되였던 우리의 민족문화가 광범한 근로인민의 문화로 되었고 그들의 창조력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할 토대를 갖추게된 것은 쏘련의 문화 과학 및 예술적 원조에 의하여서만 가능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조쏘량국간에는 문화 과학 예술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친선관계가 설정되었다。

금번의 조쏘협정은『문화 과학및 예술분야에서 량국간에 설정된 관계를 백방으로 발전 강화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문화를 가진 쏘련과 우리 공화국간의 문화 과학 및 예술분야에 있어서 활발한 교류와 상호협조의 관계가 백방으로 강화되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 문화의 급속한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받게되었으며 우리 민족문화의 찬란한 장래를 예견할 수 있게되었다。

그리하여 김일성수상께서 一九四九년도 신년사에서 말씀한바『공화국 북반부의 과학、문화、예술、보건 일꾼들은 자기들의 전체력량과 재능을 다하여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일제통치의 결과로 생긴 우리 조국의 문화적 락후성을 급속히 퇴치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위한 보건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며 자주독립국가건설과 국토의 완정을 촉진시키는 공화국의 과학문화예술의 기지를 튼튼히 축성하여야 하겠다』는 대과업을 수행할수 있게 되었으며 또 미제의 침략정책과 리승만 괴뢰『정부』의 매국매족정책을 파탄시킬것이며 국토완정 후에 남반부의 민족문화의 퇴락을 급속한 시일내에 극복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쏘량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금번 협정은 우리 조국의 장래발전에 있어 실로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그것은 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토완정과 장래번영의 불가결의 담보로 되는 조쏘 량국 인민 간의 친선관계를 더욱 굳게 할 것이며『량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련결을 더한층 발전시키며 강화시킬것』이다。

전체 조선인민은 이 협정으로써 배가의 자신심을 가지고 민족경제와 민족문화의 급진적인 발전을 위하여 나아갈 것이며 이 협정에 의한 경제문화교류의 강화로써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촉진시키면서 김일성수상주위에 더욱 굳게 뭉치어 그가 가리키는 길로 용감하게 앒으로 앒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날회의 진행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부부장 차 영 락

당중앙위원회는 하급당단체들의 사업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며 하급당단체들이 자기의 지도성을 부단적으로 제고하며 당사업수준을 보다 높일데 대하여 적지않은 당적주목을 돌리고 있다。

당단체의 사업수준을 제고하는 문제는 당지도기관의 활동에서 집단적 토의방법이 얼마나 철저히 실시되는가, 비판과 자기비판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당지도간부들이 많은 개별적당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접수하는가 하는것으로 판정되는 것이다。그러므로 당지도기관의 역활을 제고하며 광범한 당원군중을 당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그들의 고귀한 의견을 접수함으로써 당사업에 대한 당원들의 고상한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유감없이 발휘시키도록 하여야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당건설의 조직사업부면에 있어서 당의 기본조직체인 세포의 회의내용과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사업은 당원들의 당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풍부하고 내용 있는 당생활을 꾸미게 하며 당생활에서 당원들의 조직성과 교양성을 강화하는 기본적 사업의 하나로 된다。

당세포회의는 정치 경제 문화등 국가건설사업과 광범한 근로대중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문제들을 토의함으로써·당의 태도와 방향을 제시한다。그뿐만 아니라 당원들을 정치적으로 훈련하며.당원들에게 당적과업을 분공하며 과업실천여부를 검토 비판한다。또한 당세포회의는 해당세포가 처하여 있는 구체적 환경에 비추어 그 사업을 당적으로 협조보장할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모범적당원들의 사업경험을 소개함으로써 다른 당원들이 가지고있던 락후된 사상적경향 및 사업작풍을 시정할수 있게하며 매개당원들의 책임감을 일층 제고하는데로 고무추동한다。

그렇기때문에 당사업의 문제를 처리함과 진행함에 있어서 당세포회의는 당원들을 문제의 정치성을 리해케하여주며 실천의 적극성을 배양하며 당사업에 있어서 주인다운 책임성을 높여주며 자기의 일상적 사업과 당적위임과를 옳게 련결시킬줄 아는 사업방식을 가르쳐주며 당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고상한 정신으로 훈련주는 유일한 학교로 되는것이다。

당세포회의가 당원들의 당생활에 있어서 적극성과 책임감을 높여주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일상적 생활로부터 요구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그들앞에 옳게 제기하여 주며 당원들의 건설적 비판과 경험에서 배출되는 실무적 토론이 열성적으로 전개되는 조건하에서만 보장될수있다。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당회의의 조직성과 교양성을 더욱 성과있게 보장하는 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당회의에 대한 당원들의 책임감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一개월에 二차씩 당날을 정하고 전체당원들을 당날에는 당사업 이외에 관계되는 모든 회합과 사회사업에서 해방시킬것을 결정하였다。

당날은 당세포총회를 소집하는 날을 가리켜 말하는것이다。당날은 일반적으로 세포의 종류에 의하여 유일당날로 정하여져 있다。 당원들은 자기소속세포의 당날을 명심하고 자각적 열성에서 당날을 맞이하는 자기의 준비는 당원들이 반드시 준수할바의 의무로 되는것이다。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후 각종세포들은 이미 수차에 걸쳐 당날을 맞이하였다。그러나 아직 당날이 가지는바 정치적 조직적 의의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당단체들이 존재함을 볼수있다。 즉 평양시당부산하 일부세포들을 비롯하여 다수세포들은 당날에 조직되는 세포총회의 조직성과 교양성을 높이 보장할데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데서 부분적 결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찾아 볼수있다.

결점의 첫째로는 일부세포들이 소정된 당날을 엄수치 않음으로써 당 결정을 미약하게 집행하는 점이다。지난 四월 六―七일 량일간에 걸쳐 소집된 평양시당산하 사무기관、학교、문화단체내 세포들이 당날을 맞이하면서 二四%에 해당한 세포들은 사업이 분주하여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것과 준비가 충분히 되지못하였다는 리유로써 당날을 준수치 않았다。물론 당원들의 참가없이 성립되지않는 회의와 준비없는 회의를 조직할수는 없다。

그러나 당단체가 국가건설사업의 각분야를 결쳐 그 성과를 높이 보장하기 위해서 자체의 모범성을 제고하는 투쟁과 국가적 사회적 건설사업이 분주하다는것과는 아무런 모순성도 발견할수없다。분주한 사업을 조직적으로 그의 성과를 보장하려면 더욱

당세포회의를 통하여 당원들을 사상정치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훈련함이 긴요한 사업으로 제기되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미약한 세포사업은 일반적으로 원만치 못할것이며 결과에 매개당원들의 정치성과 조직성이 미약하게 될것이며 국가건설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적 역활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될것이다。

문제는 당간부들로 부터 매개당원에 이르기까지 당 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항상 당세포가 처하여 있는 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관찰하려는 정신이 있어야하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번잡하게 제기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키는 조직성과 계획성이 있어야 하며、세포사업의 중요성을 정당히 파악함이 있어야 할것이다。

이와같은 기본정신하에서 당날은 반드시 소정의 날자를 엄수하며 당날에는 전체 당원들이 당사업이외에 관계되는 모든 사회사업과 회의에서 해방되어 높은 비률로써 세포총회에 참가할것이며 그를 통하여 당원들을 당적 교양과 훈련을 받도록 인도하는 사업을 각방면으로 전개하여야 할것이다。

당날에 진행되는 회의의 결점의 한가지는 당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함과 결정함에 있어서 전개되는 토론에 일부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며 건설적인 토론이 부족한 점들이다。

당회의에서 당원들이 토론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것은 당원들의 열성과 정치적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은 물론이나 또 묵과할수없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조건의 하나는 진술되는 보고내용이 당원들의 일상적 생활내용과 결부되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야하며 제기되는 과업들의 실천적 가능성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보고를 책임성있게 진행하여야 할것이며 보고가 하나의 강의식으로 되어서는 아니된다。 경험에 의하면 어느대학당부 분세포는 『지방주권기관 선거사업협조』에 대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三十―四十분 이상의 시간을 요하였을 뿐만아니라 보고내용은 九○% 이상이 국제 군내정세를 차지하였고 상세히 총화하여야할 자체사업에 대하여서는 극히 적게 취급되었다。

또 어떠한 사무기관세포총회에서 진술된 보고내용의 방향이 세포사업으로부터 벗어난 행정적 사업범위를 침범하는 방향에서 마치 당세포가 국가기관사업을 지휘감독하는듯한 경향이 표현되었다。 당회의에서의 내용이 풍부한 보고는 당원들의 건설적인 토론방향을 지어주는 작용을 하는것만 아니라 당원들의 토론에 참가하는 적극성을 북돋아주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이와같이 당회의에서의 토론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의 기초위에서 매개 당원들이 심각한 료해와 토론준비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것이며 또한 당내민주주의가 적극 발양되며 그 당단체의 실지사업과 상급당에서 제시한 일반적 과업을 더 긴밀히 련결시키는 조건하에서만 강력히 전개될수 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당회의에서 전개되는 토론이 어떻게 함으로써 다수당원들의 열성적 참가와 건설적인 토론으로 보장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당 간부들이 당회의를 지도함에 있어서 항상 깊은 관심을 요하는것으로 되어야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집행함에 있어서 당회의에서 토론이 원만히 전개되지 못하는것은 당원들의 자각적 열성과 정치적 수준의 정도에서 생겨나는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고 그를 타개할데 대한 심각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것을 볼수있다。

당회의의 조직성과 교양성이 비교적 원만하게 보장되는 세포회의의 경험이 보여주는바 그것은 회의에서 진술되는 보고내용과 보고자의 보고방식이 크게 관계되고 있다는것이다。

회순에 오르는 문제가 당원들의 일상적 생활에서 관심두는 긴요한 문제이며 그 보고내용이 당적 방향에서 원만히 분석 종합되었으며 보고방법에 있어서 당원들이 보고내용을 정확히 청취하며 종합할수 있게하는데로 부터 당원들이 자체생활과정에서 요구되는 비판과 호상비판이 전개될수 있는 조건이 보장된다。

당원들이 보고내용을 정확히 청취하며 그 문제에 대한 깊은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보고방식이 청취자의 정신을 집중시키며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흥미있게 청취하도록 하는문제가 반드시 해결하여야할 문제로써 제기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랑독하는 방식을 시정하여 보고자의 충분한 준비로써 자기머리속에 정리되어있는 체계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방법을 취할것이다。

오늘의 당세포사업의 조건하에서는 보고문을 작성하여 랑독한다는것은 다수경우에 보고자가 보고하려는 내용이 문장에 제한되어 충분하게 발표될수도 없으며 또 듣는 상대자에게 원만하게 전달되지도 못한다는 결점을 볼수있는것이다。

이 사업은 세포회의 준비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이 고리는 당원들을 훈련하고 교양하는데 적지않은 역활을 하는것이다。 그것은 보고자가 문장에 구속됨으로 부터 해방되어 자기사업을 머리속에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로 부터 자체를 훈련하여 전체 세포원들을 교양주는 방법으로 된다。

당세포회의의 진행에서 높은 성과를 얻는 문제

는 다만 보고의 충실성에만 국한되지 않는것과 동시에 토론과 문제결정방법이 또한 큰 의의를 가지게된다。 토론과 결정은 당원들의 당적자각성을 높이며 사상정치수준을 제고하는 기회로 되는것이다。

그러나 일부세포들에서는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할때 당내 민주주의 정신을 약화하는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으며 토론에 다수 당원들이 제외되며 세포위원회나 위원장이 작성한 결정서 초안을 아무런 검토도 없이 통과하는 형식을 취하며 결론으로써 결정을 대행하는 일까지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모두 당적 위임을 집행할데 대한 정치적 의의를 당원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줌이 미약하며 또 집행함에 있어서의 당원들의 창의적 열성과 자각적 참가를 약하게하는 조건으로 되며 당원들의 당사업집행에 있어서의 책임감과 적극성을 높여 주지못하는 결과들을 초래한다。

전체 당원들이 참가하여 창발적 토론으로써 결정을 짓지않고 이미 작성되어 제출한 결정서초안을 아무런 비판도없이 만장일치 가결로써 간단한 방식으로 접수하는것은 모두 이것을 증명하여주는 것이다。

당원들이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한다는것은 의지의 일치성과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하는것이며 당원들이 실지적으로 수행할 사업에대한 방침을 결정하는것이다。

여기에는 문제의 다소를 물론하고 가장 엄숙하고 긴장함을 보여주게되며 이 결정에는 당원들은 어떠한 곤난성과 위험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자각적이며 책임적으로 집행하는 강력한 정치성과 조직성이 부여되는것이다。

그렇기때눈에 문제를 결정할때에는 전체 당원들이 제한없는 토론으로 참가할것이며 또 결정 방식은 한조목 한조목씩 똑똑하게 거수가결방식에 의하여 결정할것이다。 이렇게하기 위하여서는 첨부적 조건으로 회의 의장이 문제의 종합과 제기를 간단명료하고 민활하게 처리하는 활동이 또한 긴요하게 요구되는것이다。

그러나 일부당단체에서는 당회의를 한개 기술적 사업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중심을 당회의의 토의된 문제의 실질적 내용과 성과에 두는것이 아니라 회의를 몇번 진행하였는가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하였는가 토론자가 몇명인가 하는등 통계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들은 회의내용、 그들이 채택한 결정의 본질로부터 리탈될것이며 당지도기관은 분석적지도를 할수 없게 될것이다。

당회의에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회의의장의 결론으로써 결정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근본적으로 옳지못하며 당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당적방식으로 되지않는다。 결론은 회의마다 다 있는것은 아니다。 문제의 성질과 토론의 내용에 따라 결론은 있을수도있고 없을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를 물론하고 당적으로 취급되는 문제는 모두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만약에 결론으로써 결정을 대행한다면 결론없는 회의에서는 결정없는 회의로써 끝마칠수있는 당회의로 될것이다。 결론과 결정을 동일시할수 없는것이며 결론은 다만 결정을 짓기위한 준비와 원조를 주는것이며 결정에 참가되는 한부분에 불과한것이다。

당회의에서 채택되는 결정은 반드시 당과 당원들을 위한것이라야 할것이다。 채택되는 결정은 명확하고 당앞에 제기되고 있는 당면과업과 실행할 방법을 결정하는것으로 되어야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당상급의 결정지시를 심오하게 연구하며 당단체가 처하여 있는 환정과 조건에 대한 충분한 료해밑에 당열성자와 당원 및 경험있는 당일군들의 적극적참가하에서 결의하는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만이 구체적이며 정당한 결의를 채택할수 있을것이며 옳은 집행을 기대할수 있게되는것이다。

당세포총회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사업분공을 다하지못하는 경우에는 세포지도부는 반드시 분공하여주는 사업을 정확하게 조직하여야 될것이다。

당결정은 당원들이 처리할 사업방향과 방법을 똑똑히 규정하며 당원들이 능동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주며 당원들에게 분공을 명확하게 실시하여 주어야한다。 사업은 전체당원들에게 분공해야하며 그럼으로써 어떠한 당원을 물론하고 모두 당사업에 참가할수있게 조건을 지어주어야하며 분공은 당원들의 정치리론수준과 사업능력과 조건에 따라 적응한 사업을 주어야한다。 이것은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하는 산 방법이며 당적 기본방법으로 되는것이다。 분공이 된후는 적당한 검열사업이 진행되어야한다。 검열을 통하여 당원들이 당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옳게 진행되는가 혹은 잘못 집행되는가를 살피며 그 집행여하에따라 적당한 방조와 지도를 주는것이다。 오늘 당세포내 핵심분자를 양성하는 사업은 당세포사업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분공사업은 핵심분자양성사업과 긴밀히 련결되었으며 또 기본적 방법으로 되는것이다。 분공은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주며 정치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당원들의 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생활을 인도하는 당 조직원칙으로부터 흘러나오는것

이다。

당세포회의의 조직성과 교양성을 제고하는 문제는 보고와 토론과 결정을 짓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도 크게 관계된다。회의를 질서있게 진행하는데서 얻는 기본적 성과는 엄숙감과 긴장성을 당원들에게 줌으로써 당적결정의 존엄성을 더욱 가강히 감축케하며 당원들의 동작을 집체적으로 훈련주는 점들에 있다。

당원들이 당회의에 참가하는 시간을 엄수케하며 회의도중에 적당한 휴식시간을 줄것이며 당원들의 발언과 동작을 능숙하게 통제하여야 되는것이다。당회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회의의 절차와 토의내용을 충분히 계획준비한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데 있다。당회의의 준비는 회의소집전에 토의될 문제와 시일을 선포하여 당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여 토의할수있는 준비의 가능성을 보장하여주어야한다。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없이 회의를 소집하는것은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방황과 혼란을 일으키게하며 결정을 짓는다 하여도 구체적으로 못지으며 내용이 빈약하게 될것이다。뿐만아니라 준비없는 회의는 공연한 시간만 허비하며 제기된 근본문제를 토의할 대신에 관계없는 또 질서없는 토론으로 되어버리며 따라서 회의에 대한 당원들의 흥미를 잃게한다。회의의 충분한 준비는 당원들이 당문제에 대한 자기의 견해와 의견을 반영시킬수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당회의를 통하여 당원들의 조직규률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투쟁이 강화되는것이다。당결정에 복종하며 어떠한 곤난과 복잡한 경우와 환경속에서도 당결정을 철두철미 관철하는 투쟁심을 배양하는 기본적사업은 당원들의 조직성을 강화하는데 있다。더우기 신입당원은 당세포회의를 통해서 비로소 당에 대한 인식을 교양받게 되며 그가 당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우리당의 조직적 정치적 생활을 알게되며 또 훈련 받게 되는 것이다。당규률을 위반하는 개별적 당원들은 당회의에서 비판받으며 심한 경우에는 당적 책벌을 받게 되는것이다。우리당이 실지사업 활동에 있어서 통일된 강철같은 규률이 없다면 근로인민의 전위대로 될수없다。

전체 당원들이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의 결정인 당날을 준수하고 당생활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는 투쟁성과(成果)도 이로부터 보장될것이다。

이상에서 보는바와같이 당날 회의 진행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며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세포사업을 국가건설사업과 더욱 밀접히 련결진행시키는 사업이다。공장、농촌、학교、병원、기타 국가기관내에서 활동하는 세

포들은 당세포총회에서 취급 토의되는 문제가 항상 어떻게 함으로써 그 사업부문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의 모범성을 제고시키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토의되어야하며 다음으로 준비있는 세포총회를 조직하는 사업이다。당원들이 토론에 적극성을 발휘시킬수있는 조건은 회의조직의 약三일전에 회순에 오르는 문제들을 알려주는데 의존된다。이것은 당원들이 회의에서 토론에 참가하고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수 있는 준비와 시간을 보장하여주는 조건으로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업에서 당회의가 생기 있고 교육적으로 진행되는 당단체들은 활기있을 것이며 당단체내에서 당원들의 조직적 숙련과 재능들이 완전히 발전되며 당사업은 발전된다。당지도기관들은 당건설에 있어서와 민주주의 조국창건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당원들의 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날이 가지는바 정치적 조직적 의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당회의의 역활을 높여 당원들을 훈련 교양시켜야 할것이다。

세포핵심—열성자 양성사업 지도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북조선로동당 강원도당부 위원장 한 일 무

우리당의 력사적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당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은 전당을 강화하는 기본적요소』(김일성)이며 당세포사업을 강화발전 시키는데있어 세포내의 핵심—열성자를 선발 양성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당세포핵심—열성자 양성사업은 오늘의 정치적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각급당 단체와 책임간부들의 높은 관심과 열성적 참가가 요구되는것이다. 즉 공화국정부가 수립된 기초위에서 조국의 완전통일을 쟁취하여 지방주권기관들을 더 일층 민주화하며 강화하는 사업과 방대한 공화국 二개년인민경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당단체와 당원들의 고도로 되는 긴장성과 경각성밑에 민첩한 조직사업과 정치사업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사업경험과 정치적 수준이 낮은 당원들을 옳게 교양훈련하여 그들의 열성을 제고시키는 문제는 당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이다. 또한 세포에서의 중추적 열성당원이며 당결정실행의 직접적 선도자인 당세포핵심—열성자 양성사업과 그 역활을 강화 제고시키는것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실지상 당세포들은 그 구성에 있어서 당원들의 정치적 수준과 지식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능력상 차이도있다. 또한 당년한과 당사업 경험상으로, 가정출신과 사회성분상으로 동일치 않으며 년령상 차이등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더우기 당열성자들의 활동이 가지는바 의의는 높은 것이며 당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그들의 역활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것이다. 매문에 당세포핵심—열성자들은 당발전의 기초가 되는것이다.

이와같이 당사업에 있어서 당세포핵심—열성자가 가지는 정치적 조직적 의의는 실로 거대하기 때문에 일찌기 김일성동지는『매개세포에 二—三명의 세포 열성당원을 두기 위하여 정치적 교양과, 실지사업훈련』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순천군당 제二차대표회)

그 지시에 의거하여 강원도당 단체에서는 당세포에 핵심을 구성하고 그들을 양성하는 사업에 중요한 력량을 돌리었으며 도내 각급당단체에서 많은 열성자들이 양성되고있으며 그들이 국가건설사업에와 당사업에서 노는 역활은 실로 막대하다.

도당위원회는 수차에 걸친 회의에서 이 사업을 지도하였으며 특히 도당위원회 제七차회의와 八차회의는 이 사업개선에 큰 전변을 주었다. 첫째로 핵심구정에 있어서 세포내에서의 국가건설사업과 당사업에 열성적인 당원으로써 발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하게 하였으며 그 열성자 선발은 실지투쟁업적을 표준으로 할것과 하급당부에 일임할것이 아니라 시군당부 책임간부들의 직접 참가하에 선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각시군당부에서는 중앙본부 지시에 의거하여 열성당원들을 위한 강습을 정기적으로 十五—二十일간씩 계속 조직하여 그들의 정치리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과 그 실무적 훈련들을 주게되였다. 특히 종래의 강습회가 협소한 범위에서 진행되어 전체열성당원을 망라하지 못하던 결함을 시정하고 동기간을 리용한 강습회에는 광범한 당원열성자를 망라시켜 그들의 사업상 조건들을 지어주었다. 당세포핵심—열성자들의 수준과 역활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도당부는 그들에게 적당한 당적과업을 위임 분공하도록하며 그 실행을 협조 보장하도록 지도하였다.

많은 시군당부에서는 당사업에 대한 그들의 흥미와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의 중요한 사업토의에는 열성자들의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그들의 열성과 창발적 의견을 적극 사업에 섭취하였으며 이들을 조직적으로 더욱 훈련하고 당적 각성을 제고시키었다. 일상적 당사업과 정치적 캄빠니야에는 이들을 직접 동원 참가 시킴으로써 당간부들은 그들의 사업정형을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결점들을 총화하고 시정하여 줌으로써 실질적 산 훈련과 교양을 받게 하였다.

도당부는 일부 시군당부에서 세포핵심—열성자양성을 차요(次要)한 문제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책임간부들이 직접 참가하지않으며 초급당부 면당부에만 일임하거나 자연 생장성에 일임하는 경향들과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조직적으로 당세포핵심—열성자 양성사업을 진행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와같

이 도당단체가 당세포핵심—열성자 교양훈련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하였던 결과로 전반적 세포에 핵심이 양성되었으며 이들이 당원들과 직장 농촌의 군중들을 추동시키는데 있어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었다。一九四八년 八월 二十五일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에서와 금번 실시된 도、시、군、구역 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사업에 있어서 세포핵심—열성자당원들이 선거위원및 선전원등 제반사업에서 모범적이며 선도적역활을 논것을 높이 평가하여야하며 선거의 승리적성과를 쟁취하는데 업적이 많았던것으로 인정하고 있다。특히 금번 선거준비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 양구군당산하 서면내 당열성자들의 조직적이며 선봉적인 역활은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수있는 조건의 하나로 되었다。문천군 천내면당 산하 각세포들에서의 당원들의 핵심적역활과 당열성자들의 모범은 모든 곤난을 극복하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철저한 군중적 해석선전사업을 전개한결과 선거자들이 높은 정치적열성으로써 투표에 참가하였다。

이와같이 실지투쟁에서 당세포핵심—열성자들의 모범은 도내에 허다히 존재하고있다。특히 지적할것은 一九四八년 인민경제계획 실행투쟁과 공화국 二개년 인민경제 一·四분기 계획실행 투쟁에서 나타난 역활들이다。그 대표적인 실례로써는 이미 도당위원회 제八차회의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문천탄광에서는 김원철동무를 비롯하여 핵심당원 최영남 김봉갑 김득필 동무들의 열성적 노력과 창의 고안으로써 채굴 방법을 개선하는데 성공하여 종래방식을 버리고 四각동발 채굴식을 적용하였으며 운반행정을 개선하고 기계화 함으로써 생산을 一八○%까지 제고시키고 로력을 절약하고 원가를 저하시켜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다。이 투쟁에 있어서 김원철동무를 선두로한 열성당원들의 인내성과 끊임없는 노력과 기술습득을 위한 연구사업 및 선봉적역활과 불요 불굴의 노력은 다른 당원들과 비당원군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시일을 단축하여 당결정을 실행하였고 승리를 쟁취하였던것이다。

이와같이 당세포핵심—열성당원 양성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그들의 실지투쟁업적은 거대하며 우리당 사업발전에 기본으로 되었으며 도내 정치 경제 문화 각부문에서 인민경제의 승리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주동력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내 조직원칙을 공고발전시키며 당내 사상적 유일성을 보장하는 투쟁에서 중추적 역활을 놓고 있는것이다。

× × ×

부분적 당단체에서, 당세포 핵심—열성자를 양성하는 사업에서 시급히 시정하여야할 결점들이 아

직 존재하고있다。

그 결점은 핵심을 선발구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구구하여 옳지않게 되어있는 실례들을 도내 일반적으로 볼수있다。이미 지적한 바와같이 열성자라면 국가건설사업과 당사업에 가장 열성적이며 조국에대한 충직성과 당에대한 헌신성이 강하고 발전성있는 당원으로써 그들의 실지투쟁업적을 기준으로써 선발구성할 대신에 부분적 시군당부에서는 면당부나 초급당부 심지어는 세포에서 제출되는 명부에 의거해서 기계적으로 선정하는 사실들이 있다。한가지 실례로써 일부 시군 당부 산하에서는 열성자선정규정이 똑똑치 못하였고 시군당부에서 심중한 고려를 돌리지못하였기 때문에 하부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있다。그 결과 일부 생산 직장 당단체 분세포들에서는 기계적으로 직장위원장、과위원장、분조장、분세포위원장등으로 핵심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성적이며 우수한 당원들이 제거되어있는 엄중한 결점들이 최근까지 시정되지않고 있었던것이다。

부분적 당단체들에서는 세포위원으로써만 구성된 사실도 있으며 이와 반대로 세포간부들은 전부 제거되고 수준이 낮은 자로써 또는 학습할 능력도 미약한 동무들로 군당의 강습에 보내기위한 당원으로써 핵심—열성자를 구성한 사실까지 있었던것이다。또한 어떤 군당부에서는 四백여개 세포가 있는데 열성자로서는 불가 三백여명으로 극히 협소한 부면에서 취급하는 사실들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핵심당원을 비밀리에 취급하고 공개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특수한 임무를 부여하였던 사실까지 있는것이다。부분적 농촌세포들에서는 세포와 군당부사이의 련락원으로 인정하고있는 사실과 인민반장들로만 구성한 실례까지 있었던것이다。이와같은 사실들은 시군당부 지도간부들이 직접 이 사업에 참가하지않고 하부일군들에게만 일임하고 사업을 연구하지 않는데서 오는 결점이며 양성사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할 조건들을 원만히 조성하지못한데 있는 것이다。

다음결점으로는 열성자를 선발하여놓고 정치적 교양과 조직적훈련을 주지않고 있는것이다。또한 정치적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은 다만 집체적으로 강습을 조직하는데서만 달성하려고하며 그들을 개별적으로 교양하며 학습조건을 지어주며 원조하여주는 사업이 미약하다。또한 그들을 실지투쟁속에서 얻은 경험들을 널리 교환할수있는 조직들이 미약하다。이와같은 현상은 당간부들이 일상적으로 하부에 침투하여 그들과 같이 호흡하며 그들의 요구를 청취하며 애로를 해결해주며 활동할 구체적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산지도를 하는것이 아니라

형식적이며 관료주의적인 지도사업을 계속하는데 있는것이다。 일부 제조소 초급당부에서는 분세포조직이 당원들의 조직생활과 생산에 합리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까지 이에대한 시정대책이 없었으며 초급당부는 전연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분세포조직을 세분화한결과 十四개분세포가 새로조직되고 많은세포에 새간부가 등용되었다。 이들은 당적각성과 높은 열성으로 생산에 모범적활동을 다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리론수준이 낮고 군중을 조직지도하는 능력이 아직 낮으며 학습에 많은 곤난을 느끼고 있기때문에 세포위원장으로서의 책임진 일을 잘하고는 싶으나 실지 사업방식과 지도방법들을 알지못해서 많은 곤난을 느끼게 되었던것이며 이들에 대하여서는 시당부 책임간부들의 구체적지도와 각별한 방조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이들을 다른 세포위원장과 동일한 수준에서 취급하며 하등 개별적인 지도와 방조사업이 없는 형편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당세포 핵심—열성당원들의 역활을 저하시키며 그들의 사업에 대한 열성을 저하시킬수있는 엄중한 결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다음결점은 상급당과 세포들에서 열성자들의 역활과 그 모범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적당한 사업을 분공위임하며 제때에 검열하고 시정하여 사업상 실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 부족하다。 어떤 정치적 캄빠니야뿐만 아니라 일상적 당사업과 건국사업에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인입하며 동시에 그들을 실지투쟁을 통해서 교양훈련하는 사업이 미약하다。 수시로 당열성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제기된 과업들을 조직적으로 토의하여 그들의 열성과 책임감을 제고하는 사업과 당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게하는 사업이 미약한 형편이다。 어떤 공장당부는 一년이 넘도록 열성자들의 회합을 소집한 일이 없으며 군당부에서는 직접 군당위원장 참가하에 조직지도하는 사업이 아주 미약한 형편에 처하여있다。 이것은 시군당부에서 이 사업을 하급당부와 하부일군에게만 일임하고 직접 조직지도하지 않는데 있다。 때문에 양성사업이 진행되다하여도 미약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며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에서 이 사업에대한 중요한 책임을 시군당부 위원장들에게 직접 부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대한 동원이 부족한것을 볼수있다。

다음으로 당세포핵심—열성자당원들의 선도적 역활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그들과 군중과의 튼튼한 련결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열성분자」들이 군중과 리탈되는 사실을 엄격히 지적해야 할것이다。 각급당 지도기관과 지도간부들은 이들이 군중성을 가지고 인내성있는 해석과 설복으로써 군중이 따라오도록 하는것이 미약하다。

아직 전반적으로 당세포 핵심—열성자당원양성과 그 역활을 높이기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로 도당부를 비롯한 각급당부가 당세포핵심양성사업이 당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정치적 의의를 심각히 파악치 못하고 깊은 연구와 조직적 대책이 미약한데 있으며、

둘째로 시군당부책임간부들이 이 사업에대한 책임감을 망각하고 형식적으로 진행하는데 있는것이다。

셋째로 아직 강력한 당세포조직생활과 질적으로 높은 당정치교양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데 있다。 즉 그들이 당세포의 공간(槓杆)이며 중추적 역활을 놀수 있도록 사상정치적으로 준비되고 검열되도록 또한 사업실천에 있어서 강한 조직력과 실천의 골간으로 되도록 교양훈련시키지 못한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당부를 비롯한 각급당지도간부들은 당세포핵심—열성자양성이 당단체들과 당사업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가진바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가장 우수한 당열성자들로 세포의 핵심을 구성하고 시군당부위원장들의 직접 지도하에서 그들의 사상정치적 리론수준을 향상시키며 당사업에 대한 경험과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단기강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며 실지 당사업을 통하여 배울수 있는 온갖 조건을 지어줄것이다」(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결정)

때문에 핵심구성에 관심을 돌려 종래의 구성요소를 재검토할것이며 간부들이 직접 하부에 침투하여 실지적 사업을 통하여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검열된 열성적 중추적 당원들을、선발할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같이 기계적으로 세포위원들로 구성하거나 직장위원장 과위원장 분조장、농촌에서 분조장 반장들로 구성하는것을 시급히 시정하여 재구성할 것이다。 물론 세포위원들은 세포지도기관으로써 핵심당원이 될수있으며 열성자들이 될수있다 그러나 세포위원들과 세포위원장 및 분조장외에 실질적 열성당원이 더 있다고 볼수있으며 또 있는 것이다。

이미 도당위원회제八차회의에서 충분하게 토의된바에 의하여 생산에서 핵심적역활을 놀며 당사업에서 중추적역활을 하는자와 또 앞으로 전망있는 성분좋은 열성자들을 책임간부들의 직접선발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하고있다。 즉 도당부는 부분적으로 핵심구성을 협소하게 취급하는 경향들을 퇴치하도록 하고있으며 지금 도내 각시군당부에서는 핵심당원들의 선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다음 열성당원들의 사상정치적 리론수준을 향상시키며 당사업에대한 경험과 방법을 가르쳐 주기위하여 단기강습회를 정기적으로 조직하며 광범한 경험들을 교환보급할 조건들을 지어주며 그들의 애로를 제때에, 해결해 줌으로써 창발력과 열성을 발휘하여 당적영향력을 높이도록 하고있다。이 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강습내용을 풍부하게 조직집행하도록 하고있으며 열성당원들을 다수망라하고있다。도당부에서는 도당위원회 제八차회의결정으로써 一개월에 一차씩 三일간학습을 시군당부에서 조직하고 시군당부책임간부들이 직접 교양을 담당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질적으로 더욱 충실하게 진행하게되었다。시군당부에서는 이 결정을 접수하고 집행하고 있는바 좋은 성과를 보고있다。

이외에 그들의 역활을 더욱 제고하기위하여 각 시군당부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세포위원장 및 핵심당원들을 소집하여 월간에 진행한 사업들을 총화하며 새달의 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에 그들을 참가시키고 있으며 사업상 경험과 창발적 의견을 적극 발양시키고있다。앞으로 이 세포핵심—열성자당원 강습과 훈련은 시군당부 어느 한 부서사업으로 진행할것이 아니라 당부전체사업으로 중요하게 진행할것과 그 내용을 풍부히 하는데 노력할것이며 열성당원을 빠짐없이 망라시키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하여 가장 규률성있고 원칙적이며 적에대하여 비타협적인 정신과 성격으로 교육훈련하도록 하여야하며 사업에대한 고상한 책임감과 자기의 사명을 철투철미하게 수행하는 강력한 당성으로 무장하도록 하여야할것이다。이러기 위하여 당지도기관 및 시군당책임간부들이 직접 이들을 장악지도하되 당단체로 하여금 적합한 사업들을 분공위임하여 실천하도록하며 이를 제때에 검열하여 결점들을 시정해 주어야하며 적극 당사업에 그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수시로 열성당원들의 회의 혹은 담화회를 조직하며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당사업발전에 남김없이 바칠수있도록 할것이다。그들이 실지생산에서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하며 무엇보다도 군중과의 튼튼한 련계를 맺으며 그의 위신있는 선도자가 되도록 하여야할것이다。당단체와 지도간부들은 그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를 가강히 할것이며 우점을 적극 발양하고 약점들을 시급히 시정하도록 할것이다。

、일부 간부들이 핵심양성사업은 정치강습과 집체적 교양으로써만 원만히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상들을 시정하여야 할것이다。어떤 로동자성분 당원이 그 열성과 당성은 강하나 정치리론수준이 낮으며 군중을 령도하는 방법이 미약할때에는 그에 대하여 정치학습을 보장하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방조해주어야 할것이며 군중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조직하는 원칙과 방법들을 그에게 특별히 교육하며 실지투쟁을 통하여서 훈련주어야 할것이다。

또한 일부당원들 중에는 정치수준이나 사업상능력은 좋으나 자유주의적、경향과 군중성이 미약한자에 대하여서는 당은 이에대한 특별한 지도로써 자유주의적 경향을 근절하여 강철같은 규률적 정신으로 교양훈련하며 군중속에 침투하며 군중과같이 호흡하며 군중을 가르치며 군중한테서 배우는 작풍을 그에게 깊이 침투시켜야 할것이다。이와같이 그들에대한 정치교양과 조직적 훈련은 일상적으로 집체적 혹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하며 실지투쟁에서 단련하여야 할것이다。현재 도내 시 군당단체 책임간부들이 이 사업에대한 정치적 조직적 의의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책임적으로 지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당세포핵심—열성자들을 실제 생산에나 당사업에 추동시키고 수준이 낮은 당원들과 군중들로 하여금 그 모범을 따라서 당의 구호밑에 당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기위하여 그들의 선도적 역활을 높이 평가 발양하고 그 경험을 보편화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민활하게 조직할줄 알아야 할것이다。

최근의 검열에 의하면 어떤 제조소내 당사업과 생산이 락후한데 대하여 구체적이며 분석적지도를 주지못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락후했다고 평가하였으며 그 직장내의 우수한 부문과 분세포들의 경험을 널리 살리는 사업이 전연 진행되지 못하였다。부분적 세포는 어느 다른 우수한 생산직장에 비하여 떨어지지않게 우수하게 당의 조직적 활동과 당세포핵심—열성자들의 활약이 있으며 그 생산실적도 二三二%나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급당부 간부들과 시당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이와같은 우수한 투쟁경험을 살리어 전체 제조소내에 보편화하여 하급당단체사업과 생산을 강화발전시키는데 리용할것을 망각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경향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면서 열성당원들을 옳게 추동할줄알며 당원 및 비당원군중들이 조직적으로 추동되도록 우수한 경험과 모범이 널리 보편화되도록 당지도기관들에서 옳은 지도가 있어야하며 온갖 활동할 조건들을 조직적으로 보장하여 주어야 할것이다。특히 도당부는 이와같은 사업에 당지도간부들이 관심을 돌릴것을 강조하고 있는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업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특히 하급당단체에대한 형식적이며 관료주의적인 지도방법을 퇴치하고 구체적이며 산지도를 꾸준히 성실하게 주어야할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새포핵심양성을 면당이나 초급당。 심한 경우에는 세포에다 방임하여두는 경향을 철저히 퇴치하고 시군당부위원장들의 책임성과 실천성을 높이어야 하겠다。 일부 당세포 분세포가 생산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농촌에서는 부락별로 조직안되고 세포의 결정을 분공실천하는 분조의 조직과 역활이 미약한데 대하여 이를 심중한 분석과 검토밑에 급속한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할것이며 당의 조직적 역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열성당원 양성사업을 효과있게 추진시키도록할것이다。

× × ×

이미 김일성동지가 가르친 바와같이 당세포내에 핵심—열성자를 양성하는 사업은 오늘 우리당 발전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의깊은 문제이다。우리당의 력사적 제반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당의 핵심적역활을 더욱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당의 더욱 위신있는 역활은 당이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더욱 장성강화됨을 어느때보다도 엄중히 요구하고있다。 도당단체는 어느때 보다도 높은 관심으로써 당과 국가와 인민앞에 헌신하며 충실한 선봉적 역활을 놀수있는 실질적 사업의 선도자가 될수있겠금 하기위하여 당 기본조직인 세포내 핵심—열성자 양성사업을 더 일층 강화하며 그들의 역활을 최고도로 제고하여 세포사업을 보다더 강화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결정의 높은 성과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참 고 자 료

공산주의와 조국

빼·예·위신스끼

부르죠아지의 변호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민족적 긍지에 대한 감정이 없으며 또 민족적 허무주의라고 우둔한『고발(告發)』을 하는것처럼 그들의 지적(智的) 빈곤을 특징짓는것은 없을 것이다.

허위적이며 위선적인 부르죠아지의 선전은 벌써 백년동안이나 성가시게 또한 실증이 나게 이러한 중상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또 우익사회주의자의 진영으로부터 나온 비렬한 맑쓰주의 위조자들은 맑쓰와 엥겔쓰의 말을 인용하여 이 허위적인 중상을 보강(補强)하려고 하고있다.

백년전에 맑쓰와 엥겔쓰는 공산당선언에 있어서『공산주의자들은 마치 조국과 민족성을 부인하여버릴것을 희망하고 있다는듯이 비난한다. 로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않는것을 그들로 부터 제거하여 버릴수는 없는것이다』(맑쓰—엥겔쓰『공산당선언』一九四八년 국립정치출판사판 七十五폐지 방점—필자)라고 썼다.

『로동자들에게는 조국이없다』는데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말은 부르죠아사회에 있어서의 로동계급의 립장을 반영하고 있는것이며 그들이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인 통일을 호소한 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제국주의전쟁에 있어서 부르죠아조국을 옹호할것이라는 부르죠아민족주의와 사회—쇼비니스트들의 호소에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이 진리를 리용하여 프로레타리아트와 조국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있어서 일련의 새로운 구호를 제시하였다. 이 구호들에는 맑쓰—레닌주의의 과학적—혁명적 특성이 또 그의 창조적 특성이 표현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 구호들은 프로레타리아트와 조국과의 정확한 관계를 표명하였고 또 공산주의를 위한 그들의 성공적 투쟁을 촉진시켰다.

一、부르죠아조국의 부인으로부터 그의 파괴에

현대민족과 민족국가의 형성은 봉건제도의 붕괴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 과정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과 부합한것이였던 부르죠아민족—민주적 진보적운동의 시기를 겪음으로써 완성되었다.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이 투쟁에 있어서 현대민족은 구성되었으며 국토—지방의 령토적 병합이 발생하였으며 민족경제의 토대가 구축되었고 민족문화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부르죠아지는 새로운 조국을 위한 대중의 투쟁을 령도하면서 이 조국의 계급적 성격을 그의 민족적 형태밑에 감추려고 하였다. 부르죠아지는 이 새로운 조국에 있어서 모든 시민에 대한 균일하며 평등한 경제적 및 정치적 권리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모든 권리와 행복은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의 수중에 들어 있었다. 이리하여 十八세기말의 불란서 혁명에 대하여 엥겔쓰가 말한 바와같이 대중들은 환상을 위하여, 가상의 조국을 위하여 싸웠다는것이 판명되었다.

인민들은, 대중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귀족들로부터 조국을『전취』하여 낸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급적 원쑤, 자기의 새로운 압박자—자본가들을 위하여 전취하여 내었다는것이 판명되었다. 봉건제도로 부터 인민을 해방하는 형태이었던 민족부르죠아조국은 동시에 또 근로자들에 대한 압박의 새로운 형태로 되어버렸다.

『인민들을 봉건제도와 전제주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킨 부르죠아혁명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반을, 자본주의와 부르죠아민주주의의 기반을 씌웠다』(이·쓰딸린, 에스·끼—로브, 아·스다노브『근세사교과서 개요에 대한 의견』)

대중에게 약속한 민주주의적 자유는 매매의 자유와 고용로동력의 자유로 되어버렸다.『인간개성의 평등이라는 명목하에 부르죠아민주주의는 대체로 보아 유산자와 프로레타리아, 착취자와 피착취자와의 평등을 선포하고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피압박계급에 대하여 최대의 기만을 하고있다』(『레닌전집』二十五권二八五—二八六폐지) 대중에게 약속한 정치적 권리는 자격사정(資格査定) 기타의 온갖 방법으로써 극도로 축소된 형식적인 지상(紙上) 권리로 되어 버렸다. 대중에게 약속한『장구한 평화』는 침략적 강탈적 부정의(不正義) 전쟁의 새로운 계속으로 뒤바뀌었다.

부르죠아조국에서 선포된 권리와 자유는 피압박자들에게 부르죠아지의 군림(君臨) 및 근로자들에 대한 압박을 신성화하고 정당화하는 허위적이며 위선적인 것으로 되어버렸다. 『민족통일』을 구현하여야 할것이였던 조국자체도 계급적 리해의 근본적 모순을 은폐하는 형태로 되어 버렸을 따름인 것이다.

가상(假想)적인 민족적리해의 공동성에대한 허위적 연사를 반대하여 맑쓰와 엥겔쓰는 부르죠아조국 내부에 있어서 융화할수 없는 계급적 리해의 모순에 대한 프로레타리아적 진리를 내세웠다.

부르죠아지들이 『범죄적인 목적을 진술하고 민족적 편견을 날뛰우며 강탈적인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인민들의 재산을 랑비하고 있을』(맑쓰 「제一인타나쇼날문헌』 十五페지 一九三九년판) 때에 『조국을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죠아지와 협력하여야 할것이라고, 다시 말하면서 부르죠아지와의 『민족적인 통일』을 위하여 『조국옹호』를 위하여 자기의 계급적인 투쟁을 포기하여야 할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는자들의 면상에 내던진 조국에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말은 바로 이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것이다.

『로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공산당선언』에서 규정한 의미는 이 과학적 공산주의의 문헌의 기여(其余)의 기본명제들과 련관시키지 않고서는 또 무엇보다도 「만국의 로동자는 단결하라!」라는 위대한 혁명적—국제주의적 구호와 련관시키지 않고서는 심각히 리해할수 없는것이다.

과학적 공산주의의 창건자들은 프로레타리아트들로 하여금 부르죠아조국에 있어서의 그들의 립장을 명확하게 관찰하겠금 도와주었으며, 통일된 조국은 없다는것과 전세계의 로동자들은 서로 단결하여야 한다는것과 로동계급의 리해에 대할 진정한 리해는 부르죠아지의 타도와 가상적인 부르죠아 조국을 실지의 프로레타리아조국으로, 부르죠아지로부터 해방되고 자본주의적 및 기타의 온갖 착취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근로자들의 조국으로 전변(轉變)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리해하겠금 도와주었다.

「로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공산당선언」의 말에는 부르죠아조국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태도가 표명되었다. 이것은 조국에 대한 태도 문제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를 분계(分界)하는 구호였으며 부르죠아조국을 부인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구호이었다.

맑쓰와 엥겔쓰의 성명은 전세계에 전파되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관용어(慣用語)」로 되었다. 제二인타나쇼날의 기회주의자들도 사회주의의 기본적 진리의, 하나인 이 말의 혁명적 의의를 없

새버리려고 대단한 고생을 하였었다.

무엇보다도 기회주의자들은 「공산당선언」에 련결된 글중에서 이 말만을 잡아 들었다. 그리고 맑쓰와 엥겔쓰가 바로 이 말의 뒤를 이어 하는말은 늘상 고의적으로 빼어버렸다. 프로레타리아트에 외한 정권 쟁취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르죠아지를 폭력적 혁명적으로 타도할것이라는 「공산당선언」의 중심사상을 기회주의자들은 철면피하게 묵살하는 것이었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은 계급투쟁과 부르죠아체도의 폭력적 전복에 대한 임무를 부인하고 마치 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죠아지와 공통한 조국을 가지고있는것 처럼 주장하면서 계급적 타협과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간의 리해의 조화를 설교하였다. 제二인타나쇼날의 사회주의자들은 조국운운의 말뒤에 숨어 실지에 있어서는 인민들의 민족적 리익에 대한 배반을 감행하였으며 그것을 국내 국외의 자본가들에게 예속시킬것을 조성(助成)하였다. 그들은 온갖 수단으로써 로동계급의 계급적 의식의 향상을 조해하였으며 또 이 목적을 위하여 로동계급을 민족적 배타주의의 쇠사슬로 얽매려고 애썼다. 조국문제에 있어서 제二인타나쇼날의 사회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기여(其余)의 문제에 있어서와 같이 맑쓰주의에 대한 비렬한 배반이며 부르죠아 쇼비니즘 및 민족주의의 립장에 넘어간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조국에 대한 「공산당선언」의 명제에 대한 의곡(歪曲)이 특히 강하게 시행된것은 一九一四년—一九一八년의 제一차세계대전 시기였다.

이 불공정하며, 침략적이며 강탈적인 전쟁에 있어서 쌍방의 제국주의적 기회주의자들은 부르죠아조국 「옹호」의 구호를 추켜들었다. 자국의 민족부르죠아지의 리익옹호, 부르죠아지와의 협조주의 및 「계급적 화평」의 전도(傳道)가 이 구호의 계급적 의의였다.

「조국옹호, 적의 침입에 대한 반항, 방어적 전쟁 운운하는 쌍방의 말들은 인민을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로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공산당선언」의 말은 언제 보다도 현재에 있어서 더욱 정당한 것이다. 다만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투쟁만이 그들의 투쟁을 보위하며 피압박계급에게 더 좋은 미래의 길을 열어줄수있는 것이다」라고 레닌은 一九一四년에 썼다.
(「레닌전집」 十八권 一二五페지)

「좌경」 사회주의자들도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산티카리스트, 반혁명 뜨로쯔끼스트들도 역시 벌써 그때부터 조국문제에 있어서 혁명적 맑쓰주의를 반대하여 진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맑쓰주의의 적들은 마치 맑쓰와 엥겔쓰는

조국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며 거부하는 립장을 취할것처럼, 마치 그들은(맑쓰—엥겔쓰)로동계급이 자기조국의 운명에 대한 무관심성을 선전한듯이 주장한 것이었다。

새로운 시대의 력사적 조건하에서 사회—쇼비니스트, 가짜 좌익적 민족『허무(虛無)』주의자 및 부르죠아세계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레닌과 쓰딸린은 조국과 조국에대한 로동계급의 태도에 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견해를 견지하였으며 또 발전시켰다。레닌은 부르죠아조국에 대한 태도 즉 부르죠아제도와 정부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제를 프로레타리아트의 자기 모국에 대한 태도, 다시 말하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인민들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제와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는것을 해명하였다。

볼쉐위끼들은 대중들에게 진정한 자기 모국에대한 사랑은 전제주의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자기의—프로레타리아트의 조국창건을 위한 투쟁에 표현될수있으며 또 표현되어야 한다는것을 해명하였다。

레닌은 동시대(同時代)의 매개 민족도 두개의 민족으로되며 매개의 민족문화도 두개의 문화로된다는데 대하여 말하였다。로씨야는 비단 지주와 자본가들의 나라, 아라끄체예브, 벤켄돌프, 쓰똘리삔 및 리스케비취의 나라이었을 뿐만아니라 또한 다따루 및 독일인과 나포레온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위대한 력사적 공적을 남기었으며 문화 과학 문학 및 예술부면에서 위대한 대가들과 또 농민 로동자들의 혁명적 해방투쟁의 저명한 수령들을 배출한 위대한 로씨야인민의 나라이기도 한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민대중들은 그의 인민과 민족문화를 가지고있는 자기의 조국, 자기의 향토,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있는 것이며 또 그들은 그것을 외국 침략자로부터 수호하며 점차로 그들의 리해와 압박자 및 착취자들의 리해와의 근본적인 상극(相剋), 근본적인 불상용성을 인식하기 까지에 이르는것이다。

따라서 조국이란 관념에는 다만 사회—정치제도 뿐만 아니라 인민, 민족, 나라, 민족문화도 포함되고있다。이로부터 부르죠아조국 즉 지주와 자본가들이 정치적 권력을 잡고있는 조국에 있어서도 근로대중들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인민, 자기의 민족문화를 사랑하는 것이다。프로레타리아혁명가들과 로동운동의 참가자들은 항상 자기나라의 자연과 자기인민의 언어 및 문화를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항상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존중히 하였었으며 자기인민의 진보적 력사적 업적에 대한 모범과 전형(典型)을 자랑으로 삼았던것이다。모국에 대한 사랑은 의식있는 로동자들로 하여금 그 모국을 지

주와 자본가들의 지배로부터 속히 해방시키려고, 그를 자유롭고 풍부하고 위력있는 것으로 만들데 대한 충동을 준것이었다。 프로레타리아트적 혁명적 애국주의는 의식적인 프로레타리아트들이 전력을 다하여 자기나라의 근로대중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분쇄하고 자기 모국의 모든 권력과 모든 재부가 인민에게 속하게될 근로자들의 조국을 창건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에 대하여 진격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데에 표현되었던 것이다。

피압박자와 압박자간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간의 계급적 리해의 직접적인 충돌은 민족적 조국의 테두리안에서 이 조국에 있어서의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것이다。맑쓰주의적 로동계급당은 대중을 교육하며 조직하여 그들을 공공연한 계급투쟁에로 인도한다。따라서 로동계급은 절대로 조국에 무엇이 일어나든 또 조국이 어떻게 되든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조국문제는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 시대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게되였다。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의 첨예화와 이에 따르는 제국주의적 반동과 민족적 압박을 반대하는 대중의 투쟁, 예속국가 및 식민지국가에 있어서의 민족해방운동의 앙양, —모든 이러한것은 조국문제, 조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체제에 대한 문제, 조국의 독립에 대한 문제등으로 하여금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프로레타리아트들이 조국의 운명에 대한 관심성은 벌써 一九〇七년에 쓰딸린동지가 정확히 밝혔다。『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이 모든것 외에도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각성과 결속과 또는 자기자체의 사업을 지도할줄 아는등의 조건들이 요구되는 때문이다。이 모든 조건들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우선 소위 정치적 자유 즉 언론 출판 파업 동맹조직의 자유등 계급투쟁의 자유가 필요하게된다。정치적 자유는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보장되고 있지않다。그렇기때문에 프로레타리아에게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그가 투쟁을 진행하게 되겠는가 하는것이 도외시할 문제가 아니다。다시말하면 농노—전제제도(로씨야), 립헌군주제도(독일), 대규모적부르죠아공화제도(불란서), 혹은 민주주의적—공화국제도(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가 요구하는 제도)등의 조건들중에서 어느조건하에서 수행되겠는가 하는것이 도외시할 문제가 아니다。정치적 자유가 자본주의 하에서도 대체로 보장될수있는 한(限) 그것이 민주주의적 공화국에서는 더 훌륭하게 더 완전히 보장된다。그렇기때문에 프로레타리아적 사회주의의 전체 지지자들은 사회주의로 가는 우수한『교량(橋梁)』으로 민주주의공화국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쓰딸린전집』一권三四三폐지)

브·이·레닌도 역시 『그가 어떠한 조국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것은 군주제의 독일에서 살고있는가 또는 공화제의 불란서에서 살고있는가 또는 전제제도의 토이기에서 살고있는가 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 무관심한 일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지적하였다。『조국 즉 소여(所與)의 정치적 문화적 및 사회적 환경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요소로 되는것이다。……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투쟁의 정치적 문화적 및 사회적 조건에 대하여 무관심한 아무 태도 좋은 태도를 취할수 없는것이다。따라서 그는 그의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서도 무관심할수 없는것이다』(『레닌전집』十五권 一七一—一七二폐지)

이렇게 계급투쟁과 모든 사회적 현상의 계급적 내용에 대한 맑쓰주의의 기본명제를 발전시키면서 레닌과 쓰딸린은 맑쓰—엥겔쓰의 시대와 판이한 시대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조국에 대한 태도를 규정하였으며 또 조국에 대한 모든 문제를 사회주의를 위한 실지적 투쟁의 임무들과 직접적으로 련계시켰다。

레닌은 로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는데 대한 맑쓰 성명의 혁명적 내용을 천명하고 또 동시에 생활자체와 계급투쟁의 발전은 조국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간의 한계 및 부르죠아조국의 부인으로부터 그를(부르죠아조국) 파괴하고 프로레타리아트조국을 창건할 혁명적 과업완수에 넘어갈것을 요구한다는것을 지적하였다。『다만 부르죠아조국의 파괴만이 만국의 로동자들에게 「토지와의 련계」를 줄수있으며 모국어의 자유와 빵덩어리와 문화의 복지(福祉)를 줄수있는 것이다』(『레닌전집』十八권九五폐지)라고 레닌은 썼다。

맑쓰는 프로레타리아트를 부르죠아이데올로기의 영향하로부터 해방시킬데 대한 문제를、로동자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하에 부르죠아지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결정적으로 탈리시킬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것이다。

一、프로레타리아 조국、사회주의 조국의 창건

조국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로씨야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의 결과로 세계최초의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조국—쏘베트사회주의 공화국동맹이 생겼을 때에 가장 근본적으로 또 결정적으로 변경되었다。쏘베트동맹은 특수한 형태의 조국이다。즉 그것은 비단 우리들—쏘베트인민의 사회주의 조국일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주의의 모국으로서 만국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조국이기도 한것이다。

국내의 반혁명 및 국제부르죠아지들은 근로자들의 조국 발생에 대하여 미친듯이 반항하였다。사회주의조국 방위를 호소하면서 레닌은『一九一七년十一월七일(十월二十五일)부터 우리들은 방위자이다。우리들은 조국방위를 위한다。그러나 우리들이 진행하는 조국전쟁은 사회주의의 조국을위한 전쟁이다。조국으로서의 사회주의를위한、전세계사회주의 군대의 부대로서의 쏘베트공화국을 위한 전쟁인것이다』라고 썼다。(『레닌전집』二十二권 三七八폐지)

『과거에있어 우리들에게는 조국이 없었으며 또 있을 수없었다。그러나 우리들이 자본주의를 폐기(廢棄)하고 권력이 우리들 로동자들에게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들에게는 조국이 있으며 또 우리들은 그의 독립을 고수할것이다』(쓰딸린『레닌주의의제문제』三二八폐지)라고 쓰딸린동지는 말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의 포화(砲火)와 동란(動亂)속에서 최고형태의 새로운 애국주의인 쏘베트 애국주의도 산생하였다。이 애국주의는 처음부터 인민들의 행복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의식적인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감정과 모국에대한 사랑을 주입하고 혁명투사들에게 프로레타리아 계급투쟁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과업을 옳게 일치시킬것을 가르친 불쉐위끼당의 모든 정책과 사상에 의하여 준비되었다。

로동계급이 승리하고、정권이 그들의 수중에 넘어간후、—근로자들의 조국으로된후、지금에는 자기들 조국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태도도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이 조국의 탄생과함께 로동계급과 근로대중들의 앞에는 종전과 다른 창조적인 과업들이—새로운 사회제도를 건설하며 모든 사회생활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과업、자본주의 포위의 랭혹한 공격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보위하는 과업들이 나서고있다。인민대중들의 새로운 역활—사회주의생활의 의식적인 창조자들의 역활—에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대응(對應)하는것이다。이것은 자기조국에 있어서 모든 권력과 재부가 그에게 속하고있는 인민의 애국주의인 것이며、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창조하고 전체인류의 전위로 되고있는 인민의 애국주의인 것이다。

쏘베트 인민의 三十년간의 모든 행정은、그들의 로동과 투쟁의 행정은 동시에 쏘베트애국주의의 발전과 개화의 행정이기도하다。

사회주의 승리의 기초위에 쏘련에서의 경제、계급구성 및 민족적 호상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심

각한 변•혁의 결과로써 쏘베트애국주의는 쏘베트인민들 전•체가 소유하는바로 되었으며 쏘베트사회의 모든 사회적 집단들이 쏘베트국가의 모든인민들이 소유하는바로 되었다。그것은 쏘베트사회를 전진시키는 『템포』를 촉진시키고있는 사회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화하였다。

『새로운 정신세계와 쏘베트 애국자로서의 사람들의 사상적 성장은 우리 혁명이 전취한 가장 중요한 달성이라는것을 시인하여야 할것이다。이것은 도시나 농촌에 있는 또는 육체 로동자나 정신 로동자나 할것 없이 모든 쏘베트인민들에게 관련되는것이다。전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十월혁명의 참말로 가장 위대한 성과는 이 점에 있는것이다』라고 몰로또브동지는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三十주년 보고에서 말하였다。

쏘베트사회가 공산주의에로 전진함에 있어서의 성공은 쏘베트인민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의 성장에, 또 쏘베트인민들의 력사적 사명과 자기국가 및 전세계 근로자들에대한 그들의 의무를 인식하는데에 의존되는바 대단히 크다。

금일에 있어서 쏘베트사람들의 최고로되는 애국적 의무는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있다。그리고 공산주의를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쏘베트사회주의 조국 강화와 번영을 위한 투쟁에 표현되는것이다。현재 전후 쓰딸린적 五개년계획의 건설에서 쏘베트 나라의 들(野)에서 또 학자들의 연구실에서 전개되고 확대되고 있는 전인민적인 사회주의 경쟁은 이러한 투쟁의 열성으로 충만하고있다。쏘베트나라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조국의 행복을 위한 영웅적인 투쟁과 힘찬 로동을 고취하는것이며 또 모국에대한 사랑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고무하는것이다。

쏘베트 애국주의는 세계최초의 사회주의 조국에대한 인민들의 신뢰와 사랑의 권화이다。또한 전세계적으로되는 로동의 자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기지로 되고있는 쏘련에 이미 건설된 사회에대한 인민들의 신뢰의 권화인것이다。쏘베트련맹의 기본법에는 『조국방위는 매개 쏘련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라고 규정되어있다。(一三三조)쓰딸린헌법의 이 말에는 매개 쏘베트공민은 자기의 사회주의적 국가와 자기의 인민에대해서 의식적이며 적극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하는 책무를 법적으로 확정하고있다。쏘베트 애국자들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 이르러서도 자기 모국인 사회주의조국에대한 방위를 소홀히 하지않는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또 어데서든지 로동에서 또 전쟁에서 주야로 부단히 임의의 자기사업에 참가함에 있어서 모국에대한 자기의 충실성을 증시하고있으며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있는것

이다。조국수호는 쏘베트나라의 임의의 지방에서 임의의 사업에서 임의의 부문—경제 정치 문화 과학 문학 예술 철학에서 수행되고있다。모국에대한 반역은, 사회주의 조국에대한 반역은 법에 의하여 준렬히 처벌되어야하는 가장 엄중한 죄악인 것이다。

조국을 배반할 기회는 비단 전선에서만 있을수있는 것이아니라 평시의 조건하에서도 있을수있다。때문에 당은 쏘베트 애국자들에게 부단한 경계를 할것을 호소하며 쏘베트 국가에대한 불성실한 태도에대한 투쟁을 호소하는것이며 아첨과 자본주의에대한 세계주의적인 비굴성의 잔재를, 쏘베트공민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시키게하며 또 쉬이(容易) 조국에대한 배반에 이르게할수있는 잔재를 극복할것을 호소하고 있는것이다。자본주의에대한 아첨과 비굴성의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이 투쟁은 사회주의제도, 그의 정치 문화 도덕을 자본주의제도에 의식적으로 대립시키는 투쟁이다。약간의 쏘베트지식분자들이 상금토록 두개의 세계관과 두개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상극(相剋)과 부르죠아제도에 대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인식못하였다는 사실과 화해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쏘베트인민들은 쏘베트 사회주의문화및 이데올로기와 정치, 도덕의 국제적 역활및 영향의 강화를 위하여, 국제반동에대한 진보세력의 승리를 촉진시키기위하여, 외국에대한 아첨을 반대하며, 비굴성과 세계주의를 반대하여 투쟁을 진행하는것이다。

쏘베트 애국주의에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고도로 체현되고있다。쏘련 근로자들은 쏘련은 비단 다민족으로된 쏘베트인민들의 조국일 뿐만아니라 동시에 만국 근로자들의 세계사적 해방투쟁의 기지(基地)이며 불파(不破)의 보루(堡壘)라는것을 알고 있으며 쏘련은 평화와 민주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전체 선진적인 사람들의 전위로 되고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쏘베트인민들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계속하고있는 현재에 있어서 사회주의에 이르는 길에 겨우 들어섰을 따름인 다른나라들이 우리들의 경험을 리용하는것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것이다。신민주주의 제국은 현재 쏘련의 위대한 경험에 의하여 지도되면서 또 쏘련의 지지와 방조밑에 쏘베트 인민들이 개척한 길을 진행하고있다。그외 국가들의 인민대중도 또한 정권을 위한 자기의 조국창건을 위한 투쟁에 궐기하고 있는것이다。

현재 우리들 눈앞에서 진행되고있는 새로운 사회제도에 의한 자본주의체제의 교대는, 전세계인민들의 공산주의에로의 대전진은, 공산당의 령도하에 로동계급을 위수로하는 인민대중들의 자유 독립과

인민민주주의적인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조국을 위한 투쟁의 형태로써 「조국으로서의 사회주의」(레닌)를위한 투쟁의 형태로써 진행되고 있는것이다.

三、로동계급과 민족통일

맑쓰와 엥겔쓰는 각개 조국내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죠아지와 결렬할것을 통고하였으며 부르죠아지가 민족을 대표할것이라는 요구의 불법성을 폭로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들의 단결과 민족적 적의(敵意)의 제거(除去)에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호소를 듣고 부르죠아지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성을 부인」하려고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맑쓰와 엥겔쓰의 생존시에 또 그들의 사후(死後)에도 부르죠아지 「비판가」들과 맑쓰주의의 위조자들이 번갈아 불려대인 이러한 우둔한 나발들은 아무런 의미도없는 우렬(愚劣)한것이다.

맑쓰와 엥겔쓰 및 그들이 창건한 공산당은 「민족성」을 마치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어떠한 잔존물로 간주한다는듯한 또 마치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민족성을 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며 로동계급은 「비민족성적」으로 되지않으면 안된다는듯한 중상적인 비난을 당하였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성을 부인하려고 하지않을뿐만아니라 도리어 로동계급에게 자기동포들을 혁명투쟁과 인류를 온갖 형태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업에 인입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족적 자랑에 대한 고귀한 감정을 배양하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자들의 계급성 및 민족성의 존엄성에대한 의식을 발전시키며 로동계급의 주위에 민족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단결시킬 과업을 내세운다.

맑쓰는 「명예스러운 민족적 감정」(「맑쓰, 엥겔쓰 전집」 十권 三八二폐지)에 충만한 프로레타리아트는 호전주의적인 부르죠아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명예스러운 민족적 감정」은 로동계급들이 모든 인민대중들과의 (첫째로 농민과의) 련계를 강화시키며 근로대중들을 자기 모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하는것을 도와주는것이다. 민족적 선입관으로부터 해방된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그의 전위로서의 공산주의자들)는 국제로동계급의 진정한 민족적 대표로 되는것이다.

오직 로동계급과 로동계급당만이 자기인민들의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높이 평가하며 또 정중(鄭重)히 수호하는 것이며 그것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복무시키는 것이다. 민족적 「허무주의」는 맑쓰주의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것이며 또 용납될수 없는 것이다.

「제一인타나쇼날에서 프루돈주의자들이 민족성을 「무의미」한 것이라고 표명하려고 기도하였을때에 그들은 맑쓰로부터 견결한 반대를 받았던것이다.

맑쓰보다 「더 좌익」 인것 처럼 보이려던 피·라팔그도 제一인타나쇼날의 어느 한 총회에서 「민족성 부인」에대한 요구를 제출하고 그것도 역시 맑쓰로부터 적절한 반박을 받았었다. (레닌전집 十七권 四六〇폐지참조)

맑쓰는 一八六六년六월七일부의 엥겔쓰에게 보낸 서한에있어서 배외주의(쇼비니즘)와의 투쟁에 있어서 민족문제와 민족해방운동의 역활 및 의의를 부인하는 소부르죠아 급진주의에 전락하는것은 용허할수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一八七一년 불란서에서의 사변에대하여 맑쓰도 불란서의 구제(救濟)와 불란서를 지배하고 있는 착취계급의 제거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정부는 「민족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맑쓰 엥겔쓰 아루히부」 三권 三五三폐지)이라고 썼다. 맑쓰는 파리 꼼무나를 사실상에 있어서 민족적 정부인 동시에 국제적인 로동해방 옹호자들의 정부라고 명명(命名)하였다.

모든 이러한 사실들은 부르죠아지의 대변자들이 마치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성을 부인」하려고 하는것같이 비난하는것은 황당무해(荒唐無稽)한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민족통일」 즉 피압박계급의 통일을 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첫째로 기본적인 문제들에 즉 어떠한 정치적 및 경제적 기초에서 또 어떠한계급의 령도하에 그러한 통일이 달성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오직 로동계급이 착취계급을 타도하고 소멸시킴으로써만이 진정한 민족통일을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쏘련에 있어서는 이러한 진정한 민족통일이 달성되었다. 쏘베트 인민들의 사상적—정치적 통일은 쏘베트 사회발전의 위력있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는 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민족성」을 부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민족문제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방법으로서 해결할것을 호소하는 것이며 민족적 및 종족적 불평등과 압박 및 민족간의 불화와 적의를 소멸시킬것을 호소하는 것이며 실지상으로 전체민족의 평등을 보장하고 제인민간의 우의를 강화할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맑쓰—레닌주의는 민족문제를 사회주의혁명에대한 전반적문제의 일부분으로서 간주하며 로동계급측으로 부터의 방조에대한— 「피압박민족들의 진정한 민족평등과 자립적인 국가의 존재를 위한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하며 불변한 방조」(쓰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 四六폐지)에대한 문제로서 간주하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형식상 민족평등의 승인과 민족

자결을『자치』권 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자기들의 강제적인 약소민족 예속화정책과 제국가를 예속화하고 (현시에 있어서는『마샬화』이다) 제 인민들을 노예화하는 정책을 은폐한다。불쉐위끼들은 이러한 배외주의적 및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또 제국주의자들의 정책과는 반대로 민족독립 민족자결및 제인민의 국가적 자립(자주권)의 원칙중에서 매개인민의 발전의 진보적—민주주의적 길을위한 로동계급의 정강(政綱)적 요구와 정치투쟁의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오직 전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한 후에야만 민족과 개개로 분리된 조국은 소멸할것인바 그것도 또한 즉시에 되는것은 아니다。세계의 인민들은 나중에는 한개의 형제적 가정에 전체인류를 포함하는 한개의 유일한 공산주의사회에 합류될것이다。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일이다。전세계인민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하에 있어서 민족문화의 완전한 개화를 결쳐서 이러한 미래에 도달할것이다。

브·이·레닌은 국제적 문화는 비민족(非民族)적인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세계문화는 어떠한『선발된 종족』의 창조물이 아니며 모든 인민들이 성취한 결과의 총화이라는것은 쏘베트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보적 진리로 되고있다。세계문화는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인민들의 창조에 의하여 발전되며 풍부하여지는 것이다。

『매개민족은—큰 민족이든 작은민족이든 모두 동등하게—다만 그들에게만 속하고 타민족에게는 속하지않은 자기의 특질과 특수한것을 가지고있다。이러한 특수성들은 매개 민족이 세계문화의 공동적인 보고에 기여(寄與)하는, 그를 보충하며 풍부히하는 공헌으로된다。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모든 민족은—크든 작든간에—동일한 립장에 있는것이며 또 매개민족은 다른 어떠한 민족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의의를 가지고있는 것이다』라고 쓰딸린동지는 말하였다。

사회주의는 비단 민족을 말살하려거나 제인민의 민족적 특수성을 일률화하려거나 약소민족을 동화(同化)하려거나 또 그들의 문화를 소멸시키려는 등의 일을 하지않을 뿐만아니라 도리어 이와반대로 모든 근로자들의 공동적인 중대한 리해관계와 합치되는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지지하며 발전시키는것이다。주지하는바와같이 사회주의十월혁명은 쏘베트국가에 있어서 민족적 압박을 없새버리고 짜리제국의 환경하에서 사멸에 처하고있던 모든 민족과 민족성을 새롭고 행복스러운 생활에로 재생시킨 것이다。이 민족들은 자기의 국가를 창조하였으며 문자를 가지었으며 자기의 모국어를 재생시켰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문화에 참가하게 되었

다。그들은 과학 예술 문학 교육 미술적 창조의 모든 복지(福祉)를 얻을수 있겠금 되였다。쏘련에 있어서—과거 락후되었던 민족들의 민족문화는 지금에는 자본주의 세계의 소위『문명』국가의 문화보다 한없이 더높은 수준에있다。

쓰딸린동지는 쏘베트 애국주의에 있어서는 쏘련제민족의 우수한 선진적 민족적 전통은 모든 근로자들—공산주의의 건설자들의 공동적 중대한 리해관계와 조화(調和)있게 련합되고 있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민족간의 친선은 수많은 쏘베트인민들의 관습으로 되었고 자각하는바로 되고있는 것이다。

민족간에 있어서 불화(不和)의 부식, 차별대우, 인종주의, 소수민족에대한 박해등 부르죠아—제국주의적 정책과 반대로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제민족의 동등과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민족문제의 프로레타리아트적 국제주의적 해결과 레닌—쓰딸린적 민족정책의 실행에 기초하여 제민족간의 친선이 설정되고 있는것이다。다민족사회주의국가—수十개 대소(大小)민족의 유일한 쏘베트조국—은 그 위대한 견고성과 생활성과 력량을 발휘하였었다。쏘베트민족들의 형제적 동맹은 전쟁의 모든 무거운 재액(災厄)을 감당하여 내였으며 이 전쟁과정에서 이 친선은 더한층 크게 장성하였으며 단련되었다。

민족간의 친선에대한 쏘베트 이데올로기는 그의 위대한 우월성을 표명하였으며 또 민족주의및 배외주의 인종주의와 인간증오주의의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에대한 승리를 획득하였다。

쏘베트동맹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족간의 거대한 상호우호를 조직하여 내였을뿐만 아니라 그는 또 전세계 제민족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믿음직한 성색으로 되고있는 것이다。쏘련이 없었더라면 제국주의의 침공은 급속하게 모든 국가들의 독립을 또다시 뒤번저 버릴수 있었을 것이며 식민지 제인민들의 해방은 장기간 제지되였을것이다。

부르죠아지들은 공산주의자들은『민족성을 부인』하려고 한다고 비난하였으며 민족적 허무주의라고 질책(叱責)하였던 것이다。력사는 이따위 비난과 질책의 무근거성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였다。그뿐만아니라 력사와 현시의 사실들은 부르죠아지야말로 민족적 리익을 배반하고있는 계급이며 민족적 허무주의와 세계주의를 전도(傳道)하고있는 계급이라는것을 표시하고 있는것이다。

부르죠아지는 자기의 탐욕스러운 계급적 리익때문에 모든 민족의 리익을 유린하고 있는것이다。프로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리익에 대한 정당한 인식은 자기계급의 리익과 합치되는것이다。

四、현시의 조국문제

쏘련—쏘베트 제인민의 다민족사회주의 조국이며 만국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조국—의 탄생과 강화는 당장에 쏘련의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 나머지의 모든 국가의 근로자들의 조국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새로이 제기하였다。만국 근로자들의 쏘련과의 형제적 련대성에 대한 구호、국제제국주의의 모든 음모와 조발로부터 쏘련을 백방으로 지지 옹호할데 대한 구호는 현시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가장 중요한 맹약(盟約)으로 되었다。세계의 수많은 인민들에게 세계적 침략자、인민들에게 대한 헌병—세계지배를 요구하고 있는 혹독하며 탐욕스러운 미제국주의—으로부터 자기나라의 민족적 독립을 옹호할데 대한 문제가 특별히 심각하게 나서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조국으로서의 쏘련의 역활과 의의가 특히 명료하게 판명되게 되었다。

대전전『문헨』시기에 있어서 벌써 대자본주의 제국의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들은 타국 및 자기나라 인민들의 민족적 리익을 희생시킬 것을 용의(用意)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였던 것이다。즉 영국과 불란서 정부는 파시스트 침략자들로하여금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에 내몰 것을 목적하고 그들에게 양보를 거듭하였었다。

전쟁은 오태리、불란서、항가리、루마니야、불가리야 및 기타 일련의 국가들의 부르죠아정부는 자기나라를 공손히 파시스트 침략자들의 군화밑에 내놓는 투항자의 정부였다는 것을 표시하였던 것이다。폐탄과 라발、홀티와 사라시、안토네스크와 파베릿치 및 기타의 수다한자들 가증할『괴뢰』매국노들은 자기 민족과 자기 국가에 대한 돈에 몸을 팔린 반역자 및 사형리의 역활을 한 것이였다。

일련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파시스트 간섭자와 그들의『제五렬』을 반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수반으로하는 강력한 애국적인 항쟁운동이 대두하였었다。쏘련의 힘에 의하여 히틀러독일이 격멸된 결과로 동구라파 및 동남구라파의 몇개국가는 제국주의로부터 탈리하였으며 그 국가들에 있어서는 인민대중들이 자기 조국의 주인으로 되었다。사회주의적 조국애의 이행(移行)형태로써의 인민민주주의적 조국창건을 위한 투쟁은 현재 희랍에 있어서도 중국에 있어서도 이태리에 있어서도 또 불란서에 있어서도 계속되고 있다。인도네시아、월남、비루마、마라이、마다가스칼 및 기타의 식민지 국가의 인민들도 민족해방투쟁을 진행하고。있다。부르죠아 지배자들의 민족적반역을 반대하고 민족의

재생과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은 여러가지 형태로써 진행되고 있다。

종전에 히틀러에게 복무하던 부르죠아 상층지배자들은 지금에 있어서는 세계지배를 목적으로하는 새로운 침략자와 강요자(强要者)에게 몸을 팔았다。

일련의 국가의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들은 공공연하게 민족적 리익을 배반하는 길로 들어갔으며 자기 민족을 반대하고 자기나라의 대다수 인민을 반대하고 자기나라의 민족적 자주권을 반대하고 미제국주의와 범죄적인 야합을 하고있다。

『마샬화』된 국가의 부르죠아 정부 및 『사회주의자』정부는 자기나라를 더욱더 외국의존(外國依存)에 목매이게하고 있으며、민족경제를 악화시키며、민족문화를 소멸시키며、민족적 전통을 짓밟고있으며、모든 민족적인 특성을 없새버리며、모든 향토적인것을 미국식으로 뒤바꾸고 있는것이다。

자기나라의 부르죠아들의 민족적 반역과 민족리익배반을 반대하여 로동계급、근로대중 및 모든 생생한 애국적 세력은 독립을위한 투쟁을 목적으로하는 광대한 전선을 이루고 궐기하고 있다。

현재 미제국주의가 전세계의 인민들을 반대하여 진행하고 있는 가장 불공정한 반인민적『랭정전쟁』에 있어서 거의 모든 국가들의 부르죠아지들은 조국방위를 거부할 뿐만아니라 도리어 투항하며、반역 배반하고 있으며、앞잡이와 사환군으로써 간섭자와 침략자들과 련합하고 있으며、또 자기나라를 서슴치않고 미국독점의『배회(徘徊)와 략탈』에 내어맡기고 있다。

그들은 왜 이러하는 것인가? 그것은 쏘련이 장성되고 강화하여가고 있으며 인민들을 새로운 전쟁에대한、민주주의를 소멸시키고 파시즘에로 인도하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이 늘어가고 있기때문인것이다。부르죠아지는 이러한 조건하에 있어서 그들의 지배는 계속유지될수 없을것을 알고 있으며 벌써 그들은 자력으로써는 자기 인민들을 처리하여 낼수없게되었으며 해양전너의 살지고 야수적인 동료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원조를 얻을수있을 것이라는것을 감득하고 있기때문인것이다。

브·이·레닌은 이미 이러한 모든 국가에 있어서 자본가들 련합이 진행될것을 예견하였었다。레닌은『모든 국가의 제국주의자들의 동맹、자본을 옹호하기 위하여서는 자연적이며 불가피적으로 조국을 모르는 이 동맹은 세계사상에 있어서 많은 가장 큼직큼직한 에피소—트로써 자본은 근로자들을 반대하는 각국자본가동맹의 보존을 조국과 그의 인민의 리익보다 더 높은것으로하고 있다는것을 증시하였다』(『레닌전집』二三권 四페지)고 말하였다。

제지할수 없이 전진하고 있는 공산주의에 놀랜 부르조아지 및 묘지까지는 고사하고 묘굴(墓穴)에까지도 부르조아지와 동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조국도 애국주의도 모두 내 던지고 있다。그들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구원을 구하면서 『우리들을 인민들로부터 구하여 주시오 우리들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구하여 주시오 우리들에게 무기를 주시오 돈을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망하고 그 다음에는 당신들도 망하오』라고 울고 불고하고 있는 것이다。

혼자서는 쏘련을 반대하며 전세계의 근로자들을 반대할 힘이 없다는것을 알고 있는 그들 미제국주의자들도 역시 세계의 모든 국가를 자기의 군사기지로 만들고 세계의 인민을 자기의 제국주의적 정책의 도구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반 쏘베트뿔럭을 형성하고 인민들을 새 전쟁에 집어넣으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리하여 히틀러의 침략을 반대하여 인민들이 투쟁하던 때로부터 그리고 특히 전후시기에있어서 특별한 정세가 조성되었으며 새로운 국면이 발생하였다。그리고 이 새로운 국면에는 인민들、근로자들、로동계급의 조국과의 관계에대한 새로운 구호가 적합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우리들의 당—쏘련공산당(볼쉐위끼)은 이 구호를 준 것이다。

一九四七년 九월말 파란에서 열린 수개국 공산당 대표들의 보도회의에서 아•아•스다브노동지는 『국제정세에 관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사회당 지도층의 대부분(특히 영국 레이버당원들과 불란서 사회당원들)이 미국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출연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구라파를 예속시키려는 미국안에 대한 항쟁을 령도하며 국내에 있는 미국제국주의자들의 모든 공모자들을 용감히 폭로하는 특별한 력사적역활이 부과되는것이다。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조국에 수치를 주는것을 요구치 않으며 자기조국을 외국 자본에게 예속시키는데 반포하며 자기의 민족자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려는 모든 진정한 인사들을 지지하여야 할것이다』(『一九四七년九월말 파란에서 열린 수개국 공산당보도회의』 四六—四七페지 방점은 필자의 것)

현재에 있어서는 민족의 우수한 대표자이며 민족리익의 충실한 수호자이며 인민들의 선봉인 로동계급이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의 기치를 자기의 수중에 쥐고 있다。

지금에는 로동계급은 자기의 기치밑에 민족적자존심에 대한 감정이 충만하고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조국에 수치를 주는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평화와 민주를 위한 사업을 존중하며 파시즘과 제국주의를 증오하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이끌어 넣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바로 이때문에 불란서、이태리 및 기타 국가들의 부르죠아지들은 자기나라를 보위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로골적으로 자기나라와 자기의 민족공업과 민족문화를 미국 독점에게 팔아 먹고 있는 것이며 또 바로 이 때문에 이들국가들의 로동계급들에게는 부르죠아지들의 반역적행위를 수행못하게 하며 부르죠아지들에게 조국을 파멸시킬 가능성을 주지 않게할 문제가 나서고 있는것이다。

로동계급은 민족과 자기 동포들의 노예화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가 괴뢰정부를 가진 식민지로 전변하는것을 구제하고 또 근로자들이 미국제국주의 식민지 노예로 화하는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동원되고 있는것이다。

로동계급은 조국을 인민적인 사회주의적인 조국으로 전변시킴으로써만이 이 사업을 완수할수있는 것이다。조국의 반역자들을 추방하고 낡은 부르죠아 조국을 인민—민주주의적 조국으로 전변시킴과 관련하여 그들이 국가를 지배할 가능성을 박탈하고 또 여기에 있어서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투쟁을 계속하면서 전체근로자들을 사회주의에의 길로 인도하여 나가는것이다。현시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와 조국을 위한 투쟁과의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것이다。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이르기 전에 있어서는 한때 서구라파 부르죠아지들은 민족운동에 가담하였고 또—극히 제한된 견해에서라 할찌라도—민족자결의 요구를 지지하였고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흥정(取引)도 하였으며 애국주의라고 뽐내기도 하였던것이다。(그리고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애국주의가 없다고 거짓된 비렬한 비난을 하였다)

현재에 있어서는 그들은(부르죠아지) 세계주의라는 『병에 걸려』서 애국주의라는 개념자체를 거부하며 조국보위、민족독립、민족자결、자주권을 거부하고 있는것이다。종전에는 서구라파 제국의 부르죠아지들은 자기들의 반애국주의와 탐욕한 계급적 리익을 애국적인 언사로써 가장하려고도 하였다。현시에 있어서는 그들은 공공연하게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반애국주의적으로 되고있는것이다。현대의 부르죠아정치가 및 부룸、베빈、애틀리、슈마헬、사라카트등 따위의 『사회주의자』들은 자국인민들의 적이며、매국노이며、민족의 거족적사업에대한 반역자이며、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앞잡이인것이다。

부르죠아지와 『그사회주의자』충복들의 조국에 대한 관계는 계급으로서의 부르죠아지는 현재 모든 절에 있어서 반동세력으로 되었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부르죠아지는 정신과 량심을 월가의 은행가

들에게 팔아먹었으며, 그들에게는 아무런 신성한 것도 없으며 원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조국에대한 감정의 마지막 한방울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것이다。

한때에 부르죠아지는 민족 또는 민족의 대부분을 지배, 지휘하였을뿐만아니라 령도하기까지 하였던것이다 농민, 사무원, 인테리겐챠가 부르죠아지를 지지하였었다。 현대의 부르죠아지는 민족의 령도자로서의 역활을 잃어버린지 이미 오래고 지금에 있어서는 자기의 마지막 동맹자까지도 잃고있다。 부르죠아지는 민족적 독립의 기치를 흙탕에 집어던졌으며 그리하여 민족의 령도자 인민의 선봉의 역활은 공산당이 지도하는 로동계급에게로 넘어간것이다。 수많은 국가에 있어서는 민족의 기본적인 층(層) 즉 사회적 및 민족적 압박의 고난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벌써 로동계급을 지지하고 있는것이다。

위선적이며 허위적인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자들을,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학설의 신봉자들을 민족적 허무주의이며 민족적 자랑에대한 감정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었다。 지금에 있어서는 매개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견결한 애국자이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애국심을 발양시키며 대중(大衆)들의 애국의식을 발전시키고있다는것은 누구에게든지 명백한것이다。

인민대중들의 애국심과 애국의식은 현재에 있어서는 자유와 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에로의 그의 운동을 고무시키고 있는 강력한 충동력으로 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오늘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학설중에서 또 모든 현대 정당중에서 대중운동을 조직하고 그 방향을 지시하며 조국의 민족적 독립과 민족문화의 보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근로대중을 지도하고있는 유일한 힘으로 되고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기 조국의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려는자는 반드시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것이다。

공산당들에게는 현재 특별한 과업이 부과되어있는것이다。 즉『그들은 민족적 독립과 자기 국가의 주권을 옹호하는 기빨을 자기 수중에 잡아야 할것이다。 만일 공산당이 자기의 립장에 확고히 선다면 만일 그네들이 경악실색(驚愕失色)하지않는다면 만일 그들이 민주주의적 민족주권 자기국가의 자유와 독립의 초소에 용감히 나선다면 만일 그들이 자기 국가의 경제적 및 정치적 예속을 시도하는데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자기들의 자유를 대표하며 명예 및 민족적 독립에대한 사업을 예속주장할 용의가 있다면 구라파 및 아세아를 예속화하려는 어떠한 계획도 실현못될것이다』(一九四

七년九월말 파란에서 열린 수개국공산당 보도회의 선언서중에서)

민족부르죠아지의 반역적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대중들의 운동을 몰로또브동지가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는 모든 길은 공산주의에로 인도하고 있다고 규정한 일정한 정세에 처하고 있다는것을 새로이 확신하고 있는것이다。 현재에『있어서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인민들의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공산주의를 향하여 투쟁하고 있는것이다。

五、부르죠아지의 세계주의(世界主義)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애국주의(愛國主義)

인민을 착취하는자와 근로자를 압박하는자들은 진정한 애국주의를 리해할수 없는것이다。 력사가 가르치는 바와같이 반동적 부르죠아지는 민족을 배반할 용의(用意)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들의 조국에대한『배려(配慮)』는 자기 계급의 리득과 자기 지배의 강화에 대한 배려보다 더 나아가지 못하는것이다。『문제가 자본가와 지주들의 개인소유에까지 이르게되는 때에는 그들은 조국과 독립에대한 자기의 모든 언사(言辭)를 잊어버리는것이다』(『레닌전집』二十三권 一五八페지)

진실하고 진정한 애국주의는 인민의 리익을 옹호함에 있다。 이것으로 볼때 부르죠아지들은 사실상 애국주의를 못가진다는것은 명백한것이다。 그들의 리윤과 재부의 추구(追求)에는 정처(定處)없는 세계주의가 완전히 들어맞는것이다。

『나의 조국은 자본을 유리하게 투자할수있는 그곳이며 높은 리윤이있는 그곳이다』라고 자본가들은 말하는것이다。 서구라파 수개국에 있어서의 부르죠아지들은 오직 그의 혁명적인 청년기에 있어서만 즉 봉건과 전제주의(專制主義)를 반대하는 투쟁시기에 있어서만 애국주의를 표명하였던것이다。 그러나 한편 맑쓰가 쓴바와같이『부르죠아지의 애국주의는 그들의 금융 상업 및 산업활동이 세계적인 성격을 떼게된 때로부터 순전한 허위로 변화한것이다』(맑쓰, 엥겔쓰, 아루히브 三권 三五五페지)

민족성의 부인과 인민들의 민족적 리익에대한 무차등(無差等)을 설교하는것은 강력한 제국주의적 민족들에 의한 약소민족의 압박과 노예화를 합리화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민족적 허무주의와 세계주의는 민족적 리익의 대표자로의, 민족적독립의 충실한 방위자로서 전체 근로대중의 수반으로 나서고 있는 프로레타리아트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부

르죠아제국주의적『리념』인것이다。

세계주의는 타민족에대한 자기들의 지배를 확보하려하고있는 렬강(列强)의 부르죠아들의 침략적 지향(志向)을 은폐하는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쉽게하기위하여 팽창적 제국주의의 변호자들은 말하기를 민족적독립 제민족의 국가적 자주권 및 애국주의자체는『잔재물(殘滓物)』이며『시대착오(時代錯誤)』며『케케묵은 리념』등이라고한다。

세계주의자들은『국경소멸(國境消滅)』『전세계적 민족련합』(물론 미국의 패권밑에서다!)『전세계적 정부수립』(물론 미국의 령도밑에서다!)등등을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의 비호하에 쏘련을 반대하는 부르죠아제국뿔력을 만들려고 기도하고있는 전쟁방화자들의 침략적 정책이 모든 이러한 세계주의의 연막(煙幕)뒤에 은폐되고 있는것이다。

부르죠아 세계주의는 사회주의와 자기조국 창건을 위한 투쟁에 궐기하고 있는 인민대중들의 눈앞에서 가장 야수적인 제국주의—미국제국주의와 군사적 정치적 뿔력을 맺음으로써 자기의 계급적지위를 강화하려고 하고있는 현대 부르죠아지들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히틀러도당들은 타민족의 자립적 존재에대한 권리와 자기의 민족적문화와 국가를 가지는 권리를 부정하였었다。 지금에 있어서는 영미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은『신질서(新秩序)』의 구현자(具現者)라고 칭하고있다。

미국제국주의자들은 전세계를 병탄(倂呑)하며 모든 인민들과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 예속시킬것을 바라고있다。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 문인(文人)들이『세계』문화의『무민족적성격』에대한『리론』또 세계인민들 문화의 민족적 특성、전통、민족적 형식은 의의(意義)와 가치(價値)및 존재의 권리가 없다는데대한『리론』을 설교하고있는 리유도 여기에 있는것이다。

침략당한 국가들과 락후된 예속국가들의 부르죠아 정치가들에게는 세계주의의 리념(理念)은 미국제국주의에대한 그들의 비굴(卑屈)과 아첨과 추종(追從)을 합리화하는데 소용되는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에 있어서 세계주의는 부르죠아—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의 이데올로기인것이며 자기나라를 미국제국주의에게 예속시킬것을 목적으로하며 인민과 민족과 조국의 리익을 배반하는자들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세계주의는 견유적(犬儒的)이며 위선적인 제국주의적『국제주의』의『철학』이다。 한편에 있어서 이것은 모든 타민족을 토끼(兎)처럼 삼켜먹으려는 제국주의—구렁이(大蛇)의『철학』인것이며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자기인민들을 삼켜먹히우게할 준비를 하고있는 매국노들의『철학』인것이다。

레이버당、사회당、우익사회민주당들을 지도하는 현시의 두목들、즉 베빈、애트리、부룸、슈마헬、사라가트 등은 제국주의—구렁이의 행동을 선전하고 합리화하는데 있어서 비렬(卑劣)한 역활를 하고있다。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민족적자유와 독립에대한 인민들의 의욕을 말살시키려고 기도하고있으며 구라파제국에 강요된 미영제국주의의 원조를『자원적』예속인것처럼 표현하려고 기도하고있다。 그리하여 실례로서는 미국의 비호하의 五개국(영국、불란서、백이의、화란、룩셈불그)군사동맹을 체결할때에 베빈은 각국민들은『전반적인 복지를 위하여 협소한 민족적 리익을 희생하지않으면』안된다고(미영제국주의를 위하여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희생할것이라고 읽으라!)성명하였던것이다。

베빈은 민족의 리익에 있어서 기본적이며 사활적(死活的)인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민족적자아주의(自我主義)』라고 사기적으로 말하면서 미제국주의의 사촉(使嗾)으로서、외교원으로서 출역하고 있으며 또 영국과 기타 구라파제국들의 매국노로서 출연하고 있는것이다 베빈과 그의 도당(徒黨)은 자기의 정치적 기교(機巧)의 전부를 구라파 인민들을 채울수없는 제국주의—구렁이의 식욕을 만족시키기위한 토끼의 역활을 놀게하겠금 마련하는데에 쓰고있는것이다。

이러한것이 세계주의의 리론과 실천인것이며 이러한것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자들과 구라파에 있어서 자기인민들의 민족적 리익을 반역하는자들의『철학』인것이다!!

쏘베트 인테리겐챠의 개별적인 대표자들의 행실에 세계주의가 표현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락후되었고 또 더 선진적인 자본주의제국에 예속되고있던 쏘베트 이전의 낡은 시대로부터 남아있는 치욕적이며 혐오(嫌惡)를 느끼는 잔재물인것이다。 현시에 있어서의 세계주의적 리념은 사회주의에 적대(敵對)되는 썩어져가고있는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반영(反映)이기도 한것이다。

세계주의는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의식(意識)과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또 상반(相反)하는것이다。

세계주의는 진정한 맑쓰—레닌적 국제주의개념(槪念)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것이다。 스다노브동지는 쏘련공산당(볼쉐위끼)중앙위원회의 음악활동가들에대한 회의연설에서 이 문제에대해서 심각하며 또 명료한 해명을 주었다。 그는 국제주의는 자기조국에대한 사랑과 자기민족의 민족문화발전을 위한 배려(配慮)와는 모순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던것이다。 국제주의의 기초에는 타민

족에게 대한 존중성이 있으며 그리고 타민족을 존중하지못하는 사람은 곧 자기인민도 존중하지 않는것이다。 따라서 국제주의는 그냥 자기조국에 대한 사랑을 예견하고 있는것이다。 오직 정처(定處) 없는 세계주의자만이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를 대립시킬수 있는것이다。

국제주의의 기빨밑에 민족적 독립 및 문화에 대한 또 민족적 전통등에 대한 세계주의적 허무주의적 태도를 그냥 지니려는 온갖 기도는 사회주의의 리익과 사회주의문화의 발전에대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것이다。」

쏘베트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기초로하고 있으며 만국의 근로자들의, 모든 민족들의, 모든 인종들의, 국제적련대성(連帶性)을 기초로하고 있는것이다。 쏘베트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없이는 불가능한것이며 또 반대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것은 곧 헌신적으로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쏘베트애국주의 외에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는 없는것이다。

레닌—쓰딸린당에 의하여 교양되는 쏘베트애국주의는 혁명적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표현(表現)과 발전의 최고형태인 것이다。

六、프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과업과 국제적과업의 통일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는 모드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들의 공동적인 국제적투쟁만이 자본주의를 소멸하고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있다는것을 리해(理解)하게하는데있다。 레닌은『사회민주주의자—국제주의자로 되기위하여서는 다만 자기민족만을 생각하여서는 안되며 전체의 리익을 그들의 전반적인 자유와 평등을 그보다(자기민족의 것) 더 높은것으로 하여야 하는것이다』(『레닌전집』 十九권 二六二페지)라고 말하였다。

매개국가의 로동계급은 우선 자기나라의 민족부르죠아지를 반대하여 민족적 및 사회적압박으로부터 자기인민들과 자기조국을 해방시키기위하여 자기나라에서의 계급투쟁을 전개하는것이다。 매개국가에있어서 로동계급은 가장 의식적(意識的)이며 조직적인 인민의전위(前衛)로서, 그들의 리익의 표현자로서 나서는것이다。 로동계급은 농민대중, 도시주민, 도시와 농촌의 모든 근로자들 즉 자기 민족의 다대수의 선두에 서고 있는것이다。 로동계급의 정당은 모든 피압박 대중들에게 그들의 자활적인 리익은 오직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에 의하여서 만 보장될수있다는것을 해명(解明)하여준다。 레닌은

인민의 의지(意志)는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에서만 발현(發現)될수있는것이라고 지적하였었다。(『레닌전집』二十三권 三一三페지) 따라서 매개 국가의 인민대중의 리익 매개민족의 압도적 다수의 리익은 소여(所與)의 국가의 로동계급의 리익과 또 국제프로레타리아트전체의 리익과 합치하는것이다。 레닌은 대로씨야인의 민족적자랑에 맞는 리익(농노적인 개념에서 나온것이아님)은 대로씨야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적 리익과 합치한다(『레닌전집』十八권八十三페지)라고 썼었다。 민족적인 것과국제적인 것과의 이러한 련계(連繫)에 대한 리해 및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전반적인 과업을 민족적인것의 앞에 전경(前景)으로 내세우는것도 즉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레타리아 계급적인 과업을 전경에 내세우는것은 절대로 프로레타리아트가 조국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민족적인 과업 또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경시(輕視)하거나 또는 무시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은아니다。

「대중들을」국제주의의로 교양한다는것은 근로자들의 민족적 자각(自覺)을 계급적—프로레타리아트적 의식(意識)에까지 제고시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은 로동계급 및 그의 동맹자들에게 필요한 때에는 민족적 리익을 국제적 사회주의운동의 리익에 복종(服從)시키는것을 잘알겠금 가르쳐 주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볼쉐위끼 공산당은 자기활동의 모든시기를 통하여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 및 국제적 과업의 결합(結合)에대한 훌륭하며 정당한 모범들을 보이였다。

로씨야에 있어서의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에 있어서 볼쉐위끼공산당의 애국적인 공훈(功勳)은 국내의 모든 민족들의, 로동계급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씨야프로레타리아트의 공훈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 혁명은 로씨야를 제국주의의 발톱으로부터 구출하였으며 로씨야인민들을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압박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었으며 로씨야인민들의 조국을 파멸과 와해로부터, 분렬로부터, 제국주의적 노예화(奴隷化)로부터 구제하여 낸것이었다。 그와동시에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은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국제적인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이것을 한두번만 강조한것이 아니었다。

쓰딸린동지는『한나라에 있어서의 혁명의 승리를 순전한 민족적인것으로 또 단순한 민족적인 현상(現象)으로서만 설명하는것은』(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一〇五페지) 옳지못하다고 썼다。 쓰딸린동지는 그러한 견해는『한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자체적(自体的)인 목적만 가지는것이 아니

라 다른나라들에 있어서의 혁명의 발전과 지원(支援)을 위한 수단인것에라는 국제주의의 초보적인 요구에대한 무리해(無理解)를』말하고있는것이다。(『쏘딸린전집』 七권 一六八폐지)라고썼으며『로씨야혁명은 순전한 로씨야만의 일이 아니며 그는 그와반대로 전세계의 로동계급의 일인것이다』(쏘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三五六폐지)『쏘련의 로동계급은 세계프로레타리아트의 한부분이며 그의 선진적인 부대이다。그리고 우리들의 공화국은 세계프로레타리아트의 사랑하는 아들인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四八五폐지)라고 썼다。

맑쓰—레닌주의당의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면서 쓰딸린동지는『어느 한국가의 공산당의 전략과 전술은 그당이『자기』나라、『자기』조국、『자기』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에만 치중하는것이아니라 오히려 자기나라의 조건과 정세를 고려하면서 국제적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을、다른나라에 있어서의 혁명의 리익을 위에 내세우는 경우에야만 즉 그당이 본질상(本質上)으로 정말로 국제주의적인 경우에야만 정당한것이라는 맑쓰주의의 리론에 의하여 도달되고 또 혁명적실천에 의하여 확인된 결론』을 기초로할 필요에 대하여 말하였었다。(『쏘딸린전집』五권八十폐지)

쏘련이 존재하는 三十년동안 쏘베트인민들은 쏘베트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전세계에 여러번 표시하였다。一九一八년 브레스뜨강화(講和)시기에 있어서 볼쉐위끼당은 로동자와 농민의 수중에 정권을 보지(保持)하기위하여 세계적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투쟁의 리익을 위하여、볼쉐위끼당의 령도하에 로씨야 로동계급이 근로농민들과 동맹하여 쟁취한 쏘베트조국을 사회주의조국으로서 고수하기 위하여 가장 커다란 희생을(령토의 일부분 상실、배상등)하여야할 필요를 대중들에게 해명하였던 것이다。

쏘딸린적 五개년계획 년간(年間)에 있어서의 쏘베트인민들의『건설투쟁』뿐만아니라 쏘베트조국의 독립 강화 및 그의 국방능력 제고를 위한 긴박(緊迫)한 투쟁또 또한 쏘베트인민들에 의하여 세계자본주의에 대학 프로레타리아사회주의의 전세계적 승리의 전망(展望)밑에 수행된것이었다。

一九二五년에 쏘딸린동지는『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투쟁、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지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적 요소의 승리를 위한 투쟁、우리들의 건설투쟁도 역시 그 자체의 의의로 보아 국제적인것이다。그것은 우리나라는 국제혁명의 근거지이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국제적 혁명운동의 전개를 위한 기본적인 공간(槓杆)이기 때문이다』(『쏘딸린전집』七권 二九五폐지)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자기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쏘베트인민들의 동정과 지지(支持)를 받지않은 근로대중의 해방운동은 지구의 어느 한구석에도 없었던것이다。쏘베트인민들은 로동에 있어서나 전쟁에 있어서나 한결같이 레닌—쏘딸린당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전정한 국제주의를 표현하였으며 또 표현하고있는 것이다。

쏘베트애국주의자들의 쓰딸린그라드에 있어서의 전투、꿀스끄주변、드네쁠、우끄라이나 및 벨로씨야에서의 전투들은 국제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건들이 었였다。이것은 다만 쏘베트조국을 위한 전투일뿐만 아니라 구라파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전투였었던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전투들에 있어서 자기의 피를 흘린 쏘베트 애국자들은 진정하게 자기의 의무를 수행한 진정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자들이었던것이다。조국전쟁의 종말에 있어서 쏘련 국경을 넘어선 쏘베트애국자들은 의연히 헌신적으로 또 열성적으로 싸웠으며 타국인민들의 자유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렸던것이다。

『볼쉐위끼들의 철저하고 끝까지 혁명적인 국제주의는 만국의 로동자들에게 대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모범인것이다』(쏘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三五六폐지) 쏘베트인민들의 사회주의조국은 쏘련에 가맹하고 있는 민족의 구성으로 보던지 또 그의정책、이데올로기、쏘련의 대내 및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던지 마찬가지로 국제주의적인 것이다。

쏘베트인민들은 전세계인민들에게 쏘베트애국주의가—무한한 불붙는듯한 자기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세계의 모든 나라의 근로자들의 련대성(連帶性)에대한 충실성을 또한 그중에 포함하고 있는 빛나는 실례를 표명하였던것이다。

반 혁명적 뜨로쯔끼주의자들은『세계혁명』이라는 가짜 국제주의의 말 공부에 숨어서 쏘련의 근로자들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을 파렬시켰으며 대립시켰던것이다。그들은 쏘베트사회주의국가를 자본주의세계의 부속물(附屬物)로、자본주의제국의 작란의 대상으로 전화(轉化)시키려고 하였으며 그들은 세계프로레타리아트로 하여금 자본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성색(城塞)을 상실(喪失)시키려고 하였던것이다。

쏘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건설의 성과가 더클수록、세계 최초의 사회주의조국이 더빨리 또한 더 결정적으로 자본주의세계에 대한 자기의 우월성(優越性)을 표시할수록 세계제국주의체제(体制)속의 파렬구(破裂口)는 더욱더 커가며 자본주의제국의 근로자들과 식민지인민들의 해방투쟁은 더욱더 성

공하여 간다는것을 레닌과 쓰딸린은 가르치고 있는것이다。『쏘련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은 만국의 프로레타리아트들의 공동적인 사업을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며 이것은 다만 쏘련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에 있어서 자본에 대한 승리를 견고히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그 리유는 쏘련에 있어서의 혁명은 세계혁명의 일부분이며 그 시작이며 그 전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쓰딸린『다시한번 우리당내의 사회민주주의적 편향(偏向)에 대하여』三五폐지 一九二七년판) 라고 쓰딸린동지는 말하였다。

쓰딸린동지는 세계의 해방운동의 성공은 사회주의조국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성과와 군사적위력의 강화가 더욱 훌륭할쑤록 더욱 커지는것이라고 지적하였던것이다。

오늘에 와서는 이러한 천재적인 예견(豫見)이 얼마나 훌륭하게 확증되고 있는것인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 및 군사적 위력과 제二차대전 진행중에 표현된 그의 불패(不敗)의 내부적통일은 히틀러독일과 같은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적 야수(野獸)의 섬멸을 보장하였던것이다。이 결과로 스다노브동지가 지적한 바와같이 두개의 체제간의—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상호관계는 급격하게 사회주의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였으며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전반적으로 엄중한 손실을 당한것이다。『제국주의통일전선을 격파한것과 세계자본주의 체계에서 로씨야가 탈리한것이 제一차 세계대전의 주요총화라고 한다면 또는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결과에 자본주의가 세계경제를 총망라한 통일계통으로써 존재할수없게되었다면 제二차세계대전과 파시즘을 격멸한 사실이라든지 자본주의의 국제적 립장이 미약하여진 것이라든지 반팟쇼운동이 강화된 사실들은 중구 및 동남구라파 여러국가들로 하여금 제국주의 체계에서 탈퇴케하였다』(스다노브『국제정세에 대하여』)

쏘련은 현재에 있어서 제국주의적 반동과 대립하고 있는 결정적인 힘이며 평화와 자유와 제인민의 독립의 섯색이며 피악박인민들에게 해방의 길을 지시하여주는 등대인것이다。

七、쏘련에 대한 태도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규준(規準)이다。

세계가 두진영 즉 쏘련을 위수로 하는 민주주의—사회주의의 진영과 미국을 위수로하는 반동적—제국주의진영으로 나뉘어졌다는 사정은 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인것이다。쏘련과 쏘련이 방조하는 신민주주의제국은 평화와 민주를 위한 사업、모든 민족의 평등권의 원칙、그들의 민족적독립 및

국가적자주권、그들의 자유로운 발전과 자기들의 의사에의한 제도(制度) 수립의 권리를 견지(堅持)하고 있다。미국 및 영국의 반동적 제국주의파들은 이와 반대로 갖은 수단을 다하여 자본주의적 독점의 세계지배를 달성하려고 기도하고있으며 제민족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제한하며 압박하는 정책과 모든인민들 및 모든 대륙을 미국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복종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하고있다。

브·이·레닌은 쏘베트국가가 탄생한 첫시기에 벌써 부단히 장성하여가는 사회주의와 사멸하여가고있는 자본주의간(間)의 전세계사적 투쟁의 무대에 있어서 이러한 세력의 분계(分界)는 우리들의 시대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지적하였었다。여기에 있어서 레닌은 모든 국가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세력분계의 조건하에 있어서 올바른 정책과 전술을 쓸것을 가르치었던것이다。레닌은 모든 나라의 의식있는 로동자들에게『세계정치의 모든 사건은 어찌할수없이 한개의 중심점에 즉 전세계부르죠아지들이 쏘베트로씨야공화국을 반대하는 투쟁에 집중되는 것이다。이 쏘베트로씨야공화국은 불가피한일로 자기주위에 한편에 있어서는 모든나라에 있어서 선진로동자들의 쏘베트를위한 운동을、다른한편에 있어서는 전세계의 제국주의에 대한 쏘베트주권의 승리이외에는 그들을 구제할수 없다는 것을 쓰딸린 경험에 의하여 확인(確認)하고있는 모든 식민지및 피압박민족의 민족해방운동을 집결시키고있다』(『레닌전집』二五권二八六—二八七폐지 방점—위신스끼)는 진리를 체득(体得)할것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한층 현저하게 눈에 띄우게 되고있는 이 진리를 리해하는것이 로동자당및 공산당의 철저한 국제주의적 정책을 위한 그들의 필요한 조건으로 된다고 레닌은 간주(看做)하였던 것이다。찌또、란꼬빗치도당들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대한 레닌의 원칙들로부터의 치욕스로운 리탈과 관련하여볼때 지금은 바로 이것을 회상하여 보아야 할때인것이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결과로 발생한 세력의 분계를 지적하고 레닌은 또『따라서 현재에 있어서는 여러민족의 근로자들이 접근(接近)하고 있다는데 대한 빈(空) 승인 또는 선언에만 국한하여서는 안되는것이다。모든민족 및 식민지 해방운동을 쏘베트로씨야에 가장 긴밀하게 동맹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것이다』(『레닌전집』二十五권 二八七폐지)라고 말하였었다。

레닌의 이러한 말들은 마치 오늘에 말한듯이 생생하게 들리는것이다。이 말들을 프로레타리아트 국제주의를 배반하고 그것을 그 [illegible] 원칙에대한 [illegible]말로

서의『빈(空)승인』과 쏘련을 사랑한다는 화려한 언사(言辭)와 또 근로자들의 접근에대한 데마적인『선언』에 슬쩍 바꾸어놓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는 쏘련 및 인민민주주의제국과의 친청한 성의였는『긴밀한 동맹』을 거부하며 그리함으로써 제국주의와 동일한 진영으로 되고있는 유고스라비야의 민족주의자들에대한 관여(的)을 바로 마치고 있는것이다。

민족주의적 찌또파는 프로레타리아트 련대성(連帶性)을 위한 사업을 배반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트 및 그의 동맹자들, 모든 민족의 대렬을 통일할것을 요구하는 맑쓰—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한것이다。 찌또—란끄빗치 집단의 매국노들의 민족주의는 그들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쏘련에대한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는데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국가들을 쏘련과 절연시키는것은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필요(必要)로 하는것이며 이것은 그들이 갈망(渴望)하는 목표인것이다。 자기들의 과오를 고집하고있는 찌또파의 민족주의자들은 이리하여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사환군으로 변하고 만것이다。

레닌이 가르치기를 혁명가는 다만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에 대하여서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모든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에 대하여서 생각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렇지않은것은『공산주의의 색채』로『물을 고치어들인』소부르죠아민족주의라고 하였다。

『소부르죠아민족주의는, 민족적 리기주의(利己主義)는 침범할수 없는것으로 보존하여두고 다만 민족의 평등권만 승인하는것을 국제주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편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가 요구하는 바는 첫째로는 한나라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투쟁의 리익을 세계적 기준(基準)에 있어서 이 투쟁의 리익에 복종시키는것이며 둘째로는 부르죠아지에대한 승리를 얻고있는 민족이 국제자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장 커다란 민족적희생을 할 능력과 용의(用意)를 가지고 있을것을 요구하는것이다』『레닌전집』二五권 二八七페지) 라고 레닌은 썼다。

맑쓰—레닌주의는 각민족 각나라의『민족적과업』의 기반(基盤)에는 계급적과업 피압박계급의 과업이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다만 계급투쟁의 과정에 있어서만 해결될수있는것이지『협정』의 방법, 착취자와 피착취를 유일한『민족적』전선에『련합』하는 방법으로서는, 따라서 계급융화(融和)의 방법으로서는, 해결할수 없는것이라는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는—민족해방투쟁을 근로자들의 사회적해방투쟁과 세계적범위(範圍)에 있어서의 반제국주의 투쟁과 또 따라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유훈(遺訓)(쏘련과 기타의 혁명적세력과의 통일전선)에 대한 충실성과 반드시 결부시키는 프로레타

리아트 및 그의 당의 견해(見解)에 의한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이며 다투하나는—부르죠아지적 기회주의적 및 민족주의적 견해에 의한 민족적배타주의와 제인민의 공동적투쟁에 대한 민족적고립주의 사상에 의한『민족적독립』인 것이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가 없는 애국주의는 부르죠아민주주의이며 배외주의(쇼비니즘)이며 또 부르죠아지적 및 기회주의적 사상에 의한『독립』은 인민에 대한 기만이며 조국에대한 반역, 민족적 리익에 대한 배반인것이다。

『민족적독립』에대한 이러한 견해는 로동계급의 력량(力量)에대한 불신(不信)에 기인(基因)하는것이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대한 레닌의 유훈(遺訓)으로 부터의 리탈에 기인하는것이며 계급투쟁의 은폐와 계급융화의 이데올로기에 기인하는것이라는것은 용이하게 볼수있는것이다。 유고스라비야의 민족주의적 찌또—도당은 바로 민족적 독립문제에 대한 이러한 부르죠아적 견해에 전락(轉落)한것이다。

민족주의적 편향(偏向)은 현시에 있어서는 특히 위험한것이다。 그것은 반동 및 파시즘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사회주의 전선의 투쟁이 첨예화하고 긴박한 조건하에 있어서는 특히 용허할수 없는것으로 되는것이다。 유고스라비야의 분파주의자들은 마치 쏘련 및 기타의 인민민주주의제국과 동맹하지않고 유고스라비야의 독립을 수호할수 있는것처럼, 마치 쏘련을 배척(排斥)하고도 광포(狂暴)한 제국주의의 야수—미국!의 팽창으로부터 자기국가를 지켜낼수있는 것처럼 자부(自負)하고 있다。 오직 맑쓰—레닌주의학설의 기본을 잊었거나 또는 모르는, 그렇지않으며는 이학설을 고려하려고 하지않은 사람들만이 유고스라비야공산당의 변절자들과같이 마치 매개 국가의 정치가들은 그 국가들의 독립을 존중할데대하여 제국주의자들과『협정』할수있는것처럼 생각할수있는것이다。 오직 계급투쟁의 불역(不易)의 법칙을 배격하는 소부르죠아 정치가들만이 그리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배반하는 자들만이 그와 류사(類似)하게 론의할수 있는것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기타국가들의 형제적 공산당들은 일치하여 유고스라비야공산당의 현재의 령도태도(態度)를 비난하였으며 혁명적 국제주의에 대한 레닌의 유훈을 변함없이 충실하게 지켰으며 매개 국가의 인민들의 투쟁은 쏘련을 위수로하는 민주주의—사회주의 전선의 전반적투쟁의 한부분이라는것과 제국주의에대한 최후적인 승리는 쏘련의 령도하에 쏘련공산당(볼쉐위끼)의 위대한 실천적 및 리론적 경험의 고려와 리용에 기초한 전체인민

와 련합된 력량에 의하여서만 쟁취할수 있다는것에 견결히 서고 있는것이다。

현시에 있어서의 혁명적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결정적이며 유일한 규준(規準)은, 즉 국제프로레타리아트의 조국인 쏘련을 지지하느냐 또는 반대하는냐 하는데 있는것이다。 현시에 있어서는 말로만 국제적 련대성을 『승인』하며 또는 그에 『공명(共鳴)』하고만있는 사람, 말로만 모든 민족과 민족문화를 『존중』하는 사람은 국제주의자가 아닌것이다。 자본주의가 궁극(窮極)에 도달하고 국제프로레타리아트의 조국—쏘련—이 번성(繁盛)하고 있는 현시의 조건하에서는 자가의 공명과 존중과 승인을 모든방법을 다하여 또 여러가지 형식으로 쏘련에대한 실제적이며 최대한도의 방조 지지 옹호에까지에 이루게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국제주의자인것이다。 말로서만 쏘련에대한 공명(共鳴)이 아니고 실제적이며 성실한 쏘련과의 협조, 자국내에서 자국의 민족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투쟁을 시행하고 있는 각국가의 로동자들의 모든 지향(志向)을 쏘련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기본적인 과업에 복종시키며 자기투쟁에 있어서 쏘련에 의거할 용의(用意)—여기에 외국의 로동자들의 혁명적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가 표현되는것이다。

이러한 국제주의는 세계의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 어떠한 진보적 민주주의적—사회주의적 운동의 성공은 전쟁, 반동, 파시즘 및 제국주의세력을 반대하는 모든 진보적 선진적 인류의 세계사적 투쟁에 있어서 가장 견실한 선색인 쏘베트동맹의 성공과 위력과 번성(繁盛)에 매어있다는것에 대한 리해를 기초로 하고 있는것이다。

국제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조국—쏘련은 민족적독립과 제민족의 자결권을 위한 가장 견실한 지주(支柱)이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평등과 민족자주권을 위한 담보인것이다。 쏘베트사회주의 문화는 전인류에대한 햇불이며 전세계인류문화의 최고봉인것이다。 레닌—쓰딸린적 세계관은 과학적이며 가장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유일한 세계관인것이다。 현시에 있어서는 자기인민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조국 자기언어 자기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나라에대한 성실하며 진정한 애국적인 사람은 쏘련에대한 귀의자(歸依者)인것이며 즉 진정한 국제주의자인것이다。 자기인민을 사랑한다는것과 또한 국제주의자가 된다는것은—즉 위대한 사회주의十월 혁명은 새시대를 열어놓았다는것을 인정하며 국제프로레타리아트는 一九一七년에 벌써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는 것과 또한 그것을 모범으로하여 장차 모든 인민과 국가를 개혁할 자기의 조국—쏘련을 창설하였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국제주의자가 된다는 것은—즉 백방으로 이 조국을 강화하며 자기의 투쟁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조국에 의거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따라서 국제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조국으로서 쏘련을 옹호하는것은 비단 쏘련공민들의 신성한 의무일뿐만아니라 세계 매개인사(人士)의 성실한 의무이기도한것이다。

따라서 쏘련공민에게 프로레타리아트 국제주의가 없는 쏘베트 애국주의란 도저히 생각할수도없음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모국으로서 국제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조국으로서의 쏘련에대한 헌신적인 귀의(歸依)가 없는 쏘련국외의 매개국가의 근로자, 로동자 사회주의자들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것도 도저히 생각할수없는것이다。

八、공산주의와 민족자주권을 위한 투쟁

현재정세는 쏘베트동맹의 국제적위신의 후단한 강화, 일련(一連)의 신민주주의국가들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에로의 전진, 전세계에 있어서의 광대한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의 제고,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전쟁과 반동과 제국주의적압박과 예속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광대한 운동으로서 특징지어진다。 많은 자본주의국가 및 식민지국가의 인민들은 현재 자기조국의, 민족의, 인민의, 리익의 수호에대한 령도권을 로동계급과 그들의 당에 위임할것이라는것을 완전히 깨닫게되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은 자기나라의 민족과 인민의 기본적 리익에 충성하며 견실한 수호자로서 신뢰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한것이다。 공산당은 현재 많은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대중적 정당으로 되었으며 거대한 정치적 세력으로 되고있다。 부르죠아정부와 소위 『사회주의적』이라는 정부들은 점점더 인민대중의 신임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들의 매국적이며 반역적인 정책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으며 오직 미국의 독점가과두정치(獨占家寡頭政治)의 비밀적 또는 공공연한 경제적 및 군사적 지원(支援)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흉악한 인민의 적으로서 로골적으로 출현하고 있는것이다。

지배계급인 부르죠아지와 그들을 지지하고있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은 근로적 계급이 자기 모국의 주인이 되지않는다면, 자기조국의 주인이되지 않는다면 자기나라를 미국제국주의의 반식민지의 상태에로 전락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을 위수로하는 인민전선과 이와대립하고있는 미국제국주의자들과 야합(野合)하는 반인민적정부—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현

시의 세력 배렬(配列)은 이러한것이다。

자본주의국가들의 인민들 앞에는 지금 다음과같은 문제가 나서고 있다。즉 민족적독립의 완전한 상실, 경제와 민족문화의 파멸, 미국제국주의에의 예속과 민족반역자의 정당인『미국』당의 정치적 지배인가 그렇지않으며는 민주주의와 평화를위한, 인민주권을위한, 자유와 국가의 독립및 생활의 모든 부면의 근본적인 사회주의적 개조—이길은 인류의 압도적인 다대수의 기본적인 절실한 리익에 부합하는 길인 공산주의에로의 길이다。—인가하는 문제이다。세계의 모든인민들은 어쨌든 이길로 나가고 있는것이다。그것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위한 투쟁외에는 전쟁, 공황, 파시즘 및 제국주의적 압박으로부터 구제될수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련의 국가(불란서, 이태리등)에서는 대중적인 공산당의 존재하에 로동계급은 국가의 정치생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역활을 놓고있다。그들은 자기나라의 운명에대한 책임을 지고있는것이다。—협조주의자들의 소원(所願)하는 바와같이 계급협조에 의하여 조국의 운명에대한 책임을 부르죠아지와『분담(分担)』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에 있어서 자립적인 계급적 로선을 시행함으로써 책임을 지는것이다。이들 국가에 있어서 로동계급은 아직 주권을 잡지못하고 있다。그러나 그들은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분렬행동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실상으로는 민족의 기본적 핵심(核心)으로 되고있으며 그의 우수한 요소들의 선두에 서고있으며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대중을 령도하고 있는것이다。

일련의 국가들에 있어서 부르죠아정부는 외국고용인의 정부로 되었으며 본질상으로는 미국대사관의 지부(支部)로 변하고있다。서반아의 프랑코, 희랍의 찰다리스, 중국의 장개석, 이태리의 데가스페리, 불라서의 슈—만 케이및 그들의 도당은 오직 그들의 주인—미국반동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군사적 경제적 및 정치적 지원(支援)의 혜택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것이다。반동부르죠아지들은 현재에는 전체민족과 대립하고 있으며 모든 그들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자신을 자기민족으로부터 제외(除外)하고 있는것이다。그러고 그들의 조국은 벌써 자기의 모국인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무하고있는 미국이 그들의 조국인것이다。

미국제국주의와는 현재 인민들의 자유와 민족적 독립의 교살자의 역활로써 출연하고있다。미제국주의자들은 레닌이 언젠가 약소민족의 독립과 자유의 교살자, 사형집행인, 헌병의 역활이라고 규정한 바로 그 역활을 미국의『자유로운』공민들에게 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는것이다。미국의 로동자들은 이러한 위한성과 이러한 전망(展望)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것이다。그들은『자기나라』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위한 견지(見地)로서가 아니라,『좋던 나쁘던 나의 나라다』라는 영국의 배외주의적인 격언(格言)의 견지로서가 아니라 전체 국제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을 위한 견지로부터, 혁명적 해방투쟁과 전세계에서 자본주의 종말의 촉진을위한 견지로부터 정치문제를 취급하는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이 견지로 볼때 미국로동자들은 그들의 주인—제국주의자들의 제국주의적 계획들을 파괴할것을 희망할뿐만아니라 적극적으로 파괴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는것이다。이러한 제국주의적 계획들의 실현은 비단 다른나라의 인민들에 대하여서뿐만아니라 미국자체의 인민들에게도 더 심한 제 권리의 억제(抑制), 로동운동의 탄압 및 국내에 남아있는 민주주의의 모든 잔여(殘餘)의 소멸을 가져오는것이다。

타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방위하는것은 현시의 조건하에 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트 및 전체근로자들의 가장 중요한 계급적 정치적 과업인것이다。

구라파 근로대중들의 외국간섭자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은 착취자를 반대하는—국내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계급—해방투쟁과 합류(合流)하고 있는것이다。

자기나라의 국가적독립을 위한 미국제국주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가기 위한 투쟁은 자유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의 미래(未來)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인것이다。자기나라를 미국자본의 침입으로부터 방위할다는것은 절대로 부르죠아—자본주의적 조국을 방위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그와반대로 이것은 그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로보아 또 그자체의 방향(方向)으로보아 자본주의적 조국의 청산을위한 그리고 모든 주권이 인민에게 속할 인민민주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조국의 창건을 위한 투쟁인 것이다。

멀지않은 과거에 있어서 평화애호인민들을 반대하여 전쟁을 감행하고, 혹심한 패배를 당한 나라들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의 민족적자유, 경제적 정치적 및 령토적 자주권의 열렬한 옹호자로서 쏘베토동맹은 출연하고 있다。주지하는 바와같이 미국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사환군들은 독일을 분렬하였고 독일인민들로부터 민족적통일과 자주적인 국가존재에대한 권리를 박탈한것이다。그러나 쏘련은 이와반대로 독일인민들의 민족적통일과 독일령토의 완전한 통일적 보전(保全)을 견결히 주장

하고있다。

쏘베트인민들은 레닌—쓰딸린당에 의하여 철저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교양되고 있다。히틀러 도당과 독일인민 및 독일국가를 동일시(同一視)하는것은 우수운 일로 될것이다。『히틀러도당은 오고 그러고 갈것이나 그러나 독일인민과 독일국가는 그냥 남아있을것이다』(쓰딸린『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五판 四六페지)라고 쓰딸린동지는 一九四二년에 썼던것이다。

쏘베트동맹의 정책은 모든 민족들에대한 존중성으로 충만(充滿)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정책、파시스트적 인종차별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제국주의적 압박을 반대하고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정책이었었으며 또 현재에도 그러한것이다。

쏘련의 대외정책 및 그 실천과 제국주의제국의 대외정책 및 그 실천과는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것은 누구나 알수있는것이다。조선으로부터의 자기군대의 철거에대한 쏘련정부의 결정은 여기에대한 새로운 웅변적인 증거이다。

제국주의 앞잡이 문사들이 인종차별론을 강력하게 선전하고 있으며 안그로삭쏜족의『우월성』과『특수한 사명(使命)』에 대하여 떠들고 있으며 이것으로써 약소민족에대한 지배정책과 불평등조약정책의 근거로 삼으려고 기도하고있는 이때에 쓰딸린동지는 一九四八년 四월七일 분란(芬蘭)정부대표단 영접(迎接)시의 연설에서 또다시 제민족간의 호상관계에 대한 부르죠아—제국주의적 견해에 맑쓰—레닌적 쏘베트의 견해를 대치시켰던것이다。

『강대국 정치활동가들중에는 약소민족을 강대국민족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않다。이들의 다대수는 약소민족들을 위로부터 나려다 본다。이들은 간혹 약소민족을 일면적으로 보장하는것은 싫어하지않는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정치활동가들은 약소민족을 자기의 상대자로 인정하지않기때문에 약소민족과 동등한 조약을 체결하지않는다』

오직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정책만이 옳게 리해(理解)된 전세계인민들의 리익에 부합하는 정당하며 진정하며 철저한 정책인것이다。전세계 근로자들속에 쏘련의 위신이 거대하게 장성한것도 이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모든 국가의 인민들은 쏘베트동맹에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으며 쏘련의 목소리를 듣고있으며 자기나라의『미국당』들을 경멸(輕蔑)배척(排斥)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제국주의로부터의 민족적 독립을위한 자본주의 제국의 근로자들의 투쟁은 자기조국을위한 투쟁이며 자기인민을 위한투쟁인 동시에 자기의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인것이다。프로레타리아 국제

주의는 민족적 독립의 옹호와 합치하는것이다。민족적 독립을위한 투쟁은 민주주의를 위한、평화를 위한、사회의 사회주의적 변혁을위한 투쟁과 합류(合流)되는것이다。현시의 정세하에 있어서 민족해방투쟁의 길은 우리시대에 있어서의 기타의 모든길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로 인도하고 있는것이다。

× × ×

우렬(愚劣)한 부르죠아문사들은 민족적 자부심에 대하여、애국주의에 대하여、위대한 조국의 리념(理念)에 대하여 목이 터지게 소리쳤던것이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마치 민족과 모국과 조국을 부인한다고 거짓된 비난을 하였었다。얼마나한 엉터리인가! 공산주의자들은 맑쓰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에 그들은 충실한 자기민족의 아들이라는것을、그들은 민족적 자랑에대한 감정에 가득찬 진정한 애국주의자 라는것을、다만 그들만이 진정한 인민적—사회주의적 조국의 창건을위한 투쟁과 낡은 세계의 모든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조국방위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대중의 선두에 설수있다는것을 전세계에 표명한것이다。

세계최초(最初)의 로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조국의 三十년의 력사는 사회주의나라에서는 인민적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의 조국에대한 사랑과 공산주의를 위한 사업에대한 헌신(獻身)은 서로 분리할수없이 련계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고 있는것이다。쏘련에 있어서의 쏘베트애국주의의 발전은、대중에게 체득(体得)된 사상은 위력(威力)있는 물질적 력량이 된다는데대한 빛나는 실례(實例)인것이다。쓰딸린동지는 우리사회의 공산주의에로의 더한층 전진은 쏘베트애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인민대중의 의식속에 침투(浸透)됨과 련계되어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맑쓰、엥겔쓰、레닌 및 쓰딸린의 저작에서 조국、인민、애국주의、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대한 심각한 리론적 명제(命題)들이 전개되고 있는것이다。거기에는 현시에 있어서 특별한 현실성(現實性)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대한 취급방법도 포함되고 있는것이다。여기에 관하여서는 쓰딸린동지의 민족문제에대한 고전적인 저작『十월혁명의 국제적성질』에대한 저작、당대회에 있어서의 력사적인 결산보고들 및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있어서의 연설들이 가지는 의의를 특히 강조하지않으면 안되는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쏘베트애국주의와 사회주의문화、이데올로기、도덕、정치가 자본주의 정치、도덕、이데올로기문화보다 우월(優越)하다는 의식에 기초하고있는 쏘베트적 민족적 자랑의 본질에 대한 심각

하며 훌륭한 과학적인 정의(定義)를 주었으며 특징을 규정하여 준것이다。

사회주의문화가 부르죠아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의식, 자기의 조국과 자기의 인민에대한 사랑의 교양, 민족의 리익에대한 옳은 리해(理解)는 사회주의와 합치한다는데대한 의식—모든 이것들은 민족적 자주권및 독립을 반대하는자들과 투쟁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형제적 공산당들도 고무(鼓舞)하여주고 있으며 제국주의진영의 위선적이며 추악한 적들의 공격을 격퇴하는것을 방조하여주며 그리고 전반적인 반제국주의적 및 민주주의적 강령에 기초하여 대중을 단결시키고 련합하는 사업을 더한층 성공적으로 진행하는것을 방조하여 주고있는것이다。

다른부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길과 우리들의 파업과 또한 우리들의 사업은 쓰딸린의 천재(天才)적 태양(太陽)이 밝혀주고 있는것이다。

(「철학제문제」一九四八년 二(四)호)

전쟁 방화자에 복무하는 우익사회주의자들

브·뽀노마료브

위대한 레닌은 자본주의압박으로부터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해방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지도하면서 부르죠아지는 로동운동을 반대하며 자기주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두가지의 기본적 방법 즉 혹심한 공개적 폭력과 사회민주주의 대변자들을 통하여 로동운동을 파괴하는 방법을 리용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치었다。

「전세계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에서—레닌은 쓰기를— 부르죠아지는 로동운동 및 로동자당과의 투쟁에서 두가지 방법을 요구한다。첫째 방법은 폭력, 박해, 금지, 탄압이다。이것은 대체로 농노적 중세기적 방법이다。 도처에서 —선진국가에서는 적게 락후된 국가에서는 더많이— 이 방법을 즐겨 쓰는 부르죠아층과 구루빠들은 주지하는바와 같이 고용노예제를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이 특히 극도의 모멘트에 달하였을 때에 이 방법은 모든 온갖 부르죠아지들을 동원시킨다。운동을 반대하는 부르죠아지의 다른 투쟁방법은 로동계급의 분렬, 그의 대렬의 파괴, 부르죠아층에 그들을 인입시킬 목적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의 각개 대표자나 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각개 그루빠들을 매수하는 것이다。이러한 종류의 방법은 농노적으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과 문명적 칠서에 해당되는 순전한 부르죠아적 현대적 방법인 것이다…」(전집 二十권 四二五 페지)

그리하여 제二차세계대전에서 쏘련이 승리하고 독일 이태리 및 기타국가들에서 파시즘이 패망된 결과에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들은 자본주의를 구원하는 일에서 반농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인입시킴에 특별한 역활을 놓고 있다。이것은 부르죠아지가 자기 지배를 보존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개적 테로적 방법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전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와 반대로 제二차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그들은 이 방면에서 또한 우익사

회당들의 진영으로부터 자기의 번견(番犬)들의 방조를 리용하면서 그와 류사한 방법들을 보다더 자주 사용한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오늘 제국주의 반민주주의 진영의 부대중 하나로 되고 있다。아·아·스다노브가 수개국공산당 대표자들의 보도회의에서 한 보고와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서에서 내리운 현시기에 있어서의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역활에 대한 평가가 전적으로 정당함을 보여 준다。회의선언서에는『제국주의자들의 전술적 수단의 무기고(武器庫)에 있어서 특수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것은 제국주의 정책의 진정한 략탈적 본질을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적 연구(言句)로써 은폐하려고 시도하며 사실에 있어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졸도이며 근로계급의 대렬내에 분렬을 가져오며 그의 의식을 독살(毒殺)하는 불란서에 있어서는 불룸、영국에 있어서는 애틀리 및 베빈、독일에 있어서는 슈마헤르、오지리에 있어서는 렌게르 및 세르프、이태리에 있어서는 사라가트 기타와 같은 전형(典型)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반역적 정책의 리용인 것이다』고 말하였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은 가장 충실한 가장 열성적인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자로 출연하는 것이다。미제국주의의 침략적 계획과 더부러 그들은 전쟁으로 무력해진 자본주의를 보존함에 자기들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그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함께 오늘 쏘베트동맹 및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하여서와 도처에서 장성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세력에 대한 잔인(殘忍)한 증오로써 결합한다。사회—민주당들은『미국당』『마샬안』의 당으로써 나선다。서구라파국가들을 노예화하는 계획을 위하여 그들은 미제국주의의 모든 철면피적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집단으로 된다。우익 사회주의자들은『마샬안』의 실시를 자기의 국제적 및 국내적 활동에 복종시킨다。실제에 있어서 이『계획』의 실천을 원조하는 것은 파산된 제二국제당의 이번 전쟁후의 후손(後孫)들의 꼼미스교(국제사회민주당콤페렌챠) 활동의 기본적 내용을 이룬다。

우익사회주의 수령들은『마샬안』에 봉사하는것으로써 그의 팽창주의적 목적의 현실화를 위한 전적 강화를 요구한다。독일을 분렬하며 구라파를 두그루빠의 국가들로 분렬함은 구라파에서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을 탄압하며 반(反)쏘베트적 뿔럭을 형성하여 앙글로—아메리카뿔럭의 전쟁계획을 실시하는 모든것에 있어서 우익 사회주의 수령들은 맹렬히 노력한다。

독일문제에 있어서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완전히 미제국주의의 립장에 립각하였다。그들은 독일의 분렬과 독일제국주의 부흥정책을 지지 찬동하였다。그들은 독일산업국유화에 대한 모든 말과 대중에게 한 약속들을 내버려치웠다。독일분렬과 서부독일국가 창설에 대한 결정을 결의한 六개국가의 단독(單獨)런던 콤페렌챠는 영국 레이버리스트와 불란서 사회주의자들의 이 사업에 참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다。런던 단독(單獨) 콤페렌챠가 끝나자마자 우익사회당들의 원 콤페렌챠가 역시 런던결정을 찬동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독일문제에 있어서의 서구라파렬강들의 모든 앞으로의 활동은—독일서부점령지대에서의 단독(單獨) 화폐개혁 실시、선동적 목적으로서 베르린『위기』의 조성과 첨예화、베르린문제에 대한 四대강국이 이전에 달성한 협정의 실행을 파괴하는것、유·엔헌장에 위반되는 베르린에 대한 문제를 안전보장리사회에 전가(轉稼)시키는 것—이 모든 침략적 정책이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참가와 전적 찬동하에서 진행되었던것이다。영국 레이버리스트들의 지도는 과거에 히틀러군대를 무장시킨 루루의 대자본가의 원조로써 루루를 앞으로 군사—산업무기고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지향되며 그의 비조니야 점령 주권에 대한 최후결정에 직접적인 책임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레이버리스트들은 그와 동시에 서부독일을 위한 미국팽창주의자들과 함께 역시 견고한 평화와 국제안전의 리해와는 아무러한 공통성도 가지지 않는『점령정관(占領定款)』을 강요한 책임도 역시 감당하여야 할것이다。

구라파를 예속화하려는 미국계획의 실천에서의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은 미국제국주의자들의 찬사(讚辭)축하를 받는다。구라파에서『마샬안』의 실현에 있어서 아메리카합중국의 특별대표인 하리만은 우익사회주의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우리의 공동사업에서……구라파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구라파에 있어서의 아메리카합중국의 위대한 가능한 동맹자로된다』이 악질적 제국주의자의 언명은 미제국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노복적(奴僕的) 역활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로 된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업과 그의 가장 흉악한 기도를 철저하게 실행한다。즉 영국 레이버리스트들은 서구라파 군사뿔럭의 조직자로 된다。一九四八년一월二十二일에 베빈은 영국 하원(下院)에서 이러한 뿔럭의 형성에 대한 제의를 가지고서 출현하였다。레이버리스트수령들의 발의(發意)는 불란서、베르기、화란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의 공명(共鳴)을 받았고 독일 사회—민주당과 오지리사회민주주의자들의 요란스러운찬성을받았다。

이 군사뿔력이「공산주의에 대한 방어」의 목적을 가지고 창설된 것이라는데관한 베빈、불룸、스빠크 및 기타들의 말은 다만 우익사회주의 괴수들이 독일 파시스트의 방법을 차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다。히틀러가 역시「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방어」에 대한 말로 은폐되어가지고서 제二차 세계대전을 준비했던 것이다。더우기 최근에 와서「방어」에 대한 선언은 공공연한 조전적(挑戰的)출연으로 바뀌어졌다。—서구라파 강국들에 의하여 선동적으로 조성된「베르린 위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一九四八년 九월 二十二일 하원(下院)에서 한 자기연설에서 베빈은 영국 정책이 아메리카합중국의 정책과「절대 일치」한다는데 대하여 의원들을 확신시켰다。베빈은 첨부하여 말하기를「나는 이것으로써 우리들이 전쟁하는 것을 책임진다는데 대하여서는 말하려고 하지않는다。우리들은 아직 이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고、이것으로써 레이버리스트의 수령들이 원칙상으로 전쟁을 위한 미제국주의진지에 서는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된다。문제는 다만 그들이 아직「이 단계가 도달되지못한」데만 있는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서부 뿔력에 참가시킬 새 상대자들을 탐색함에 있어서 우선 베빈은 스칸지나비야제국에서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선두에 서는 그의 대표자들을 몰려세웠다。최근 몇달전 사이에 스칸지나비야 우익사회주의자들 특히 노르웨이、정말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이 로동계급과 광범한 근로대중의 경각심을 기만하며 스칸지나비야를 서부뿔력의「북부익(北部翼)」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향도(嚮導)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집중시키고 있다。노르웨이의 외무대신 란게는「노르웨이는 베빈의 제의의 결과에 발생된 운동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고 확신하였다。더우기 사회민주당 부위원장인 정말 알리신그·안트레센은 로골적으로 표시한다。그들은「정말은 영국과함께 같은 렬(列)의 참호(塹壕)에 서게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최근에 와서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함께 반동적 제국주의 계획의 실현에서 무기중 하나로 되며 서구라파국가 이외에도 역시 카나다 그리고 아메리카합중국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될 대서양뿔력을 모집하고 있다。

오지리 사회주의자들도 반(反)쏘베트적 서부뿔력에 가담할 준비를 갖추려고 황급해졌다。一九四八년十월十八일에 바바리야에서 출판되는 미국기관지「네이예·체이뚱」신문은—렌네르와의 인터뷰를 발표하였다。그에서 렌네르는「만일 대단히 심중한 결과를 가져올수있는 구라파의 분렬 더 나아가서 쏘련을 반대하는 서부뿔력의 창설이 불피코 성립될

다면 물론 오지리를 위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렌네르는 오지리가「서부」와 련합되는 해결의 징후(徵候)를 충실하게 민고 있다。

「방어」에 대한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허위(虛僞)는 막대한 리익을 거두는 미국 독점가들이 조직하는 무장의 열광적 추구(追求)에 적극 참가하는 것으로써 충분히 폭로되었다。「방어」에 대한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말은 주지하는바와 같이 역시 그들이 군비축소와 혹독한 침략적 도구로 되는 원자무기를 금지하자는 쏘베트제의를 계속적으로 반대한 것으로써 폭로되었다。「방어」에 대한 발명은 우익사회당들이 변함없이 행하고있는 대렬강들의 협조를 반대하는 투쟁으로서도 또한 론박된다。일찌기 一九四八년四월에 스빠크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서 서부뿔력을 위한「군사적 담보」를 받을 목적으로써 아메리카합중국의 려행을 꿀바치었다。四월八일의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스빠크는 파렴치하게도 담보에 대하여「조심 깊은 동의(同意)」라는것을 암시하여 말하였다。스빠크는 이 문제에 련관에서 구라파에……아메리카합중국의 국경이 있었다는 것을 확언하였다。一九四八년九월에 있은 유·엔총회에서 스빠크는 로씨야와 전쟁할데 대하여 확언하였다。왜냐하면 라인……에서 로씨야를 감각하게 되는까닭이라고 확언하였다。스빠크의 계획은 즉 마치 라인에 로씨야사람들이 가까이 온다는 그러한 구실하에서 라인에 미국사람들을 부르자는 것이 명백하다。스빠크는 이러하여 자기의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하였다。

오늘에와서 특히 우익사회주의 가면은 특히 명백한바 그들은「마샬안」이 구라파를 부흥하는 사업의「원조」로 되며「마샬안」이 없이는 전후 구라파안전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류포하기를 계속한다。사실에 있어서「마샬안」은 아메리카합중국에 의하여 구라파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를 예속시키며 전쟁모험에로 서구라파국가들을 인입시킨다。현재 영국 레이버리스트의 창의에 의하여서와 구라파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련합하에서 구라파 인민에게 힘에 겨운 무장 경쟁을 실시하며 각종의 모험적 군사뿔력을 뚜드려 몹고 있다。

一九四八년 九월 十四일 레이버당의 지도자인 헤르베르트·모리손은 련던에서의 하원(下院)회의에서 영국정부의 전쟁정책에 대하여 전달하였다。이정책 예산중에는 영국군대의 동원해제(動員解除)의 정지、전후기생산의 배가(倍加)、평화산업부문에서 군사산업부문에로의 일부로동자들의 이동등이다。련던에서 발간되는 공산당 신문「데일리·워커」지는 이 성명은「전쟁과 전쟁준비에 정부가 그 열

마나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것을 증명한다」라고 썼다。우익레이버리스트들은 十二개월로부터 十八개월까지 군사복무기간을 연장함에 대한 법령을 채택할 것을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영국 출판물에 보도된 통계에 의하면 최근三년간에 영국은 국외 군사비용에만 七억四천五백만폰드를 허비하였다 한다。영국의 직접군사비용은 최근에 재정예산의 二五%에 해당된다。불란서 군사비용은 一九四八년에 四五〇만프랑으로 된다。노루웨이 정부는 一九四八년十一월에 군사비용에 一一二만크론의 추가 지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부룻셀협약에 참가한 五대국가의 최근회의에서는 몬트고메리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군사위원회가 창설되었다。이는 미영 합동 군사 참모부의 직능을 계속한다。레이버리스트의 지도층의 동반자중에서 대부리텐과 아메리카합중국간에 체결되는 二十五개년기간의 비밀군사동맹에 대하여 보도한다。즉 부리텐 섬(島)의 령토위에 미국군대가 상륙하는데 관한 것이다。아메리카합중국과 영국의 출판물은 베르린의 서부지대에 수송(輸送)을 수행함에 있어서의『공중의 다리(空中橋)』가 된다는 것과 아메리카합중국과 영국의 군사—전략적 정책을 제공한다는데 대하여 숨기지못한다。영국 레이버리스트들을 선두로하는 우익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침략의 공공연한 준비로 되는 활동에서의『방어』란 이러한 것이다。

이 방향에서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모든 대외활동도 진행된다。그들의 적극적인 참가하에서 마샬은 一九四七년十二월에 외상 회의를 실패에 돌아가게 하였다。최근 유·엔총회에서 자체를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업에 빠뜨리고 자체를 사회주의적 인형(人形)으로 되게하였다。쏘베트동맹에 대한 완전한 비방적 독설(毒舌)의 가장 추악스러운 연설은 베빈、마크네이르、스빠크 라마디에에 의하여 진술되었던 것이다。영국 레이버리스트들은 유·엔을 그들의 침략적 정책의 도구로 변화하며 내종으로 그를 파괴하려고 예상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원조하기위하여 전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바로 베빈은 췻차례로 유·엔총회에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지방련합 즉 군사—정치 뿔럭으로 대신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원자무기 금지 및 五대강국의 무장 및 군사력의 三분의一의 축소와 이 제방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통제기관(國際統制機關)을 안전리사회의 범위내에서 형성하자는데 대한 쏘베트제의를 반대하여 출연하였다。영국、불란서、베르기、약간의 기타국가들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대표자들은 전반적 평화의 강화에로 인도되는 쏘베

트의 제의를 뒤집기 위해서와 그의 채용을 허용하지 않기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였다。그것으로써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또한번 제국주의적 전쟁방화자들과 한판(板)에 서있다는 것과 그들이 악귀보다 더하게 국제적일치협동책(國際的一致協同策)을 두려워한다는것을 공공연히 보여준다。

『불란서 인민은 쏘베트동맹과 언제든지 전쟁하지 않을것이며 않는다』는 불란서 공산당의 성명은 우익 사회주의자들에대한 증오의 진정한 폭발을 환기하는 것이다。그것으로써 그들은 자기의 침략적 반(反)쏘베트적 기도를 폭로하였다。

가장 악독한 침략적 분자들과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완전한 합작은 전후 전쟁선동을 금지하여 군비확장 광(狂)들을 반대하는 대책을 수립함을 그들은 추호도 소원하지않는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이다。一九四八년十一월二十四일에 공산주의자 뻬레찐은 쏘베트동맹을 반대하는 원자전쟁 개시를 호소한 베리트란·라쎌의 성명에 대한 에트리의 주의를 환기하였다。에트리는 그와 같은 성명을 반대하여 어떤 수단을 취하기를 거절하였으며 심지어『침략전쟁 선동광포의 가능성을 형법상죄(刑法上罪)로써 심의하는』것까지 거절하였던 것이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인만 민주주의 제국을 몹씨 증오시한다。경제적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의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성과가 보다 현저할쑤록 우익사회주의자들은 그에 보다 더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게된다。一九四八년二월의 체코슬로바키야사건에 있어서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발악적으로 출현하기를 기도하였었다。그때에 체코슬로바키야의 근로자들은 반동 도당들을 패망 시켰다。영국레이버당의 민족위원회는 심지어 비상성명으로써 출현하였다。황차 이 문서보다 더 위선적인 문서(文書)는 상상하기가 어렵다。문헌 반역행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반동적인 도당들을 옹호하여 파렴치하게 출연하였다。우익사회주의자들의 진술을 서반아 프랑코도배와 희랍 왕당파시스트、토이기의 흑색반동주의자들은 환희로써 합창하게되었다。영국 레이버리스트 크로스만은 체코슬로바키야를 방문하고서 체코슬로바키야에서는 로동자계급이 공산당을 따르는바 이것을 리해하지못하는 자는 체코슬로바키야사변에 대하여 아무것도 리해하지 못한다는것을 불쾌히 여기면서도 하는수없이 자인하였다。즉 그런고로 우익사회주의자들은 크로스만까지 넣어서 신(新)체코슬로바키야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계속한다。

미국과 영국 탐정의 과업에 의한 우익사회주의자들이 간첩적、유격적행위가 가장 많이 명백히 나타났다。독일의 다수 사회민주주의 조직체들이 미

국과 영국 탐정의 지부로 변하였다。 텔레쁘레쓰통신사가 전하는바에 의하면 『베르린네르・체에이뚱』지는 간노베루(독일의 영국 군정지대)에서 사회민주당은 독일 쏘베트군정지대에서 파괴공작의 실시를 위한 중앙기관으로 되는 특별『동부 뷰로』를 창설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동부 뷰로』는 『동부 피난자들의 보호기관』의 공식적 간판하에 은폐되어 가지고서 쏘베트 지대에 간첩들을 파견하며 쏘베트군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독일쏘베트군정지대에서의 경제적 생활을 교란함에 지도되는 해독사업과 방화 기타 태공행위를 조직한다。

一九四八년十二월二일에 『동부 뷰로』의 관리 카르라게인짜・슘미드리가 독일에서의 쏘베트군정을 제멋대로 기술한 『포르베르트스』지와 기타 베르린 신문에 발표한 성명에서 본 『뷰로』의 활동과 독일 사회—민주당의 상층부의 간첩적 활동의 수다한 사실들을 포함하였었다。 슘미드리는 특히 독일 사회—민주당 출판부의 지도자——영국대리인 프리쯔・게이네—를 미국과 영국의 탐정으로써 쿠르뜨・슈마헤르에게 파견하는 『동부 뷰로』 대변자의 모든 보도를 전하였다。 우익사회주의 활동가와 미국 영국의 탐정과의 이와같은 『합작』、 직접적 고용인과 유급탐정으로서의 『사회주의자』의 변생(變生)은 다수 사회—민주당에 있어서의 가장 많은 형태로된다。

인민민주주의 제국에서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영—미탐정에 복무함에 완전히 나섰다。 불가리야에서 룰체브 그루빠와 파란사회당의 이전 지도자중의 한 사람인 뿌쟈끄를 선두로한 파란의 지하자유평등독립단체(地下自由平等獨立團体)의 참가자의 공판사건과 기타 공판사건들은 이 국가들에서 우익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어떻게 파시스트지하(地下)단체와 련결되어 공공연한 반역의 길로 나아가며 영—미제국주의자들에게 복무하는 대변자와 파괴분자로 전변되었는가를 보이어주고있다。 사건행정에서 한방면으로는 영국과 미국과 더부러 다른방면으로는—레이버당과 꼼미쓰끄와 더부러 관련된—사회주의적 스파이의 비밀단체가 명백해졌다。 특징적인것은 미국 국무성과 영국 레이버당의 집행위원회 비서 필립쁘쓰와 그리고 꼼미스끄는 룰체브와 뿌쟈크 그의 도당의 공모자들의 판결을 반대하여 조급하게 항의성명을 하였다。 사회—민주주의 폐물(廢物)의 운명을 위한 그들의 불안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을 전복시키려는 간첩적 파괴적 활동을 추향하며 미영제국주의자들은 가장 추악하고 범죄적인 과업 실행에 자기의 신뢰(信賴)할수있는 대변자 즉 준비된자로써 우익 사회주의자들을 잘 보고있는 바이다。

× × ×

우익사회주의자들의 현저한 반동적 활동부대(部隊)는 그들이 근로자들을 분렬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공산주의를 박해하며 민주주의운동을 반대하는 대렬로된다。 최근시기의 력사는 극단적 반동그루빠 우선 독일팟쇼가 첫차례로 로동운동의 분렬과 교살을 수행하여 배후(背後)의 『청산』을 실시하고서 침략적 전쟁을 준비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여기에서 타인민을 노예화하는 략탈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반대자로서의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는데로 근본적 공격이 돌려진다。 히틀러 독일과 팟쇼 이태리가 이와같은 정책의 직관적인 표본으로 된다。 현재 반(反)공산주의 행진의 첫대렬에 영국 불란서 이태리 기타 서구라파국가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이 나선다。

로동계급의 단결은 전시에 더욱 장성되었고 전후시기에 계속하여 강화되어 강유력한 력량으로 되었다。 그는 제국주의 반동적 계획을 반대하여 굳게선다。 『인민들은 전쟁을 원치않는다』는 쓰딸린 동지의 말은 매일매일 더확증된다。

거대한 국제민주주의 제단체—국제직업련맹 국제민주녀성동맹 국제민주청년동맹 및 수많은 다른단체들—는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천만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평화를 위하여 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여 나서고있다。 이와 다른 수다한 단체들은 자기들의 회의에서 제국주의적계획을 폭로하며 침략의 구체적 범죄자들을 지적하며 로동계급과 모든 평화옹호자들에게 전쟁방화자들을 규탄하며 그들의 계획을 파괴함에 호소한다。

이 국제적 및 민족적단체 그중에는 첫차례로 로동운동단체의 활동은 전인류의 행복을 고수하면서 우익사회주의자들과 그의 주인의 많은 계획을 파멸 시킨다。 때문에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 단체내에서의 완강하고도 교활한 활동을 실시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의사를 집행하면서 우익사회주의자들은 국제직업련맹의 대렬내에서의 분렬과 국제직업련맹의 분렬을 획취(獲取)하려고 힘을 다하여 노력한다。 국제직업련맹을 반대하는 파괴적 활동의 중앙으로서는 레이버당이다。 一九四七년十二월에 아메리카합중국에서 국무성의 창의에 의하여 아메리카로동련맹(아프트)의 지도자 그린、두빈、우올라와 영국 외무성 대표자 메이킨즈、이회의에 특별 파견대표자인 베빈의 참가로써 조직된 비밀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국제직업련맹을 분렬하려는 계획을 작성하였고 그리고 영국 트레드유니온 두목들의 생활을 집어넣기로 하였다。 트레드유니온중앙상임위원회의 시도를 인입한 국제직업련맹의 집행위원회에 『마샬안』을 찬성할것을 강요하

고 련던에서 一九四八년三월과 六월에 『마샬안』을 포함시키는 두 국가의 직업동맹 콘페렌챠가 소집되었었다。 첫 콘페렌챠는 『직업동맹협의위원회』를 창설하였고 제二차회의는—콘페렌챠의 상설(常設) 서기부(書記部)를 형성하였다。 구라파에서 량콘페렌챠에 적극적인 참가자로되는 아메리카로동련맹의 반동적 상층부의 전권대표 (全權代表) 이르빙 브라운은 새 국제직업동맹 중앙을 조직하는 길에서 제一보로되는 상설적 서기부의 창설을 특징지었다。 총최고위원회의 지도자들은 부라운이 다만 『자기』관점만을 표명하였을뿐이라고 론증하나 그들이 소집하는 콘페렌챠들과 그들이 조직하는 『위원회』들의 내용은 국제직업 련맹을 대치한 새 국제직업련맹중앙을 조성하기위한 준비인 것이다。

최근의 사건들은 영국 레이버리스트와 트레드유니온 상층부의 모든 활동이 국제로동운동의 통일과 직업동맹통일을 청산할 계획의 일부였다는것을 완전히 확증한다。 一九四八년十一월二十七일 영국트레드유니온중앙상임위원회는 국제직업련맹활동의 『림시적 폐절(廢絕)』의 불가피성에 대한 결정과 그렇지않는 경우에는 그가 련맹으로부터 탈퇴하리라는 최후통첩적 성명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모든 영국의 부르죠아 반동출판물들은 일제히 이 결정에 응답하였다。『데이리·텔레그라프 앤드 모닝 포스트』는 그의 사설에서 『이 광포는 공개적 전쟁이다』라고 찬성하였다。『데이리·메일』은 특정적인 명칭을 가지는 『지금 일을 위하여!』라는 론설로써 출연하였다。 국제직업동맹 통일의 분렬에 대한 운동에서 현재 아메리카 합중국 생산직업동맹 콘크레스의 반동적 지도자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트레드유니온 중앙상임위원회와 관계를 취하고있다。

로동계급을 약화시키기위하여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매국가에서의 직업동맹운동의 분렬을 추향하고 있다。 특별히 불란서와 이태리에서 이 활동은 완강한 성질을 띠고있다。 불란서에서 우익사회주의자들과 개량주의자들에 의하여 『포르스·우비에르』단체가 조직되었다。 이태리에서 사라가트도배들이 이태리 로동총련맹내부의 파괴작업을 실시한다。 직업동맹내에서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은 미국의 지령과 미국의 수단에 의하여 실시되며 서구라파에서 조직적 민주주의적 로동운동을 패망시키려는 미국계획과 관련되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비밀이 아니다。 사회주의적 지도자들은 서구라파에서 아메리카 로동련맹의 대표자들과의 밀접한 련결하에서 활동하는바 다만 훈령적(訓令的) 선동적 문건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메리카 로동련맹의 지도자의 고백에 의하면 一억六천만 딸라로 계산되는 거대한 물

질적 수단으로써 제공한다。 미국 독점가들은 자기 직업동맹의 노복(奴僕)들의 손을 통하여 역시 서구라파의 근로자들속에서 파괴공작을 실시하는것을 더 즐겨 선택하게되는 것이다。 아메리카합중국의 전(前)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위원장이며 현(現) 미국 영화회사협회 위원장인 에리크·죤스톤은 이에 관하여 최근 즉『직업동맹 지도자들은 인민과 관계함에있어서 능숙했다。 다른 인민에게 미국식 부르죠아 민주주의에 대하여 말할때에 그들은 속히 믿는다』라고썼다。『그들을 더잘 믿을것이다』그럼으로써 대중을 용이하게 기만할수있는바 대중은 물론 월가의 금융 상어(鮫)들이『마샬안』같은것으로써 은폐하더라도 그들의 선책(善策)을 믿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지령에 의하여 실시된 구라파에서의 직업동맹파괴공작은 아메리카합중국의 침략적 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 이것은 이르빙·부라운이 一九四八년十월에『뉴—욕 포스트』지 통신원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하여 언명하여 시인하였다。

자본가들은 언제나 로동계급의 국제적단결을, 두려워하며 항상 그의 출현을 적대적으로 대한다。 자기자본주의 주인과도 류사하게 우익사회주의자들이 역시 제국주의적 반동과의 성과적 투쟁의 강화에로 인도하며 각국 로동계급의 계급적 단결의 발전을 어떻게 해서라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를 원치않는다。

조직적 로동운동의 발생과 함께 지금에와서 부르죠아지는 각국의 로동계급의 국제적 결속과 단결을 약화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 이러한 노력의 특별범위는 제국주의계단에 와서 더욱 가중(加重)된다。 그때는 지배계급들이 모든 수단을 다하여 국제적 계급적 결합의 근로자들의 정신을 부화(腐化)시키려고 노력하며 그의 민족주의와 배타주의로써 중독시킨다。 레닌은『호전적 부르죠아 민족주의로 부르죠아지편에로 인입시키기위하여 로동계급을 둔하게하며 마비시키며 부식(腐蝕)케한다。이것이 바로 현대의 기본적 현실이다』라고 썼다。(『레닌전집』 二十권 제四판 九페지)

현대 부르죠아 선동가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사상을 전적으로 더럽히려고 시도한다。그러나 부르죠아지와 그의 우익사회주의적 졸도들의 모든 노력에 반(反)하여 현대시기는 력사에서 착취자 계급들에게 발광적 적의(敵意)와 공포를 야기시키면서 근로자들의 단결과 결속의 미증유의 장성으로써 특징된다。 년년이 새로 수백만의 로동자들이『개별적 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의「민족적」과업을 국제주의적과업과 대립시키는것은 정치에서 심각한 오유를 범하는것이다』(전집九권 二八

폐지)라는 쓰말린적 사상으로써 침투된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이 근로자들의 사업의 사활적 중대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견지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들의 사상적 견해는 본질에 있어서 보수주의(保守主義)와 기타 부르죠아정당에 의하여 선동되는 그러한 견해와 아무차이도 없는것이다. 례하면 레이버당의「리론가」의 한사람 리찰드·크로스만은 一九四八년九월十일에「계급투쟁과 서부의정치적 전통」이라는 자기보고에서 마치 제자본주의국가에서는 계급투쟁과 착취자들이 거의 소멸된 결과에「위대한 전환이 생겼다」는데 대하여 확언하였다。크로쓰만은「력사발전의 력학적 동인(力學的動因)으로서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국가 투쟁」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크로스만에게 있어서 무엇때문에 자본주의사회의 적대적성질을 부인하며 계급투쟁을 국가투쟁으로 슬그머니 바꾸어 놓을 필요가 있었는가? 자본주의국가내부의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간의 불상용적모순이 없다는데 대하여 근로자대중의 정신에 불어넣기 위한 사명을 가진 이와같은 론의로써 계급조화 (階級調和)의 레이버리스트 정책을 주입하는 팔방(八方)기회주의적「리론적」기초를 이룬다。레이버리스트들은 계급투쟁의 과업은 타국가의 근로자들을 원조하며「조국」과 민족 부르조아지를 반대하여 투쟁함에 있는것이아니라 그와반대로 이 부르죠아지와 밀접히 통일되며 타국가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기를 시인하며 이에 우선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국가를 반대하는것을 의미함을 증명하는것이다。

그래서 레이버리스트들은 근로자들의 국제주의적 단결의 원칙대신에 타국가의 근로자들을 반대하여 부르죠아지와 근로자들과의 민족적 통일을 내세운다。브·이·레닌은 이미 一九一三년에 이와같은 배신적 정책의 특징을 폭로하였다。레닌은 자기의「민족문제에 대한 테제」에서「전세계 민족프로레타리아트의 완전한 단결보다(자기의) 민족부르죠아지와의 정치적련합을 더 높이 세우는 로동자들은 자기의 리해를 배반하여 사회주의의 리해를 배반하여 민주주의의 리해를 배반하여 출연」(전집 十九권 二一五폐지)하는것이라고 썼다。

우익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매국가내부의 계급적 조화의 선동과 근로자들의 국제적 단결사상의 멸시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적 흉계와 직접적으로 련결되었다。우익사회주의자들은 로동자들의 국제적 단합의 정신이 강화되면 될수록 영미 제국주의자들의 자기침략적 계획의 실천이 곤난하면 곤난할수록 더 한층 자기의 변명을 한다。백년간의 로동운동과정에서 발전하여온「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는 단결하라!」는 표어에서 표현된 계급적 단결 정책대신에 우익사회주의자들은「자기」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의 통일 그리고 타국가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자기국가 프로레타리아트를 추기는 정책을 실시한다。

련결되어있는 각국 로동자들의 형제적 결속을 파괴하며 그들을 상호 분렬하며 대립시키려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이 추향은 一九四八년 가을 불란서의 광산로동자들의 총파업시에 명료하게 나타났다。자기의 법적권리를 고수하는 광산로동자들의 영웅적 투쟁은 쏘련、아메리카합중국、영국、이태리、뿔리샤、체코슬로바키야、항가리、베루기、화란、불가리야、루마니야 기타 국가의 로동자들속에서 동정의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근로자들은 불란서 광산로동자들의 파업을 원조하는 기금폰드의 모집을 조직하였으며 총파업시에 그의 아동들을 맡아 돌보아줄 자기들의 희망을 성명하였던 것이다。

서구라파 우익사회주의자들과 개량주의적 직업동맹지도자들은 파업하는 불란서 로동자들을 반대하여 그들에게 대한 정신적 지지와 물질적 원조의 표시를 반대하여 자본가들의 편에 립각하였던것이다。이태리에서 사라가트도배들은 총파업자들에 대하여 지지할데 대한 이태리 로동총콘페렌챠의 성명을 반대하여 출연하였다。이태리로동총콘페렌챠 지도부내에서 사라카트당의 대표자인 카니니는 十월二十七일에 불란서 광산로동자들에대한 호응으로써 단합을 표시하는데 대하여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명하였다。사라카트당의 지도부는 이태리 로동총콘페렌챠가 파업하는 불란서 광산로동자들에게 호응적전보를 발송하는것을 반대하여서와 그들에게 대한 원조의 기금폰드모집을 반대하여 항의(抗議)를 제출하였다。

영국에서는 반동적 직업동맹 지도자들이 민족광산로동자 직업동맹의 총비서 아르뚜라·호르네라에게 덤벼들었고 불란서광산 로동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동정을 표시하고 국제로동자들의 친선적 결합의 강화를 호소하는것에 대하여 탄압의 탄우(彈雨)를 퍼부었다。우익 레이버리스트들은 마치『정치적 성질』을 띤 총파업이라는 구실하에서 불란서광산로동자들에게 지지할것을 거절하였다。불란서우익사회주의자들의 광산로동자들의 총파업에대한 태도에있어서 역시 절대적인 립장을 취하고서 다른 여러나라 로동자들과의 파업광산로동자들과의 단합운동을 약화시키려고 추향하였을뿐만아니라 광산로동자들에대한 가장 잔인무도한 징벌의 직접적 집행관으로써 또는 주도자로써 나섰다。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미국독점가들과의 밀접한 련결하에서 악독한 반(反)공산주의운동을 지도하며

로동계급과 전세계 근로자들의 혁명적 지도권을 박탈하려고 노력하고있다。一九四七년十二월二十一일 레이버당 집행위원회총비서 모르간·필립쁘스는 직업동맹의 지도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명하려는 호소로써 직업동맹지도부를 전체 레이버리스트조직으로 변화시키려 하였다。一九四八년十월二十七일에 영국 트레드유니온 중앙상임위원회는『공산주의에대한 선언서』를 채택하였는데 그에서 트레드유니온 콩그레쓰에 가입하는『모든 충성스러운 회원들』에게『공산주의적 영향의 온갖 표현을 반대투쟁』할것을설복시켰다。一九四八년十一월二十四일 런던에서 트레드유니온 중앙상임위원회 비밀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레이버당대변인이 전하는바에 의하면『영국직업동맹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조지(阻止)하는 새방책』을 세웠다한다。

서전(瑞典)에서 우익사회—민주당의 지도부는 一九四八년四월一일부터 二十五일까지에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특별『월간행사(月間行事)』가 진행되었던것이다。정말(丁抹)사회—민주주의지도자인 헛드토프트는 一九四八년 봄에『공산주의자들을 모든 수단으로써 추격(追擊)할데대한 구호를 가지고 출연하였다。오지리 사회당 기관지『아르베이텔·쩨이뚱』지의 주필 오·뽈라크는『여하한 타협도없이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여』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부단적운동은 불란서、독일、기타의 우익사회주의자들도 실시한다。

언제나 어데서나 우익 사회주의자들이 공산당을 반대하는 그의 투쟁에서 특징적인것은 미국의 독점자들과 구라파의 부르죠아지의 광범한 지지를 리용하는 그것이다。보수당원(保守黨員) 에클스는 一九四八년十一월二일에 영국 국회에 출연하면서『나의당은 그의 정책에 있어서 모든 전선에서 공산주의자들과 투쟁하는 그러한 정부를 지지한다』고 언명하였다。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함에있어서 히틀러도당들의、방법을 쓰면서 각종의 문서위조(文書僞造)와 사기(詐欺)에 의거한다。영국 레이버리스트들은 소위『엠의사록(M議事錄)』을 광범히 리용하였다。그것은 독일 공산주의자들을 중상비방할 목적으로써 몹시 위조되고 날조된것이라는것이 폭로되었다。불란서 사회주의자 둘리·모크는 계속적으로 각종의 사기에 의거하여 마치『공산당 정보부의 지시』와『공산당정보부』가 보낸 돈에 의하여 총동맹파업을 조직한다는것과같은 공산당에대한 추악한 허구를 류포한다。이와같은 성명의 허위성은 불란서 민족원(院)에서 공산당 대표에 의하여 적발되었으며 공산당과 사회당의 재정폰드 수입원천을 검증(檢證)할 위원회

창설에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제의를 거부하는것으로써 사회주의자 자체에 의하여 사실상으로 확인되었다。

사기、문서위조、비방적날조등의 리용은 우익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다만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실제적 립증으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그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타락에 대하여서도 립증해준다。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추악한 비방적 독설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 청산에 대하여서도 직접 요구하게 된다는것을 립증한다。빨리미르、똘리야찌에 대한·악당적 가해(加害)를 실시하기 수일전에 사라가트 도배들의 기관지『우마니르』는 이태리공산당의 똘리야찌와 기타자도자에대한 육체적 폭행을 요구하였다。최근에 독일우익사회—민주주의자 프리쯔·플로트는 선거전(前)회의에 출연하면서『사회주의독일당의 성원은 가스(瓦斯)독방에 몰아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팟쇼사형집행리(死刑執行吏)의 정신으로써 위혁을 감행했다。그는 파렴치하게도『이미 우리는 이것이 다 되었다』고 보충하여 말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로동운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위하여 우익사회주의자들은 국가기관을 리용한다。영국에서 레이버리스트정부는 一九四八년三월에 공포된 내각 성(省)에서와 국가기관에서 공산주의자물을 축출할데 대한 결정을 실천에 옮기었다。부두로동자들의 파업항쟁을 분쇄하기 위하여 지난해 여름에 레이버리스트정부는 계엄령에대한 지령(指令)을 제황(帝王)에게 청원하여 이를 달성하였다。불란서 쥴리·모크는 로동계급을 반대하여 경찰관과 최루가스(催淚瓦斯)와 심지어 전차 및 기관총을 여러번 출동시켰다。특별한 대규모의 무력사용은 최근 광산로동자파업당시에(一九四八년十월十一월) 그들을 반대하여『공화국 보안대대』에서는 五十만명의 경찰대、헌병、병사、비밀경찰대들을 내몰았다。사라가트가 부총리대신(副總理大臣)으로된 이태리 정부는 七월十四—十五일의 총동맹파업 참가자들을 가혹하게 징벌하였다。즉 三、四五五명이 체포되었고 또한 기소재판사건(起訴裁判事件)을 반대한 리유로 체포된것까지 합하면 총수(總數) 七、〇〇〇명에 달한다。

로동운동에서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정책은 즉 공산당과의 일치협력의 거부、국제적 및 민족적 직업동맹운동을 분열하려는 열망、반공산주의 운동、근로자들의 국제적 계급적 단결의 파괴、로동운동을 무장력의 원조로써 파멸시키려는 시도 이 모든것은 민주주의적 반제국주의적 진영을 약화시키기 위하여서와 그것으로써 미제국주의의 침략적 계획의 수행을 용이케하는데로 인도된다。

× × ×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반동적 대외정책은 로동운동을 분렬 약화시키며 제국주의진영의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그들의 대내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우익사회주의자들은 자기의 모든 힘을 전후 서구라파에서의 심히 약화된 자본주의 진지(陣地)를 강화하려는데로 돌렸다。만일 영국, 불란서, 이태리, 오지리 기타 서구라파 국가들에서 근본적인 사회—경제적개혁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만일 여기에서 근로자들이 종전대로 자본주의적 착취의 억압하에서 신음한다면, 만일 이 국가들에서의 정책을 반동적 침략적 분자들이 지도한다면 이는 우선 우익사회주의자들을 론죄(論罪)하여야 할것이다。그들은 민주주의 운동과의 흉포한 투쟁을 실시하면서 독점 자본가들을 지지하며, 강화하는데로 나선다。사회—민주주의적 두목(頭目)들 속에서의 사업의 진정한 상태를 잘아는 오지리 사회당 중앙위원회의 이전 비서 에르빈·솨르프는 당의 지도부를 반대하여 출연하면서 『묵인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당의 지도부는 부르죠아계급사회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로동운동을 고무하는 것이아니라 피착취대중의 불만으로부터 부르죠아계급 사회를 옹호하며 그 불평을 공산당을 반대함에 돌리려고 지향한다』고 썼다。영국 레이버당, 불란서 사회당, 이태리 사라가트당, 기타 서구라파에서의 『사회주의적』당의 지도자들에 대하여서도 역시 이와같이 말할수 있는것이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개혁의 외형(外形)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의 약간부문의 『국유화(國有化)』를 실시한다。에르빈·솨르프는 자기의 저서에서 오지리 사회주의자들의 제의에 의하여 소위 국유화(國有化)에 대한 법령이 채택된데 배하여 『이 법령은 오지리 자본주의를 구원하였다。국유화해야 할 기업소의 체제와 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하등의 중대한 변경이 없는것이기 때문에 국유화실시에 대한 아무러한 사태도 이 법령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소위 부르죠아 『인민당』의 오지리국회대의원 산업가대표 마르가베트가 사회주의자들의 초안에 의한 국유화를 실시하면서 『이는 미래를 보다 낫게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길』이라고 말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아니다。

영국에서 산업의 약간부문의 『국유화』는 레이버리스트정부에 의하여 국내 전체근로인민들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부담으로서, 기업주에 대한—막대한 현금보상의 계속지불에 의하여 실시되었다。이 『국유화』는 부르죠아국가의 원조하에 실시되면서 국가의 부르죠아질서를 조금치도 훼손(毁損)함이 없으며 사회주의와는 아무러한 공통성도 가지지 않는다。영국 경제의 전체기본적 공간(槓杆)들이 종전대로 독점자본가들의 수중에 그냥 보존되었다。

자본주의질서는 인류의 고도로되는 일층의 발전에 장애물로 되었으며 부패되어 버린지가 이미 오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라파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구원하기위하여 모든것을 다한다 그들은 『마샬안』을 위한 기치하에서 그의 성벽으로 되었으며 모든 반동적력량을 집중하며 그에 복무한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반동적 정책의 파멸적 종결은 목전에 다다랐다。다수 구라파국가의 실례는 이에대하여 완전한 명확성을 립증해준다。바로 이태리에서 산업생산의 수준은 一九四七년에 七二퍼센트에까지 도달하였던것이 최근에 와서는 六五퍼센트까지 저하되었다。

전전(戰前)과 같이 서구라파 근로자들은 또다시 실업의 공포를 당하게 되었다。이태리에서 실업군은 二백五十만명을 초과하며 베루기에서 二三만명에 달하며, 비쵸나야 에서 七五만명이다。화란에서 로동자들의 대중적 해고가 예견된다。一九四八년十二월七일에 화란 사회사업성(社會事業省)대변인 래인이 언명한바와같이 『가까운 장래에 국가에서 정신적 및 재정적 파국을 의미할 대중적 실업이 발생할것을 예견하지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마샬안』은 산업의 향상을 주지못할뿐만 아니라—『사회—마샬스트』가 예언한 것과같이—서구라파국가들의 경제가 민족적 필요에서가아니라 구라파에서 자기상품의 보다 광활한 판로의 보장을 추구하는 미국독점가들의 리익에만 적합되며 경제적 정치적 방면에서 전적으로 이 국가들을 예속시키려는 일반적 성질을 가지는데로 나아갔다。심지어 부르죠아 출판물까지도 『마샬안』이 구라파에서 근로자들의 상태를 악화시키는데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하는 수 없이 자인하게 된다。一九四八년十一월六일에 불란서 『몬드』신문은 『마샬안은 실지에있어서 이미 八개월간이나 실시되었으나 로동자들의 구매력은 이 기간에 대체로 인하 되었다』고 썼다。언제나 어데서나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정부의 선두에서나 혹은 정부에 참가하여 전후 중하(重荷)를 전근로자들과 로동계급의 어깨에 질머지우며 자본가계급의 지위를 튼튼히 하려고 열망한다。그들은 로동임금의 봉쇄와 『동결』정책을 실시하며 동시에 리윤을 위한 완전무결한 자유를 자본가들에게 허가한다。국민수입의 대부분은 자본가들에게 횡령되고 로동임금은 해마다 저하되고 있다。불란서에서 자본가들의 리윤은 一九三八년에 국민수입의 二九%에서 一九四八년의 전반기에는 四三%에까지 장성되었고 로동임금은 四五%로부터 三九%

로 저하되였다。영국에서 자본가들의 리윤은 一九四六년에 『국민수입의 三三%였고 一九四七년에는 三六%였다。一九四七년에 로동임금폰드는 다만 五%장성되었으나 순리윤은 二四%로 되였다。이러한 자료들은 『자본가들에게 의한 로동자들의 착취정도를 표시하는 확실한 통계를 보이어준다。

사회주의자들의 정책은 근로대중의 상태를 부단적으로" 악화시키는데로, 그들의 절대적 및 상대적 빈궁에로 인도한다。사회주의 제당들이 지도적당으로 되는 모든 국가들에서는 물가의 등귀(騰貴)가 변함없이 로동임금의 증가를 훨씬 초과한다。불란서 잡지 『까이에·뉴·꼼뮤니즘』(一九四八년 제八호)은 가격변동과 로동임금에 관한 다음과같은 공식적 자료를 게재하였다。즉 一九三八년에 파리에서의 소매가격 지수를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四七년六월에는 九三五, 十二월에는 一, 三五四, 一九四八년六월에는 一, 五二九 이다。로동임금 지수는 一九四七년四월(一九三八년을 一〇〇으로함)에는 五八九, 一九四七년 十二월에는 八二〇, 一九四八년 六월에는 八六〇에 해당된다。불란서에서 실제임금은 전전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인하되었다。一九四八년十一월三十일 오지리 공산당 제十四차대회에서 꼽뿔레니그는 오지리에서 최근에 실제로동임금은 二五% 이상으로 인하되어 겨우 전전의 四〇%밖에 되지않는다는것을 진술하였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자기정책을 변명하여 『물가와 로동임금의 악순환(惡循環)에 대한 허위적 테제를 완강히 중복한다。그들은 로동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인정한다。왜냐하면 이것은 근로자들의 상태는 개선하지 못하고 물가의 새 등귀를 초래하는 까닭이라한다。이것은 이미 백년전에, 맑쓰에 의하여 철저하게 폭로된 뿌루똔의 비과학적 리론의 중복으로 된다。

『…로동임금의 일반적 인상은—맑쓰는 「철학의 빈곤」에 쓰기를—뿌루똔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물가의 일반적 등귀를 초래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도리어 그의 부분적 락하를…초래하게 될것이다。리윤 혹은 임금에 있어서의 등락(騰落)은 다만 자본가 혹은 로동자가 다수경우,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로동의 일일(一日)의 생산고에 해당되는 분배비례(分配比例)를 표현할따름이다』(맑쓰 엥겔스 전집 五권 四一〇페지)

이것으로서 로동임금의 인상은 리윤의 저하를 의미한다。바로 이 때문에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시인하기를 원치않는 것이다。그들은 부르조아 착취자들의 신뢰할수 있는 초병(哨兵)으로 출연한다。영국 레이버리스트들이 그와같은 열성으로써 자본주의 리윤을 옹호하는 일도 가히 충분하게 알수

있는 문제이다。一九四七년, 五월 마르게트에서의 레이버당콘페렌챠에서 모리숀은 『부자들의 수입을 축소하기위한 가능성이 다소 남았거나 혹은 심지어 전혀 남지않았다』는데 대하여 설복시켰다。그러나 이와 같은 허위적 설복에 반하여 영국자본가의 리윤은 『에코노미스트』잡지의 자료에 의하면 一九四七년 제一·三분기에 一二五%(一九四五년一·三분기를 一〇〇으로함) 一九四八년 제一·三분기에 一五〇·七%로 계속 향상되였다。이것은 一九四八년 五월 스까르보로에서 열린 레이버리스트 콘페렌챠에서 『자본가들을 보다더 누를 필요가 없다!』는 것과 『부르조아지에게서 더많이 짜내는것은 아무도 불가하다』는 데 대한 성명으로써 또다시 출연함을 방해하지는 않는다。一九四八년 九월에 마르게트에서 열린 트레드유니온대회에서 크립쁘스는—자본가들의 리윤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상태를 개선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증명』하려 시도하였다。레이버리스트적 자본과 리윤옹호자들의 공통적 모든 활동으로 되는 크립쁘스의 이 성명을 영국출판물은 환희로써 맞이하였다。『파이낸셜·타임스』지는 『크립쁘스에게 큰 공훈으로써 돌려주어야 할 것은 로동임금과 리윤문제에 대한 중요한 대목을 튼튼히 틀어잡고 해결한 그것이다』라고 썼다。그는 현재 주식회사의 리익배당금(利益配當金) 인하(引下)를 실시하여 실제로동임금이 사실상으로 증대할수 있다는것과 같은 직업동맹지도자들의불합리적 추측에대하여 해답을 주었다』고 썼다。크립쁘스의 이『론증』은 현존 실제사실에대한 협잡과 위조에서 나온 것이다。영국 공산주의 월보(月報) 『레이버·몬슬리』는 (一九四八년 十월) 크립쁘스의 사기적 협잡을 폭로하면서 一九四七년에 영국전로동임금의 총액三二억六천만폰드와 三억二백만 폰드로 되는 약간회사들의 리윤과를 비교하였다。당시에 리자와 리익배당금의 총액 즉 기생충계급의 수입은 二五억八천八백만 폰드로 되었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참가하에서 서구라파국가들의 지도부에 의하여 실시되는 반인민적 대내외정책은 사회적모순을 일층 첨예화하는데로 근로대중이 계급투쟁을 더 강화하는데로 끌고 나가고 있다。부르조아 선동가들이 쏘베트동맹측으로부터의 가상적(假想的) 『위협』에 대하여 절규(絕叫)하더라도 그의 내부 모순, 경제적 난관, 민주 력량의 불가항적장성은 부르죠아계급들에게 불안의 실제적 원천으로 된다。추악한 반쏘운동은 우익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선동되면서 그의 본질적 침략적 기도를 은폐하는 병풍으로 된다는것이 확인되였다。

× ×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운동의 앙양과 공산당이 장성한 현대 조전하에서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반동적 활동은 로동계급을 분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재우익사회당은 도처에서 첨예화된 위기를 체험하고 있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이 「제三로선」에 대한 리론과 「제三세력」의 정책에 대한 리론을 선동하여 자기의 대중적 기초를 보존하려는 시도는 실패를 당하고있다。

일찌기 一九四七년에 불룸은 사회당이 공산당과 부르죠아반동과의 사이를 차지하는 「중간적」립장의 「제三세력」의 역활을 놓았다는 것을 확언하였다。 애트리는 一九四八년一월三일의 자기 신년사에서 영국은 지리적 사회—경제 방면에있어서 아메리카합중국과 쏘련사이에 존재한다는데 대하여 공언하였다。 스빠크는 一九四八년五월一일의 자기연설에서 서부뽈력은 「두 거상(巨像)—쏘련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어느중간에 존재한다는데 대하여 말했다。

현재 이러한 말공부는 거부되고 과거의 것으로 된다。 현재 레이버당의 국제부 지도자 힐리가 「영국은 미국점령을 더 좋아한다」는데 대하여 파렴치하게도 선포하였다。 레이버리스트 잡지 「트리분」은 「사회주의적」 영국은 아메리카합중국에 의존 함이 없이 동작할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론거의 「불합리(不合理)」를 지적하였다。 현재 사라가트는 「우마니트」를 통하여 「사회주의자들은 두 상호적대되는 진영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다」는데대한 「유명한 테—제」를 거절하고 있다。 사라가트는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사회주의자들은 전폭적으로 심중하게 「마샬안」을 맞아들였다고 하였다。

현재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다만 제국주의진영의 과견부대이며 가장 유해(有害)한 무기로써 활동하는 부대이며 로동계급과 접근로자들의 어깨에 진정한 타격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 로동계급에게 나날이 명백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미제국주의를 공공연하게 찬양하며 그의 계획의 실현에 대하여 자기들의 모든 기대를 붙이고 있다는 것을 수백만사람들은 매일같이 보고 있다。 이점에 우익사회주의자들에게 더욱더 현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가렬한 위기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있다。

우익사회당들은 「마샬안」의 궤도(軌道)에서 분주하게 활동하고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당들은 우익사회주의진영과의 관계를 끊고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학설의 기초우에서 공산당과 합당한다。 합당은 이미 루마니야、 웽그리야、 체코슬로바키야、 뽈리샤、 볼가리야에서 실현되었다。 이상에 렬거(列擧)한데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것은 독일

쏘베트 점령지대에서 사회—민주당은 전쟁이 종결된후 곧 공산당과 독일 통일 사회당으로 합당한 그것이다。

다음과같은 기본적 제원인들이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당과 공산당과의 합당을 가져왔다。

첫째로 레닌—쓰딸린당의 지도하에서 쏘베트인민들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한 위대한 쏘베트동맹의 모범。

둘째로 공산주의학설의 정당성을 사회주의적 로동자들에게 확신시킨 공산당들의 정확한 정책과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철저한 건설자로 되어 있는 인민민주주의의 거대한 성과。

셋째로 베빈—불룸 슈마헬 형(型)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반역적 정책의 폭로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적 로동자들은 이러한 정책과 더욱히 관계를 청산할수록 로동운동에 보다 유익하다는 것을 정당하게 판단하였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당의 가장 저명(著名)한 지도자들은 우익사회주의자들과 그의 당의 파멸될 원인을 정당하게 설명하였다。 이전 항가리야 사회당의 지도자 자까쉬쯔는 항가리야 근로자당의 합당대회에서 「우익사회—민주당은 반동과 파시즘의 원조자적 부대로 전화(轉化) 되였다」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뿐만이아니라 이태리에서도 우익사회주의자들은 사회당과 공산당이 협력하며 접근하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미제국주의자들、 영국레이버리스트들、 분렬주의자—사라가트도배들、 데·가스페리악당들、 흑색반동세력인 바치칸—이 모든 것들이 현재 이태리에서의 사회당과 공산당의 일치협력을 파렬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태리 로동계급의 총동맹과업은 똘리야찌에 대한 암살미수(暗殺未遂)에 대답하였고 이태리 로동자들의 전투적 정신은 더 강화되며 단결의 사상은 그들 속에서 심오(深奧)한 뿌리로 되었음을 보이어준다。

우익사회주의진영의 장성되는 위기에 대하여서는 직업동맹내에서 그들의 영향이 저락되는 것이 또한 증명해 준다。 국제직업련맹운동에서 거대한 전진이 있었다。 국제직업련맹을 제국주의정책의 도구로 변화시키려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의 기도가 분쇄된 증거는 암스테르담·인터나쇼날 당시에 나타났다。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불란서와 이태리에서 두 강대한 직업동맹이 통일됨으로써 그의 지도부에서 축출되었다。

불룸과 쥬오는 심지어 그들에 의하여 창설된 「포르스·우위리에르」에 가맹한 속아넘어간 근로자들을 완전히 자기영향하에 예속시키려는 것까지 성취

못하였다。이것은 최근에와서 로동임금인상과 완전한 민주주의정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불란서로동자들은—로동총콘페데라챠의 성원『포르스・우위리에르』 기독교근로자 총콘페데라챠—자주통일젠선으로써 진출한 것이다。 직업동맹상층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하급만이 아니라 다수의『포르스・우위리에르』의 군(郡)조직체에서도 로동총콘페데라챠와의 행동의 통일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영국레이버리스트들과 트레드유니온지도자들이 트레드유니온 대회에서 슬그머니 통과시킨 그의 제반동적결정은 영국직업동맹 하급단체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혁편을 반영하지못한다。이것은 버나드・쇼—의 표현에 의하면 영국 레이버리스트들이・트레드유니온에서 어데서나 보지못한 전대미문의 폭행을 설정하였기때문이다。 트레드유니온에서의 레이버리스트들의 반공산주의적 햇군이 실패될 것이 다툴수 없는 사실로 되었다。 하는 수없이 반동적 영국출판물도 이 실패를 시인하게되었다。 런던의『에꼬노미스트』잡지는 一九四八년一월二十八일에『피럽쁘쓰씨(氏)의 회장(回狀)에도 불구하고…공산주의 영향은 강화된다』고 썼다。

심지어 부르죠아출판물까지도 로동계급속에서의 레이버리스트지도자들의 영향이 전락(轉落)된 것을 공포하여 지적하였다。 런던『타임스』는 一九四八년六월二十九일에『산업의 각부문에서 우리들은 직업동맹지도자와 보통로동자와의 사이에 분렬을 조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볼수 있다』고 썼다。 현재 레이버리스트들은 공산주의자와 직업동맹을 반대하는 새진군(進軍)을 시작하였는데 로이터통신이 전하는바와 같이 한갓 선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에게 호응하지 않는 다수의 회원들—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직업동맹 맹원의 다수그루빠를 다른 직업동맹에 전입(轉入)시키는 강제적 방법에 의거함을 기도하는것등이다。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에 자주 강제를 적용하는 것은 심지어 반공산주의선동에 호응하기를 원치 않는、다수의 직업동맹 맹원대중가운데서 레이버상층부의 영향이 전락(轉落)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직업동맹운동에서 공산주의영향을 반대하여 박약적 투쟁을 진행하며 대중의 불만을 진압함에 탄압의 탄우(彈雨)로써 추향하며 직업동맹 지도기관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수효가 증가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반동적활동가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로동운동에로 전환시킬 따름이다。

사회—민주당의 위기는 그의 대렬에서 불만이 장성되는데에서도 표현된다。우익지도자들은 자기당원속에서의 반대파적 경향을 강압적으로 진압하려고 지향한다。이는 오지리사회당에서 에르빈・좌르프가

탈다한 사실에 대하여 넨니에게 보낸 축전에서 면한 쁠레트스・밀르사를 레이버당에서는 출당시키고 의회내의 다른 二十명의 레버당원에게 대하여서는 엄중경고를 준것과 기타 이와 류사한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충분하다。불란서에서는 좌익적 여러구루빠가 계속적으로 사회당으로부터 탈리하여 나아가고 있다。이 모든 것은 사회당의 우익지도부의 립장이 약화된 것을 증명하는 것인바 심지어 부르죠아 출판물까지 이를 강조하는 바이다。오지리의 부르죠아『인민당』잡지『에쓰쩨레이히쉐・모나트스훼프쩨』(一九四八년十二월호)에는 에르빈・좌르프의 제명은『오지리사회당내부의 위기의 징조』라고 특징지었다。 다음으로 동잡지는 불안으로써 새로운 보다 광범한 사회주의자들 가운데서의 불만이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하여 썼다。『사회당의 지도부에 대한 잠재적(潛在的)불만은—론문에는 쓰기를—오지리사회당대회(一九四八년十一월당대회가 이 문제의 론점(論点)이다)에서 공통적으로되는 것이라고 느껴졌는바 결정적인 새정세가 조성될것이 어느 모멘트에 가서 가능하다。』

우익사회주의명수들의 대내정책에 대한 불만은 항상 개량주의와 기회주의의 성색으로 되어있던 영국에서 그범위가 더욱더 장성되고 있는데 나타나고있다。이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직업동맹에서 채택된 수다한 결정서에서、반전집회(反戰集會)에서 영국에서의 징병운동의 실패에서、一九四八년十一월에 기록된 군사복무기관을 十二개월로부터 十八개월까지 연장할 것을 예견하는 정부의 법령초안을 반대하는 항의(抗議)의 파문(波紋)에 의하여서 가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하원(下院)에서까지도 레이버당 상층부의 법령초안은 자기 프락치야의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레이버당의 다수 당원의 기분을 고려하면서 의회(議會)의 레이버리스트 의원(議員)五〇명은 법령초안을 반대하였고 약 二〇〇명의 의원(議員)은 투표에 참가하는 것을 회피하였다。법령초안은 대체로 보수당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레이버당 지도부의 대외정책방침은 좌익적 신념을 가졌다고는 할수없으나 베빈의 정책에 대하여 위험성을 보고 있는 심지어 많은 레이버당원들에게까지 불안을 주고 있다。이 방면에서 특징적인 론문으로서는 一九四八년 九월에 레이버리스트 잡지『뉴스 스테이트스멘 앤드 네이숀』에 발표되었다。그의 사설에는 제국주의의 성격을 띠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정책과『공황과 공산주의에 직면한 공포』가 그를 충동하는 것에 대하여 자인하였다。동잡지는『우리들은 다만 미국폭격기를 위한

비행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륙전쟁과 그러한 범위에 필요한 무기와 군대를 약속하지 않으면안된다。그리하여·우리가 미국에 완전히 예속되어야한다』고 불만으로써 영국 공식적 관점을 표현하였다。잡지는 현 영국정책이 프랑코와의 동맹으로 나아가는바 그에 대한 증오의 감정은『영국로동계급을 단결시킨다』는데 대하여 부득이 시인하였다。잡지는 계속하기를『다른 우리의 동맹자로서는 장개석 총통(總統)이 될 것이다。그의 제도는…참혹하게 부패되고 절대적으로 참을 수 없는 형편을 로출(露出)하고 있다。공산주의로부터 구라파를『구원』할 자로써 드·골리장군을 영국 로동자들로하여금 축하하라고 제의하려는가?』

사회민주당의 위기의 표현은 우익사회주의자들이 로동운동을 반대하며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지도를 반대 투쟁하기위하여 무력을 자주 리용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그들의 영향이 상실된 것으로써 증명된다。불란서 이태리 및 기타 여러 서구라파 국가들에서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두목들이 이미 전전(戰前)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과같은 그런 상태로서는 로동자들의 대중적진출을 예방하며 자본계급들을 위한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지못하게 되었다。지금은 그와반대로 무력과 경찰、징벌대 기타의 사용은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지도층들과 근로대중간의 온갖 구렁(深淵)을 더욱심각화한다。』 이것은 부르죠아 출판물 까지도 부득이 불안으로써 자인하게 된다。一九四八년十一월三十일에 파리신문『꼼바』지는 클로드·부르제가『난관속에서의 승리』라는 론문에서 광산로동자들의 총동맹파업을 반대한 정부의 무장투쟁에 관하여 쓴것을 게재하였다。그는『정부와 로동계급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절단(切斷)하였다』고 썼다。클로드·부르제는 다음으로『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공산당영향의 강화를 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우익사회당의 위기는 또한 그의 사회적성분의 부단적 변경과 로동자의 퍼센테지가 확실히 저하되고 있는데에서도 표현된다。사회민주당의 대렬에는 소부르죠아지 사무원 부르죠아인테리겐차가 너많이 차지하고있다。

불란서 사회당은 특별히 엄중한 위기를 체험하고있다。그것은 자기영향이 간단(間斷)없이 파멸되며 선거에서 극히 적은 표(票)를 받았다。一九四五년十월부터 一九四六년十一월까지 사회당은 선거에서 一백十二만九천표를 상실하였다。당원수도 현저히 축소되었다。당의 마지막두대회 사이에 十만명의 당원을 상실하였다。『프란스·수아르』신문은 사회당은 그의 四분의三이 소부르죠아대표자들중에서 구성되었다고 썼다。이것은 당의 총비

서 기·몰레가 一九四七년八월에 당대회에서 성명한『우리당의 사회적성분은 변화되었다。』는데 대하여 은폐하지못한다。죠크의 그루빠에 의하여 기록된 결정서에는『국가에서 사회주의의 위신과 영향이 상실되고 당내부는 이미 왕시(往時)의 열성이 없으며 그의 당원수도 축소되었다』고 말하였다。

× × ×

우익 사회당의 위기는 제국주의진영의 정치적 및 경제적 지위의 약화、로동계급과 기타 근로자층의 의식의 장성、공산당의 강화、우익사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장성의 결과에 표시되는 자본주의 일반적 위기의 반영으로 된다。

여기에서 우익사회주의자들이 미제국주의정책을 더 실시하게될수록 자체를 전쟁방화자로서 근로자들의 눈앞에 더한층 폭로하게 될것이며 그들이 인민대중앞에 자체를 더한층 폭로할수록 사회당의 위기는 더 심각화하게 될것이다。체공산당은 로동계급의 전투적력량에 거대한 신임을 침투시키며 평화민주주의 민족적주권 자기국가적독립을 위한 투쟁속에서 강화되고 단련되며 인민대중속에서 그의 거대한 영향을 쟁취한다。

그러나 현시에있어서 우익사회주의자들이 표현하는 위험성을 과소평가 함은 옳지않다。

다수 국가에서(영국、서전、노루웨이、정말)우익사회주의자들은 주권을 잡았으며 기타 제국가(불란서、이태리、오지리、베르기야)에서는 그들이 련립내각(聯立內閣)에 참가하여가지고 근로대중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정책을 실시하기위하여 부르죠아국가기구의 위력(威力)을 리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익사회주의 지도적중앙은 미국독점자본가들의 원조(외교적 및 정치적 기타)를 광범하게 각방면으로 리용한다。즉 그들은 부르죠아정당과의 밀접한 련합하에서 활동하며 그들에게 복무하며 대내의 제 기본문제에 있어서 통일적 로선을 실시하며 그들과함께 공산주의와 로동운동에대하여 집요하게 덤벼든다。

자기정부와 미국 부르죠아로부터의 물질적 원조를 받아가면서 우익사회주의자들은 대중에대한 사회적 전염(傳染)을 위한 로골적인 수단을 소유하고있다。우익사회주의지도자들은 자기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투쟁의 가장 야비(野卑)하고 교활(狡猾)하고 파렴치(破廉恥)한 방법을 꺼리낌없이 리용한다。그들은 민주주의를 가장(假裝)하여 출연하면서 사회주의적 과장적(誇張的)감언리설(甘言利說)을·리용하면서 대중을 기만하려고 시도한다。그들의 지령(指令)하에는 근로자들의 리익을 임의로 배반함에 준비된 다수의 경험있고 악당적

관료들의 광범한 당조직의 지점(支店)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 정세하에서 평화를 위한 투쟁은 우익사회—민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그의 정치적 및 사상적 출연을 폭로함과 불가분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사회—민주당의 반쏘적 활동、로동운동에서의 분렬책동、견고한 평화사업을 반대하는 투쟁、로동계급의 리익과 민족적리익의 배반등은 로동계급과 전인류를 위하여 특별한 위험성을 주는것이다。대중속에서 사회—민주당의 영향을 청산하기위하여서와 사회—민주당의 위기를 패망에로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쏘련의 주위에 모든 인민민주주의적 진영을 보다 더욱 밀접히 결속하며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더 강화하며 인민의 평화、자유、독립을 위한 투쟁을 견고히하며 사회—민주주의 정책과 행위를 매일같이 폭로하며 맑쓰—레닌주의의 더 광범한 선전이 요구되는 것이다。

쓰딸린 동지는 「뿌라우다」 통신원의 질문에대한 자기 대답에서 북미합중국의 현지도자들에 의하여 실시되는 침략정책은 오직 새전쟁방화자들의 치욕적 파탄(破綻)으로서 종식(終息)된다는것을 말하였다。모든 전쟁방화자들의 운명은 우익사회주의자들과 같은 운명에 있다。

현대 우익사회주의자들의 행동의 제사실、그의 제국주의적 침략자들에게 복무하는 제사실에 준엄(峻嚴)한 고소장(告訴狀)을 제출하는바이다。우익사회주의의 사상과 실천을 완강하게 폭로하면 할수록 전쟁방화자들과의 투쟁에서 근로자들은 더큰 성과를 얻게될것이며、근로자들이 공고한 평화와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를위한 투쟁에서 보다더큰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연구자료 (十四)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준비기와 수행기에 있어서의 볼쉐위끼당

박 태 화

一、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에서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이행을 위한 볼쉐위끼당의 투쟁

로씨야에서 一九一七년 二월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은 볼쉐위끼당의 지도밑에 로동계급이 령도적 지위에 서서 농민(및병사)대중과 혁명적동맹을 맺었음으로써 짜리즘을 전복하는 투쟁에서 승리하였다。

로동계급이 이렇게 병사(군복입은 농민)들과 동맹하여 무장적으로 짜리정부를 전복하기위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바로 그때에 四차국회대의원(대다수는 까제트 十월당원들이었다)들이었던 부르죠아들은 「국회림시위원회」를 조직함에 분주하였다。그들은 조직한 「국회림시위원회」의 반혁명적 내막을 은폐하기 위하여 두「사회주의자」즉 멘쉐위끼 츠헤이드제와 에쓰·엘 께렌스끼의 협력을 얻었다。

三월一일 「국회림시위원회」위원들은 소위 로동자병사쏘베트집행위원회 대표인 멘쉐위끼—츠헤이드제、쏘꼬르브、수하노브、세크로브와 에쓰·엘인 필지뽀브스끼등을 청하여 볼쉐위끼에게는 알리지않고 림시정부를 조직하는것을 약속하였다。이 정부의 수반으로는 二월정변전 짜리·니꼴라이二세가 자기정부의

총리대신으로 임명하려고하던 르보브공(公)이 지명되었던것이다。 이와같이 림시정부는 쓰딸린의 지적한바와같이 『방책(防塞)에서가 아니라 방책곁에서』조성되였던것이다。

이것은 로씨야부르죠아들이 다른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들의 전례대로 로동계급의 승리의 결실을 횡취(橫取)하였고 로동계급에게 가까이하던 소위 『사회주의』당들이 一八四八년 불란서혁명에서 루이·부란이 취한 거동을 『모범적』으로 본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모든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二월혁명은 일거에 종래의 『보통』부르죠아혁명들과는 달리 더 깊이 들어갔던것이다。 그것은 부르죠아독재를 실천시키는 림시정부와 병립하여 로동계급과 농민계급의 독재기관으로 되는 로동자 병사대의원쏘베트가 존재하였던까닭이다。 이것이 곧 二월혁명의 특수성을 표시하는 二중주권의 수립인것이다。

림시정부와 병립하여있은 쏘베트들은 혁명의 승리적 력량인 로동자、병사、농민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실재적력량은 쏘베트편에 있었다。 그러나 혁명의 시초에 있어서 쏘베트들에 소부르죠아적당—멘쉐위끼와 에쓰·엘들이 다수 점령하게 되었던것이다。

이런조건밑에서 로씨야로동계급과 지하로부터 공개적인 정치적 조직적 사업에 나선 볼쉐위끼당앞에는 거대한 활동이 요구되었다。

서서에서 二월혁명의 소식을 들은 레닌은 당과 로씨야로동계급에게 새로운 성격과 과업을 제기하여 주었던것이다。

一九一七년 四월 三일에 당과 로씨야로동계급이 고대하던 혁명의 수령 레닌이 오랫동안의 망명생활로부터 돌아왔다。 이 사실은 당과 혁명사업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레닌에 대한 당과 대중의 열렬한 총애는 당내에 부동(浮動)하고 있던 수많은 그루빠적동요를 극복하고 당주위에 몇백만의 로동자、농민、병사대중을 결속시키고 十월의 진격을 준비할수있게 하였다。

四월三일밤 뻬뜨로그라드 필란지야역의 레닌을 환영하는 수천명 로동자、병사들에대한 그의 연설은 『사회주의혁명만세!』로써 끝마쳤다。 그는 이렇게 혁명의 수도에 돌아온 첫연설에서 대중을 사회주의혁명에로 불렀다。

이 四월테제는 레닌이 이미 一九〇五년七월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에서 사회민주주의 자들의 두가지 전술』에서 전개하여 놓은 새혁명에로의 이행에관한 견해를 새력사적 조건하에서 구체적으로 발전시킨것이다。

당의 로선을 확정한 이 四월테제를 전당이 법적

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나섰던것이다。 이러므로 四월二十四일(五월七일)부터 四월二十九일(五월十二일)까지 제七차 볼쉐위끼당대표회의가 열리게 되었던것이다。

볼쉐위끼당의 첫 합법적회의인 이 대표회의는 그 내용과 의의로보아 볼쉐위끼당력사에서 당대회와 동·격의 자리를 차지하는것이다。

四월당대표회의는 혁명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하여 즉 전쟁에대한문제、토지에대한문제、기근과의 투쟁에 대한문제、림시정부에대한 태도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 대답을 줌으로써 까메네브、지노비예브、리꼬브、빠따꼬브、부하린 기타 많지못한 그들의 동류자들의 기회주의적 반레닌적로선을 폭로시켰던것이다。

四월당대표회의는 레닌의 로선에 당을 결속시키었으며 당을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전환의 선에 인도하여 놓았던것이다。

四월당대표회의후 볼쉐위끼당은 당대표회의 결정의 선에 립각하여 대중을 전취하며 그들을 전투적으로 교양하며 조직하는 사업에 더욱 광범한 활동을 전개하였던것이다。 一九一七년五월부터 八월까지는 쓰딸린이 지적한바와같이 볼쉐위끼당에게는 실로 대중의 혁명적 집결의 시기였던 것이다。

다른편으로 림시정부는 갈수록 반인민적 본성을 로골화하였던 것이다。 四월十八일(五월一일) 림시정부의 외상 밀류꼬브가 『전국민은 세계전쟁을 결정적 승리에까지 수행할것을 요망하며 림시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의향이다』라는 성명으로써 구(舊)짜리정부의 동맹국들에 대한 충복이 될것을 맹세하였고 그들이 요구하는데까지 인민의 피를 흘리게할것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밀류꼬브의 이 성명이 있은 바로 그날 로씨야로동자、병사대중들은 병탐과 배상금이 없는 평화를 요구하는 표어밑에 첫 자유스러운 메—데시위가 수도와 지방에서 있었다。 이 성명은 대중들에게는 당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 성명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대중의 격분은 절정에 달하였던 것이다。 四월二十일 필란지야련대 병사들이 『침략적 정책을 타도하라!』는 표어를 들고 나왔으며 제一八〇련대 병사들과 해군들도 출동하여 수十만의 시위군중을 이루었던것이다。 그들은 마리인스크궁전에로 행진하면서 밀류꼬브의 즉시 추탄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 시위는 二十一일까지 二일간 진행되었던 것이다。

四월二十일—二十一일의 이 사변은 림시정부의 첫 위기를 가져왔던것이다。 그것은 멘쉐위끼와 에쓰·엘의 타협정책에서 최초의 중대한 귀렬(龜裂)이었다。 一九一七년五월 림시정부는 대중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밀류꼬브와 구츠꼬브를 림시정부에서 추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밀류꼬브의 성명서는 비자각적으로 림시정부를 신임하던 대중을 동요시키었다。 그렇기때문에 림시정부는 자기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방책으로 밀류꼬브와 구츠꼬브가 추방된 다음에 제一차 련합림시정부로 출현하였던것이다。 여기에는 부르죠아와 함께 멘쉐위끼인 스꼬벨레브, 체레쩨리 사회혁명당원인 쵸르노브, 께렌스끼 및 기타 「사회주의자」들이 참가하였던것이다。 련합림시정부의 수립은 멘쉐위끼 에쓰·엘들의 로골적인 반혁명화를 보여주는것이다。

멘쉐위끼와 에쓰·엘들은 부르죠아와의 련합의 불가피성을 발명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하였다。 그리하여 멘쉐위끼 수령의 한사람인 체레쩨리는 一차전로쏘베트대회에서 아직 로씨야에는 「우리손에 주권을 주십시오」라고 할만치 준비된 당이 없다고하면서 련합림시정부의 형성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였다。 레닌은 즉석에서 「있다! 우리당이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는 매분(分)마다 일체주권을 쥐기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론박하였던 것이다。

제一차전로쏘베트대회는 멘쉐위끼와 에쓰·엘이 다수를 차지하였던 관계로 결국 련합림시정부를 지지할것과 쏘베트에 주권을 넘기는데 대하여 부인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멘쉐위끼―에쓰·엘적 대회는 대회중인 六월十일 진행하겠금 볼쉐위끼들로써 준비되었던 시위운동을 금지시키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하고 자기들의 의도를 표현할 목적으로 六월十八일 시위운동을 조직하였다。 六월十八일 시위운동은 멘쉐위끼 에쓰·엘들이 기대하던바와는 전연 다른 방향으로 즉 볼쉐위끼들의 력량을 검열하는 시위로 되고말았다。 四〇만 시위군중들이 「전쟁을 업새라!」 「十명의 자본가대신을 타도하라!」 「모든 주권은 쏘베트에로!」 라는 볼쉐위끼 표어의 물결을 일으켰다。

이것은 볼쉐위끼당의 대중속에서의 활동의 결과였으며 그의 실력을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당은 병사대중의 혁명적 집결을 위하여서 치밀한 사업을 경주하였다。 이리하여 볼쉐위끼당지도하에서 볼쉐위끼적 군사단체 전로대표회의가 六월十六일 (六월二十九일) 四十三개의 전선단체와 十七개의 후방군사단체대표로써 소집될수 있었다。 이 대표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레닌과 쓰딸린이 출현하여 「현정세―주권조직과 로동자, 병사대의원쏘베트」 「토지문제」 (이상 두가지는 레닌의 보고) 「민족운동과 민족단결」 (쓰딸린의 보고) 이라는 보고로써 혁명의 실제적 중요문제들에 관한 볼쉐위끼적 로선을 침투시켰다。

七월에 와서는 벌써 모든 산업중심지대들에서 선진프로레타리아트들로써 무장적부대들이 조직되고 있었다。

七월三―四일 뻬뜨로그라드에는 사연발생적인 시위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시위군중들의 기분은 전투성을 표현하면서 림시정부의 축출을 요구하는데까지 이르게되었다。 이때 당은 아직 무장폭동을 반대하였던것이다。 그것은 아직 혁명적 위기가 성숙되지 못하였으며 군대와 지방에서 아직 수도의 무장폭동을 방조할만큼 준비되지않았음으로 소홀한 진출은 전위들을 공연하게 손실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쏘베트들에서도 볼쉐위끼는 아직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중의 시위를 단념시킬수 없다는것을 알자 당은 곧 그들의 시위운동에 조직적 평화적 성격을 부여하기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시위운동이 평화적 성격을 띠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와 타협주의자들은 협력하여 류혈적인 진압을 감행하고 볼쉐위끼당에게 달려들었던 것이다。

七월三일의 평화시위에 대한 무장적탄압과, 쏘베트에 대한 무장해제 감행은 곧 이중주권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하여 멘쉐위끼 에쓰·엘들의 영향하에 있던 쏘베트마자 소탕되고 체레쩨리, 스꼬벨레브, 께렌스끼, 쵸르노브와 같은 「유명」한 「사회주의자」들이 참가한 련합정부는 공연한 제국주의 및 반혁명의 흙탕속에 전락하고 말았다。 혁명의 평화적 시기는 종결되고 볼쉐위끼당은 다시 지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혁명은 무장적 폭동으로써만 해결될것이었다。

당은 새로운 형태의 투쟁시기에서 자기 행로를 구체화하기위한 목적으로 즉 무장폭동을 준비할 목적으로 七월二十六일부터 八월三일까지 六차당대회를 비밀리에 진행하였던것이다。 이때 리슬리브역부근 초막에 숨어있었은 레닌은 직접 참가하지는 못하였으나 대회의 모든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직접 대회를 지도하는 쓰딸린, 스웨르들로브, 몰로또브, 오르드죤깃제를 통하여 모든 지시를 주었던 것이다。

당중앙위원회정치결산보고와 정치정세보고에서 쓰딸린은 당면한 시기에서의 당의 정책과 전술에 대한 기본문제들을 제기하였다。 보고에서 쓰딸린은 국제정세를 분석하면서 사회주의혁명의 수행을 철저히 내세우겠금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로씨야에서 七월사변이후에 판연하게 정세가 변경된것을 설명하였다。 二월혁명후 전체주권을 쥐려고하지않던 멘쉐위끼―에쓰·엘적 쏘베트는 七월사변이후에는 그 자체마자 분쇄되고 주권이 부르죠아수중에 집중되었으며 이 부르죠아정부는 혁명을 계속 무장해제 시킨다는 것과 그렇

기대문에 혁명의 평화적 발전은 불가능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七월사변전까지 당의 기본표어로되던『모든 주권은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는 반드시 철회(撤回)되어야한다고 제기하였다。 물론 이 표어철회는 쏘베트주권。자체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그것은 림시정부와 병립하였을 때의 멘쉐위끼—에쓰·엘적 쏘베트에 정권을 주라던 그 표어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대회에서 뜨로쯔끼주의자 쁘레오브라센스끼는 볼쉐위끼로선을 반대하여 서구라파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있게되는때에 로씨야에서도 사회주의혁명의 길로 들어가자는 견해를 결정서에 첨부하자고 제의하였다。 기회주의자 부하린은 대회에서 사회주의혁명에서 빈농민이 로동계급의 동맹자가 된다는 것을 부인하여 나섰다。 대회는 이 기회주의자들의 견해에 결정적 타격을 주면서 레닌—쓰딸린적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六차당대회의 모든 결정들은 로동계급과 빈농민을 무장폭동에로 돌리는 기본지침으로 되었다。六차당대회후 대중의 혁명적 집결은 계속 강화되었다。 혁명적력량의 장성은 소부르죠아당들을 초조케하였으며 그들을 반혁명적 군사독재수립을위한 준비사업에 더욱 미처날뛰게 하였다。

혁명을 격멸시키기위한 음모의 선두에 총사령관 꼬르닐로브를 내세웠던 것이다。

당은 꼬르닐로브일파의 반란에 대하여 폭동자、병사들이 적극적 반격을 주기위한 무장적진출을 하여야된다고 호소하면서 、급격한 시간내에 무장적 반격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끼로브의 창발력에 의하여「야만사단」내에서 진행된 볼쉐위끼적 선동사업은「야만사단」으로하여금 전진의 명령을 거부케하였다。

꼬르닐로브음모의 격파는 볼쉐위끼당이 어떠한 반혁명진출이라도 진압할만하게 성장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꼬르닐로브일파의 음모를 계기로 사멸할 것같이 보이던 쏘베트들이 실지에서는 혁명적 반격의 힘을 보이면서 소생하였다。 쏘베트들에서 타협주의자들의 영향은 날로 소멸하여갔다。 八월三十一일 뻬뜨로그라드쏘베트는 볼쉐위끼정책을 지지한다는 결정을 접수하였고 九월十五일에는 모쓰크바쏘베트가 볼쉐위끼편에 넘어왔다。 이 꼬르닐로브음모의 참패를 계기로 대중들의 혁명적 집결의 시기는 종결되고 혁명은 직접 진격의 시기에 들어갔다。

八월말—九월초에 반혁명과의 투쟁속에서 소생된 쏘베트들은 급속히 볼쉐위끼화되어갔고 견고하여갔다。 당은『모든 주권은 쏘베트로!』라는 구호를 다시 내놓게 되였다。 그러나 이번 이 표어는 평

화리에 주권을 멘쉐위끼—에쓰·엘적 쏘베트에 주라는 낡은 표어가 아니였다。 이 표어는 림시정부를 무장적으로 전복하고 주권을 볼쉐위끼들이 지도하는 쏘베트에 넘겨주라는 것이었다。

날로 장성하여가는 혁명을 겁낸 멘쉐위끼와 에쓰·엘들은 혁명을 약화시키기위하여 또 한가지 책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九월十二일 사회주의적당、타협적 쏘베트、로동조합、지방자치회、실업가단체、군부등의 대표들로써 구성된 전로씨야민주주의회의를 소집하였던 것이다。 이 회의는 예비의회(림시공화국회의)를 조직하였던것이다。 타협주의자들의 예산으로서는 이 예비회의방조로써 혁명을 중지시키고 부르죠아길에 국가를 들어세우려는 것이었으나 이 반력사적 정책은 끝끝내 파탄되고 말았다。

당중앙위원회가 이「목욕장의 탈의실」이며「꼬르닐로브파의 류산아(流産兒)」인 예비의회에 강경히 반대하여 나섰을때에 까메네브와 지노비예브는 무장폭동에 대한 당의 주의(注意)를 해이시키기 위하여 이 예비회의에 참가하였고 거기에서 탈퇴하라는 당의 강요를 거부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이 반당파들의 행위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볼쉐위끼들이 거기에 참가하게 되었다는것은 중대한 오유이라는것을 지적하면서 당을 꾸준히 무장폭동준비에로 인도하였다。

二、十월무장 폭동과 사회주의혁명의 승리

장성되어가는 혁명을 약화시키려던 타협주의자들의 간책(奸策)이 파탄되고 림시정부의 운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로 되었다。 림시정부는 최후 발악적 흉계를 꾸미었다。 그들은 수도를 독일군에게 줌으로써 독일군의 힘으로써 혁명을 진압하려고 하였다。 한편 혁명에 앞서서 그를 진압할 양(樣)으로 반혁명 진격부대를 조직하였다。

부르죠아들은 멘쉐위끼 에쓰·엘들과 함께「사회보위위원회」—이것은 가장 반혁명소굴이다—를 조직하고 프로레타리아트를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을 준비하였다。

이렇게하여 혁명과 반혁명은 각각 급속히 집중되어갔으며 량진영의 대립은 첨예화하여 갔던것이다。

직접 무장폭동에 돌입하는 것이 혁명의 당면순서로 나서게 되었다。 볼쉐위끼당은 대중의 혁명적 력량을 계속 집결강화하면서 무장폭동준비의 군사적 기술적부면을 편마할 최후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벌써 九월十二일 레닌은 당중앙위원회와 수도및 모쓰크바당위원회에「……볼쉐위끼들이 주권을 쥐어야한다」고 지시하였던 것이다。 모쓰크바나 수도에서 쏘베트가 볼쉐위끼들 수중에 있는한 이것을 실시하여야되며 만일 그러지않는다면 림시정부가 뻬뜨로그라드를 독일제국주의자들에게 넘겨줄것이고 로씨야

사회주의혁명은 독일창검으로 격멸될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뻬뜨로그라드와 모쓰크바에서 즉시 무장폭동준비를 진행할 것과 폭동의 명확성을 주기 위하여 용의주도(用意周到)한 선전사업을 조직할데 대한 당면임무를 레닌은 명시하여 주었다。 레닌의 이 지시를 쓰딸린은「로동자의 길」의 여러론문들에서 아주 교묘하고 급속하게 대중속에 침투시키었던것이다。

무장폭동준비에 당이 총동원된 결정적 시기에 당내에는 또다시 기회주의적 견해의 출현이 있었다。뜨로쯔끼는 쏘베트들에서 볼쉐위끼들이「형식상」다수를 차지할때까지「기다리자」고 하면서 아직 주권을 쥘만한 기관이 없다고 하였으며 다른자들은 국제적 정세가 불리하다고 나섰고 까메네브는 심지어 무장폭동을 반대하는 전당적 투쟁을 요구하였던것이다。

九월十三일「맑쓰주의와 무장폭동」이라는 이름으로써 당중앙위원회에 보낸 레닌의 편지는 무장폭동의 필수조건들이 로씨야에 충분히 조성되었다는 것을 해명하면서 이 기회주의자들의 견해가 맑쓰주의와 혁명에 대한 변절이라는것을 폭로하였다。

레닌은 무장폭동의 필수조건으로써 첫째로 음모나 당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진적계급에 의지할것이고 둘째로 폭동은 반드시 인민의 혁명적앙양기에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로 인민의 전위부대의 열성이 가장 크고 적의 부대의 동요가 가장 큰 그러한 전환적 계기에 립각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레닌은 이러한 조건들을 례거하면서 로씨야에서 무장폭동의 필승의 확신을 표시하였다。무장폭동에 대한 레닌의 리론은 一八四八년과 一八七一년의 경험을 리용하여 폭동에 대한 맑쓰의 학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발전시킨 것이며· 一九〇五년과 一九一七년 二월혁명의 경험을 심중하고 치밀하게 리용한데서 조성된 것이다。

레닌은 폭동은 예술이며 이 예술은 일정한 법규밑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수도의 무장폭동에서 군사상요소(要所)들을 점령할데 대하여、혁명적 군사력 배치에 대하여、혁명적 대중에 대한 령도에 대하여、지어 무장폭동시의 통신망장악에 까지 치밀한 주의를 구체적으로 돌리면서 당중앙위원회에 지시를 주었던 것이다。

무장폭동의 길에서 당을 리탈시키어 국회적 길에 들어세우려는 까메네브도베들의 시도가 있었으나 레닌의 지시는 당의 지침으로 접수되었다。

九월二十九일 레닌은 당중앙위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위기는 성숙되었다。로씨야혁명은 모든 장래에 대한 분기점(分岐点)에 놓여 있다。볼쉐위끼당의 모든 영예는 해결중에 있다。사회주의를 위한 국제적 로동혁명의 모든 장래는 분기점에 놓

여 있다」(레닌전집 二十一권 二三九페지)라고하면서 무장폭동을 제二차쏘베트대회까지 기다리자는 뜨로쯔끼의 견지와 무장폭동을 반대하는 까메네브 지노비에브의 견지를 또다시 예리하게 비판하였다。레닌은 쓰기를「지금 주권을 가지지 않는것은、「기다리자」는 것은、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말공부하는 것은、「기관을 위한 투쟁」(쏘베트를 위한 투쟁)이나「대회를 위한 투쟁」으로서 국한하자는것은 혁명을 사멸시키자는 것을 의미한다」(레닌전집 二十一권 二四一페지)라고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지시에 의하여 九월—十월간에 레닌과 쓰딸린의 사상적 지도를 기초로 하여 많은 지방당단체들이 대표회의를 진행하였다。九월에 소집된 우라지밀주당대표회의는 적위병조직과 무장을 적위병에게 공급할데 대하여 결정하였으며 수내 모든 쏘베트들이 주권을 잡을수 있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九월二十四일—十월五일에 소집된 모쓰크바 제三관구(管區)볼쉐위끼들의 대표회의는 모쓰크바에서 혁명의 중앙을 조직할데 대하여 결정하였고 민쓰크、에서 十월五일 열린 서북주 볼쉐위끼들의 대표회의는 혁명의 결정적 모멘트가 닥쳐왔다는 것을 승인하면서 주권기관을 장악할 것과 수도에 적위병원조대를 파견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十월七일—十월十一일에 있은 뻬뜨로그라드 당대표회의는 레닌의「만일 께렌스끼정부가 프로레타리아트들로서와 병사들로서 아주 가까운 장래에 전복되지 않는다면 혁명이 사멸될 것을 반드시 인정하여야 된다。폭동에 대한 문제가 당면순서로 나선다」(레닌전집 二十一권 二九〇페지)라는 격려를 전적으로 접수하면서 로동자、농민쏘베트에 무장적으로 정권을 이행시킬 과업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박도한 무장폭동을 직접 지도하기 위하여 레닌은 十월七일 비밀리에 수도에 돌아왔다。레닌은 곧「타인의 쏘베트」라는 론문에서 승리적 무장폭동조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체적 지시를 내놓았다。

무장폭동의 승리에 대한 레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一、폭동과는 어느때든지 희롱하지 말것이며 폭동을 시작한이상 최종의 선까지 견고히 나가야할 것이고

二、결정적 장소와 결정적 시기에서는 반드시 상대편보다 우월한 힘을 집중시켜야 된다。왜냐하면 그렇지않는 경우에는 적이 더 우월한 준비와 조직으로써 폭동자들을 청산할수있게 하기때문이다。

三、폭동이 시작되었다면 위대한 결단성으로 동작、할 것이며 반드시 진격전으로 넘어가야 된다。엥겔쓰는 「방어는 무장폭동의 사멸이다」라고 일찌기 말씀하였던 것이다。

四、적에 대한 불의(不意)의 기회를 얻기에 노력할 것이며 그의 군대가 분산된 그 모멘트를 붙잡아야 된다。

五、무엇보다도 「사상적우세」를 고려하면서 시각마다 지어 조그마한 성과라도 달성하여야 한다。

레닌은 폭동을 예술로 취급한 맑쓰나 엥겔쓰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켰던 것이다。일찌기 맑쓰가 폭동에 대한 모든 교훈을 총화하면서 력사에서 위대한 혁명적 전술의 기공(技工) 딴똔의 「용감성 용감성 다시한번 용감성을 발휘하라。그때에야만 혁명이 구원될 것이다」라는 말로써 끝마친 그 견해를 레닌은 완전히 소유하였고 더 발전시켰던것이다。

레닌은 폭동계획을 략서(略書)하기를 수도를 포위하여 다른 것과 절연시키고 로동자、병사、함대의 련쇄적 돌격으로써 수도를 점령할 것이며 이 세개의 련합적 력량으로써 어떠한 희생이든지 무릅쓰고 전화 전신기관과 정거장 및 교량을 점령고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중대한 과업들을 실행키 위하여서는 가장 결정적인 성원들로써 전투적 부대를 조직할 것이며 그 부대는 「모두다 죽어도 적을 침입시키지 않겠다」라는 표어 밑에 활동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레닌에 의하여 무장폭동의 군사적 기술적 부면에서의 활동방침까지 확립된 당은 행동개시의 결정을 위하여 十월十일(十월二十三일)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를 가지게되었던 것이다。十二명의 위원이 참가하였다。처음 스웨르들로브의 북부—서부전선정세와 군대내에서 볼쉐위끼영향 장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동시에 림시정부의 반혁명군대 동원상태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다음에 레닌의 현정세에 관한 보고는 폭동의 직접 박도의 모멘트에 관하여 운운(云云)되겠금 모든 국내외 정세가 조성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이 당중앙위원회는 근일중 무장폭동을 개시할것을 결정하였다。

폭풍우를 보여주는 기압계(氣壓計)로써 명칭되며 레닌에 의하여 기초(起草)된 이 당중앙위원회의 력사적 결정서는 다음과 같다。「중앙위원회는 로써야 혁명의 국제적 립장(전구라파에 걸쳐 세계적사회주의혁명의 성장하고 있는 극단의 표현으로써 독일해군내의 폭동、다음으로 로써야혁명을 교살시키기 위해서 제국주의자들의 강화(講和)의 위협) 그리고 군사적 상태(뻬뜨로그라드를 독일인에게 양여하려는 로써야부르죠아지와 께렌스끼배의 틀림 없는

결의、그리고 쏘베트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이 다수를 점한것—이러한 모든것은 농민의 폭동、인민의 신뢰의 우리당에의 전환(모쓰크바와 선거)과 관련되는 것이며 끝으로 제二꼬르닐로브진격의 명백한 준비(뻬뜨로그라드로부터 군대의 철수、뻬뜨로그라드에의 까사끄의 수송、까사끄의 민스끄포위등)—이러한 모든 것은 무장폭동을 일정(日程)에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와 같이 중앙위원회는 무장폭동이 불가피이며 또 그 시기(時機)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인정하고서 당중앙위원회는 당외 전조직에 대해서 이 사실에 준거하고 이 견지에 의해서 모든 실천적 문제(북부주 쏘베트대회、뻬뜨로그라드의 군대철수、모쓰크바와 민스끄주민의 진출등)를 검의하고 해결할것을 제의한다」(레닌전집 二十一권 三三〇페지)

이 회의에서 까메네브와 지노비에브는 또다시 「우리에게는 폭동의 기관이 없다。우리 원쑤들에게는 이 기관이 매우 더 튼튼하며 아마도 이 주일간에 더 성장하였을 것이다」(레닌전집 二十一권五〇三페지에 인용된것으로부터)라고 원쑤의 력량을 과대평가하고 로동계급의 역활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무장폭동을 반대하였다。또로쯔끼도 二차쏘베트대회까지 무장폭동을 기다리자는것으로써 결정서 수정을 시도하였다。이것은 림시정부에게 무장폭동을 사전에 예고하여주는것이다。이런 반당적 경향이 있었으나 레닌의 제의는 접수되었다。 이 력사적결정이 있은 다음은 무장폭동의 정치적 또 특히 조직적—기술적준비가 힘있게 진행되었다。

레닌과 쓰딸린을 중심한 당중앙위원회는 수도에서 무장폭동의 전국지도를 감당하였고 각지에 무장폭동준비와 진행을 위한 책임일군들을 파견하였다。돈바스에 워로쉴로브、하리꼬브에 알쫌(표·도·젤게옙)북깝까즈에 끼로브、싸마라에 꾸입쎕과 쏘웰니크、백로씨야에 까가노위츠와 먀스니꼬브 이와노브 워스네센스크、산업구역에 프룬제、우랄의 샤프린스크의 군대내에 스다노브、찌비리야의 똠스크에는 야꼬브렙、옴스크에 로브꼬브、이르꾸쯔꾸에는 가부리로브와 라조(찌비리에서 공작한 이 四명은 공민전쟁에서 모두 영웅적 전사를 하다)가 책임일군으로 파견되였다。자·깝까즈에서는 직업적 혁명가 쇠우만 드쥐바릿제 모쓰크바에서는 스크볼쪼브 쎄빠노브 야로스랍스끼 쉬끼랴또브가 일하였고 수도에는 레닌과 쓰딸린의 직접 지도하에 볼쉐위끼당의 저명한 활동가들 즉 스웨르들로브 뜨제르진스끼 깔리닌 몰로또브 오르드죤기제 안드레옙등이 공작하고 있었다。 十월九일 뻬뜨로그라드 쏘베트위원회내에 당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수도군관구사령부가 수도로부터 혁명적 군대를 이전시키

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다。十월十二일 이 군사위원회 임무를 결정하는 수도쏘베트집행위원회의 비밀회합이 있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수도방어에 필요한 최저력량을 설정할것이고, 해군단체와의 련결을 도모할것이며, 수도와 부근의 수비대통계 확보, 수도방어 계획의 작성, 학살로부터 수도의 방어, 로동자들에대한 무장화, 수도에 혁명규률 수립등을 수행할것이었다。이렇게 하여 군사혁명위원회는 자기 수중에서 폭동의 온갖 실지적 문제들을 준비하는 폭동의 합법적 참모부로 되었으며 적위병, 혁명적해군, 수도수비대는 모두 그의 관할하에 있었다。 수도에는 이외에 각구역마다 군사단체지도자들, 적위병장교, 구역쏘베트위원장(볼쉐위끼인 경우)으로써 구성된 비합법적 폭동준비 지도부가 조직되었다。 전선과 다른 도시들에서는 쏘베트내에 군사혁명위원회들이 조직되어 폭동준비를 진행하였다。

당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어갔다。

十월十六일 폭동준비행정의 검열과 폭동에 대한 요령을 더 광범한 당일군들에게 침투시킬 목적으로 당중앙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리었다。 여기에는 수도당위원회대표, 군사단체대표, 수도쏘베트대표, 직업동맹대표, 공장—제조소위원회대표, 철도일군대표, 수도의 각관구(管區)대표들 약 三十명이 참가하였다。

레닌은 十월十일의 당중앙위원회 결정서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것을 반대한 반당적 분자들의 견해를 폭로하면서 무장폭동의 불피성을 강조하였다。 스웨르들로브는 볼쉐위끼당 장성과 군대, 함대쏘베트들에서 볼쉐위끼적 영향의 확대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수도당위원회대표, 군사단체, 직업동맹, 공장—제조소위원회대표들은 각각 대중들이 림시정부를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킬 전투적 준비가 되었다는 보고들을 하였다。

확대회의는 무장폭동준비의 성숙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노비예브, 까메네브는 또다시 폭동을 반대하여 나섰다。 쓰딸린, 스웨르들로브, 드제르진스끼는 철저한 반박으로써 그들의 견해를 구축하였다。 확대회의는 十월十일 당중앙위원회가 접수한 결정서를 확인하였다。 확대회의가 끝난 바로 직후 당중앙위원들로써만 구성된 비밀회의는 폭동을 실지적으로 지도할 목적으로 쓰딸린을 수위로하는 당중앙을 형성하였다。 여기에는 스웨르들로브, 드제르진스끼, 우리쯔끼가 참가하였고 수도군사혁명위원회의 실지적 지도핵심이었다。

이때에 결정적타격을 받은 지노비예브, 까메네브는 당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여 나섰다。 그들은 十월十八일 멘쉐위끼 기관지『새생활』에 자기

들이 반대하는 폭동을 볼쉐위끼들이 모험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것을 광포하여가지고 가까운 장래에 폭동이 있을것을 원쑤들에게 예고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 결정을 변절적으로 발로시켰던것이다。 야비한 이자들에 대하여 레닌은 당에서 제명할것을 당중앙위원회에 제의하였다。

투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최후순간까지 전개하면서 당은 결정적으로 十월무장폭동에로 진격하였다。

배반자들로부터 예고를 받은 혁명의 원쑤들은 무장폭동의 참모부인 볼쉐위끼당을 분쇄하려고 응급수단을 취하였던 것이다。 十월十九일 림시정부는 전선으로 부터 수도에 급속히 군대를 소환시켰고 수도에서는 게올기기병과 장교 六백명을 포함하여 전체 경관들이 무장하였다。 수도가두에서는 순시(巡視)가 더욱 강화되었다。

림시정부는 二차전로쏘베트대회가 소집되는 하루전에 볼쉐위끼당 중앙위원회가 있는 스몰니를 공격하여 혁명의 중앙을 파괴시키려는 복안을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힘이든지 벌써 림시정부를 도와줄만한것은 없었다。

각구역에있는 군사혁명위원회는 자기 기능을 백방으로 발휘하여 로동자들의 진출과 적위병공격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렇게 하여 원쑤들이 수도로 부터 돈에" 수송하려던 무기도 혁명군의 손으로 수도 로동자구역에 감추어 둘수있게 되었다。

十월二十一일 모든 혁명적 군사부대에다가 군사혁명위원회 정치위원들을 파견하였다。 이것을 께렌스끼가 막으려고 수도군관구 사령관에게 군사혁명위원회 지시를 거부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아무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十월二十二일 볼쉐위끼들은『모든 주권은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밑에 수도의 각공장—제조소의 대중적 집회를 진행시켰다。 十월二十三일 군사혁명위원회는 수비련대의 위원회를 진행시켰고 수도 쏘베트회의에서는 자기사업정형을 보고하였다。

十월二十三일 밤에 당중앙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소집하여가지고 혁명력량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새구체적과업들을 주었다。 이렇게 혁명의 전투적준비는 걸음마다 시각마다 행동개시에로 향하여갔으며 다만 당중앙위원회의 지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때에 뜨로쯔끼는 수도쏘베트회의에서 폭동개시시간의 비밀을 발로하여주었던것이다。 당중앙위원회는 폭동의 중도파탄을 면하기 위하여 예정한 시간을 변경시키지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예정보다 단축하여 二차전로쏘베트 전날에 진행키로 결정하였다。

十월二十四일 아침 반혁명은 혁명을 앞서서 진출하였다。 사관학생들이『로동자의 길』신문을 철폐하

라는 께렌스끼의 명령을 가지고 볼쉐위끼당 중앙기관지출판소에 왔다。

그러나 이미 쓰딸린의 지시에 의하여 수비하고 있던 적위대와 혁명적병사들은 사관학생들을 구축하고 견고한 방어를 보존하였다。 고대하던 무장폭동의 신호는 내리게 되었다。 오전十一시에 발간된 『로동자의 길』 신문 사설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써 림시정부를 전복하라는 호소를 내리었다。 쓰딸린은

『더 지완한다면 모든 혁명적 사업을 사멸로써 위협하게될 그러한 모멘트에 닥쳐왔다。 지주와 자본가들의 현정부를 로동자와 농민들의 새정부로써 교체할것이 필요된다』(쓰딸린전집 三권 三八八페지) 라고, 썼다。

쓰딸린은 인쇄소와 『로동자의 길』 출판소를 방위할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놓고 한편 급속히 당중앙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여기에서는 긴 보고가 없이 단시간내에 모든 문제들이 결정되었다。 당중앙위원들은 스몰니에서 해산하지말고 수도당위원회와 련결을 맺으면서 두곳의 수직을 조직하고 있을것과 『로동자의 길』 신문사 방어에대한 쓰딸린의 방책이 승인되었다。

림시정부의 동태를 살피며 수도의 군사적 요소들과의 련결을 확보할 책임을 스웨르들로브가 가졌으며 우편국과 전신국의 장악을 드제르진스끼에게 위임하였다。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은 스웨르들로브에 의하여 급속히 군사혁명위원회에 전달되었고 군사혁명위원회는 즉시로 모든 정치위원들과 혁명적 련대위원회에 전투개시를 준비하라는 지령 제一호를 주었다。 여기에는 어떠한 지완과 방해는 혁명의 변절로써 인정하라는것과 앞으로 행동에대한 지시를 기다리라는것이 지적되었고, 각련대와 적위대로부터 대표두명씩 스몰니에 보내라고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지시에 의하여 리똡스코련대와 공병들이 스몰니에 불리어왔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적위병총참모부에 지시하기를 一、五〇〇—二、〇〇〇명의 로동자들을 스몰니에 보낼것、운수용구들을 수집할것、각구역에서 전술상 요소들을 확보할것、공장—제조소들을 견고히 수비할것、정부기관들을 점령하기위하여 전투적 력량을 선택할것등에대한 명령을 내리었다。

이렇게 무장폭동이 시작되었다。

十월二十四일 저녁 레닌은 일각의 지완도 폭동의 사멸과 깊은 관계에 있기때문에 어쨌든지 폭동을 시작하여 주권을 장악하여야 된다고 격려하면서 뻬뜨로그라드를 포위할것이며 진멸시키라는 지시를철저히 실현하는데 백방의 주의를 돌렸다。 특히 레닌은 교량들을 확보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전시 十개의 교량중 九개소가 혁명진영에 점령되었고 각구역간의 련결도 혁명군의 수중에서 좌우되었다。

스몰니는 수도十개구역의 적위병、해군、병사들의 중심으로 되었고 그들의 모든 과업은 이곳으로부터의 지시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 모든 보도와 재료들이 여기에 집중되었으며 수도의 신경망(神經網)을 한손에 걷어쥐고있었다。

동요기풍을 가진 군인부대에는 군사혁명위원회대표들을 파견하였고 까사끄병영과 사관학교들을 혁명진영의 초병(哨兵)들로써 포위하였다。 十만개의 총이 보관되어있는 뻬뜨로빠브롭스크 무기고도 군사혁명위원회수중에 들어왔다。

께렌스끼의 긴급명령에 의하여 반혁명을 구원하려고 수도에 들어오는 전선과 짜리 농촌군인부대는 혁명군에게 포로되고 말았다。

十월二十四일 저녁에는 벌써 동궁과 총참모부주위 수도중앙을 제외하고는 전체 군사혁명위원회가 관할하게 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최후의 소탕을 기하기 위하여 十월二十四일 오후八시에 『규약을 보내라』는 암호전화로써 전투적함대와 해군부대들을 보내라고 헬싱폴스에 통지하였다。 전투함과 五、〇〇〇명의 해군부대가 곧 도착하였다。

十월二十四일 밤깊어 비로소 레닌이 비밀거수로부터 폭동의 본부 스몰니에 왔으며 쓰딸린과함께 직접 폭동의 핸들을 쥐게되었다。

레닌은 곧 적위병과、구역들과 공장들의 군사일군들을 소집하여 세밀한 지시를 주었다。 폭동의 모든 신경들이 레닌과 그의 전우이며 제자인 쓰딸린 스웨르들로브수중에 쥐어졌다。

二十五일 새벽부터 군사혁명위원회지시에 의하여 수도중앙요소(要所)들이 급속히 점령되어갔다。

오전一시二十五분에 위보르그구역 적위대 젝스골름련대 및 해군들로써 중앙체신국을 점령하였고 갈은때에 다른 부대들은 니꼴라이엡스크와 발찌스크정거장들을 점령하였다。 전기공장을 비롯한 중요한 기업소들을 점령하였다。 혈전끝에 사관학생부대와 반혁명진격대들이 격멸되었다。

오전三시三十분 순양함 아브로라가 니꼴라이엡스크교량부근에 도착하여 동궁에 향하여 대포를 겨누게 되었다。

오전四시반에는 전화국이 점령되어 동궁의 외부와의 련락을 단절시켜버렸다。 六시에 국립은행을 장악하고 八시에는 왈샤와스크정거장이 확보되었다。

레닌이 지시한 대로 폭동은 한시각씩 한결음씩 아껴가면서 자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하여 二十五일 아침十시에 수도의 모든 전략적요소(要

所)들이 혁명진영에 속했다는 보고가 레닌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되자 레닌은「로씨야공민에게」라는 볼쉐위끼선언으로 부르조아림시정부는 전복되고 국가주권이 로동자 농민 병사대의원쏘베트에 넘어왔다고 발표하였다。

정권을 장악한 수도쏘베트는 즉시 자기사업에 착수하여 二十五일오후二시三十五분에 비상회의를 가지게되었다。七월사변후 처음으로 레닌이 공개적출현을 하였다。적위병 해군들이 이 승리한 혁명의 수령을 열렬한 환호로써 맞았다。

레닌은 말하기를「그 혁명의 불피성에 대하여 볼쉐위끼들이 항상 말하던 로동자、빈농민혁명이 수행되었다。……로씨야력사에 있어서 지금 새기원이 닥쳐왔으며 부여된 세번째 로시야혁명은 그의 최종결과를 반드시 사회주의승리에로 가져갈 것이다」(레닌전집 二十二권 四페지)라고하였다。

二十五일 심경(深更) 로동자、병사、해병들의 돌격대는 순양함「아브로라」의 원조포격으로써 동궁을 점령하고 림시정부각원들을 체포하였다。께렌스끼는 변장하고 미국령사관자동차로써 도망하였다。혁명의 중앙인 수도에서의 무장폭동은 완전히 승리하였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간략독본은「순양함「아브로라」는 동궁으로 향한 그 대포의 요란한 포성으로 새 기원—위대한 사회주의혁명의 새 기원을 보도하였다」라고 표현하고있다。

요색(要塞)들에서 전투가 아직 끊지지않은 二十五일오후十시四十五분 무장폭동의 승리를 인증하는 제二차전로쏘베트대회가 스몰니에서 열리었다。

어떠한 혁명에서든지 주권을 전취하는 문제 즉 이미 있던 지배계급의 주권을 넘겨가지는것이 주되는 과업이라는 맑쓰—레닌주의원칙을 十월사회주의혁명은 무장폭동으로써 수행하였다는것을 대회는 선언하였다。즉 일체주권이 로동자 농민 병사대의원쏘베트에 넘어왔다고。

대회는 평화에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강화에대한 교섭을 진행시키기위하여 적어도 三개월간의 즉시 정전을 협약할것을 참전국들에 호소하면서「인류의 가장 선진적인 민족이며 현하 전쟁에 참가한 가장 강대한 세국가 즉 영、불、독일의 의식적로동자」에는 일체 착취와 예속을 철폐하는 위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원조하라고 격하였다。

대회는 토지법령을 채택하였다。그 법령에는「지주토지소유제는 하등의 대상(代償)없이 즉시 폐지」할것이 지적되었다。이 법령에 의하여서 토지사유제는 철폐되고 지주、부르죠아、황족、사원、교회가

가지고있던 一억五천만제샤찌나의 토지가 국유화되어 농민들이 새로 받게되었다。 농민들이 매년 지불하던 五억금루블리는 농민의 수중에 남게되었다。

대회는 국가주권지도기관을 조직하였다。전로씨야중앙집행위원회선거와 첫쏘베트정부—레닌을 수위로하는 인민위원쏘베트를 조직하였다。쓰딸린은 민족문제에관한 인민위원쏘베트에서 책임지었다。이 정부는 모두 볼쉐위끼들로써 형성되었다。대회가 끝나자 대의원들은 지방마다 쏘베트주권의 확장을 위하여 맹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어데에서나 일시에는 쏘베트주권이 승리하지못하였다。

모쓰크바에서는 수부에서 무장폭동이 승리한후 수일간 류혈적 시가전이 계속되어 十一월十八일경에야 비로소 쏘베트편에 주권이 넘어왔다。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여 놓은 다음에 당앞에 제기되는과업은 수립된 어떤 쏘베트를 공고강화하는 사업이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무장폭동으로써 승리된 혁명을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기본적사업으로 되며 특수적으로는 외국제국주의사들의 강대한 집중적무장간섭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있을것이 예상되었던 까닭에 시간적신속성이 요구되는 선차적사업으로 되었다。이것은 새로운 계급투쟁의 형태로써 더욱 가렬한 투쟁을 의미한다。

부르죠아정권이 전복된후 반혁명자들과 반당파들 그리고 외국제국주의자들의 해독적반항과 진출이 더욱 치렬하여졌으니 당과 쏘베트는 그들과의 격렬한 투쟁행정에서 국가건설사업을 진척시키게 되었다。

브스끄부에 도망한 께렌스끼가 까사끄부대를 집결하여 끄라스노브장군에게 지휘시켜서 수도에 진격하여왔고 이와 련결되어 十월二十九일 에쓰·엘을 두목으로하는「조국 및 혁명구제위원회」가 사관학생들의 반란을 수도에서 조직하였으며 모기료부의 대본영에있는 두호닌장군은 쏘베트정부를 부인하여 나섰다。이 모든 책동들은 즉시에 분쇄되었고 전국적으로 쏘베트정권이 파급되어갔다。

이리하여 一九一七년말부터 一九一八년중기까지는 볼쉐위끼당은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새국가기구인 쏘베트기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정력을 돌리었으며 성과있게 달성하였다。레닌은 이 시기를「자본에대한 적위군의 공격」의 시기라고 불렀다。

적들과 투쟁하면서 당과 쏘베트는 낡은 국가기구와 사회제도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것으로 대체하였다。최고인민경제쏘베트 전로비상위원회가 창설되고 붉은 륙해군 창설에대한 법령이 나리었으며

헌법제정회의는 해산되었다。

계급제도, 민족억압 및 종교제도, 교회의 특권은 폐지되고 남녀동등권, 로씨야제민족의 동등권이 설정되었다。

부르죠아의 경제력파괴와 새 쏘베트인민경제 특히 새로운 쏘베트산업을 조직하는 방책으로 은행 철도 대외무역 상선대 및 산업각부문의 모든 대기업들이 국유화되었고 짜리와 림시정부에 의하여 체결된 외국에대한 차관이 취소되었다。외국자본가들의 굴욕과 예속에서 로씨야가 해방되었다。

쏘베트국가의 강화에대한 교섭은 영, 불제국주의자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독일측과 단독으로 진행하게되었다。쏘베트주권을 공고히하는 근본과업을 위하여서는 거대한 손실을 보면서도 강화와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였다。그러고야만 무능력한 낡은 짜리군대 대신에 쏘베트방어력으로되는 새군대—붉은군대도 정비될수 있었던것이다。그렇지않는다면 쏘베트주권은 독일제국주의총검으로 멸살되고 十월의 승리는 수포로 돌아갈것이다。이것이 또 반혁명자들의 절망(切望)하는바였다。그렇기 때문에 독일제국주의자들이 거대한 점령지역과 파란, 우크라이나, 빨직연해국가들을 요구하는것을 좋은 구실로 리용하여가지고 온갖 반혁명자들이 강화를 반대하여 나섰고 은폐된 혁명의 원쑤였던 뜨로쯔끼, 부하린, 라데크, 빠따꼬브도『좌경적』언사로써 강화를 반대하여 당내에 혼란을 주었다。레닌과 쓰딸린, 스웨르들로브는 이 변장한 변절자들과 결정적으로 투쟁하였다。二十년후에 해명된바 이자들은 에쓰·엘들과 함께 브레스트강화조약을 파탄시키고 독일군의 진격을 조장시키어놓고 한편 레닌, 쓰딸린, 스웨르들로브를 암살한다음 자기들의 정부를 조직하려는 계획을 이때에 꾸미었던것이다。

당과 쏘베트는『사회주의조국』이 위기에 부닥쳤다고 격(檄)하면서 로동계급에게 붉은군대 조직확장을 호소하였다。

一九一八년二월二十三일 붉은군대 첫부대가 계속 진격하여오는 독일군에게 부스꼬부 나르바부근에서 결정적반격을 주었다。이날은 붉은군대 탄생일로되고 있다。

결정적반격을 받은 독일측은 강화교섭을 계속할데 대하여 응하여왔다。그러나 뜨로쯔끼—부하린파들의 흉책으로 말미암아 전보다 더 광범한 지역을 요구하여왔다。쏘베트정권의 공교화를 위하여서 또 분실된 지역들이 독일의 패전으로 멀지않은장래에 돌아온다는 예산으로써 눈물을 삼키면서 강화를 체결하였다。반당파들이 계속 강화를 반대한것은 물론이다。

一九一八년三월六일에 열린 七차당대회는 레닌, 쓰딸린의 로선을 승인하고 당대렬과 쏘베트주권을 공고히 할데대한 중요한 방침을 세웠다。

반혁명자들의 온갖 시도를 타파하면서 一九一八년 七월四일에 열린 제五차전로쏘베트대회는 첫쏘베트헌법인 로씨야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헌법을 채택하게되었다。여기에는 사람에대한 사람의 온갖、착취와 사회의 계급적분렬의 청산, 착취자들에대한 철저한 진압, 사회주의적조직의 수립등을 쏘베트국가의 기본적임무로 내세웠다。

프로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으로 나선이후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은 새로운 조건에서 더 날가롭게 계속된다。

부르죠아가 정복되어도 오랫동안 그들에게 옛제도의 회복에대한 욕망이 남아있으며 그들의 이욕망은 실제 시도로써 변하는것이다。그들의 과거의 찬란한 생활을 회복하려고 十배나되는 에넬기야와 백배나 더 되는 적개심으로써 반항한다。전복된 부르죠아들의 힘은 레닌이 지적한 바와같이 국제적자본의 힘과 그들의 국제적련결의 힘에 있고 전복된 후에도 여러가지 실제적우세—동산소유, 조직 및 관리에대한 련락과 숙련, 관리의 비밀에 대한 모든 지식, 비교적 고등한 상식, 기술상 우세, 군사상숙련—에 있으며 관습의 힘과 소생산의 힘에 있는것이다。

소생산은 레닌이 지적한 바와같이 끊임없이 서각마다 자연생장적으로 다량의 자본주의와 부르죠아를 산출한다。때문에 계급을 없샌다는것은 이미 있던 지주와 자본가의 청산으로써 끝나는것을 의미하지않는다。그 소상품생산자들은 구축이나 진압으로서가 아니라 레닌의 말과같이 그들과는 사정좋게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심중한 교양사업으로써 재교양하며 개조하여야 하는것이다。

이것은 十월사회주의혁명승리후의 당앞에 나서는 장구한 과업이었으며 그것이 곧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내용으로 되는것이다。

十월혁명의 승리는 인류력사에서 새시대—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의 시대를 열어놓았던것이다。

十월혁명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 수립하였으며 쏘련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조건을 지어놓았던 것이다。

× × ×

二월혁명후 볼쉐위끼당은 맑쓰—레닌주의의 모든 적들—부르죠아, 제소부르죠아당, 당내기회주의와 올은 전술로써 집요하게 영웅적으로 투쟁한결과 로씨야로동계급과 모든 로력대중의 신임을 일신에 집중시켰다。이럼으로써 로동계급과 빈농민의 동맹을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방향으로 보장하고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승리를 가져왔다。

사회주의혁명을 준비하며 수행하는데서 四월테제 四월당대표회의 六차당대회는 결정적 의의를 가지며 레닌과 쓰딸린 그리고 당의 우수한 지도자들의 결단성, 조직성, 치밀성은 모든 선행혁명의 경험을 총화하고 새력사적 구체적조건을 파악하게함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놓지지 않았던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는 계급투쟁의 종결을 의미하지않는다。 프로레타리아트는 프로레타리아트독재라는 새로운 무기로써 계급사회의 모든 잔재를 숙청하는 투쟁을 더욱 맹렬히 전개하였으며 전개하고있다。

十월사회주의혁명승리후 당은 공민전쟁을 겪처 세개의 五개년계획을 진행하여 쏘련에서 사회주의사회건설의 완성과 점차적으로 공산주의사회에로 이행하는 력사적시기를 개척하여 놓았다。

력사의 거역자 독일파시스트와 일본군국주의에대한 투쟁에서 볼쉐위끼당이 령도하는 쏘련인민은 제국주의 기반에서 유린되던 중구라파 및 동남구라파와 원동의 제약소민족들을 해방시켰다。 이 지역국가들은 제국주의에 예속되었던 시기의 매국자 반역자들이었던 지주 독점자본가들을 숙청하고 인민적 민주주의질서를 수립하고 있으며 그나라들은 十월사회주의혁명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갈 요소들을 내포하고 또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전후 새로 대누하는 파시스트와 침략적 전쟁조발자들을 폭로하면서 볼쉐위끼당은 『모든 길은 공산주의에로』라는 빛나는 기빨밑에 새로운 五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다。

一九四九년四월二十五일 인쇄
一九四九년四월三十일 발행

「근로자」제八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기석복
편집인 김정윤
인쇄인 오기익
발행소 로동신문사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근로자」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一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二(三二〇번)

제ㄱ—10657

一九四七년八월二十일 제三종우편물인가제